

Health & Welfare Review

ORIGINAL ARTICLE

- 5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대안모색: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임 운
- 17 해외두뇌정책의 개념과 쟁점
김규찬
- 29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노년기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
이행옥
- 39 독일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박수지
- 51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나정숙
- 61 만 2세 영아 자녀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어려움: 문화기술적 연구
마가양·김현정
- 71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유정희·김연숙·이현우·김상훈·조연수·김은지·최선하
- 81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 1차 유행기간을 중심으로
박나라·류지홍·남민아·소애영
- 95 원주시 COVID-19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방역대책 고찰
현상익·유재옥·방민지·소애영
- 109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건강인식과 정신건강행위실천
김두경·표수인·이예슬·강서진·소애영
- 125 대학생의 손씻기와 구강위생에 대한 비교연구
황다연·오현석·한지훈·공은미·박미래·한승하·김근면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대안모색 -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

임 운(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초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이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 교수학습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구성과정” 또는 “다문화적 역량 강화”, “내용 통합”, “사회정의” 또는 “편견 감소”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평등교육”, “학교문화와 사회조직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의 평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화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심 용어: 다문화 교육, 사회 교과목, 다문화 사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0년대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노동이주, 유학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다문화현상은 우리에게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더불어 이동수단과 통신기기 등의 발달로 인한 지구적 네트워킹은 지구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으로 사고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지구촌화와 다문화사회 상황에서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으로 하여금 지구적 차원의 세계시민성을 발휘할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여 사회적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사회과교육은 시민 교과목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냐의 귀로에 서게 되었다. 즉, 이러한 세계화와 다문화 현상은 인종·민족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단일 민족임을 주장하기 힘들게 하였고,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 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해결에 참여하여 세계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다문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문화, 차이점, 가치관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 공동체적 입장에서 세계체제를 이해하고 서로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간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다문화적 지적능력을 기르는 지적인 영역과 국제적 의식 및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제이해 교육은 단편적이면서도 사실적 지식을 주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국제적 의식 및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정의적인 영역의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외국 문화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어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다른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관적인 관점 또는 주류 문화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 지식, 환경, 생활 모습 등에 대하여 개방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를 사회현상으로 보고 주류 문화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주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진정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에 국제이해

교육 또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노력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편견과 차별 철폐 등을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이미 다문화가 진행된 나라들에 비하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자료 개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우리 사회의 구성도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따라서 초등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교수학습 방안, 교육 활동 및 자료, 교육환경 등에 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교육이념이나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 속에서 다문화 교육적 요소를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초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이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 교수학습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는 다문화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정용교, 2013; 정윤희, 2007; 김진희와 차승환, 2016). 본 연구에서는 Banks(2002, 2008)와 Bennett(2007)의 다문화교육의 이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된 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현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Banks의 다문화교육 구성내용

Banks(2002, 2008)는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의 구성내용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기본 틀로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에는 내용통합, 지식 구성과정, 편견 감소, 평등 교수법, 학교 문화와 사회 조직의 강화 등이 있다.

1) 내용통합(Content Integration)

내용통합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구성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할 때, 다양한 문화 및 다양한 집단에 관련된 사례와 내용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구성원의 역사, 문화,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내용통합은 교사가 교과목의 주요 개념, 원리,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례, 자료,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관심 범위를 가장 좁게 설정할 때, 흔히 내용통합을 떠올린다. 이로 인해 사회나 국어 등을 제외한 많은 교과들이 다문화교육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용 통합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내용 통합방식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2) 지식 구성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지식 구성과정은 암묵적·문화적 가정, 관점, 그리고 편견들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지식에 대한 비판적 해석능력을 학생들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는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한 사회 내의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 지식 생산자들의 목적과 관점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 스스로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즉 지식 구성과정은 암묵적인 문화적 가정, 준거 틀, 관점, 편견 등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3)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

편견 감소는 교수법과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문화집단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와 가치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즉 편견 감소는 학생들이 인종적·민족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을 다룬다. 사람은 보통 4세 이후에 인종 차이에 대한 자각증상이 나타나며, 종종 백인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적·인종적 집단에 대한 실제 내용이 학습 교재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방법으로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더 긍정적인 민족적·인종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4) 평등교육(Equity Pedagogy)

평등교육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예로,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의 교육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수기법과 협동학습 기법은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에서 온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점이 현직 교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즉 평등교육은 소수집단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교사가 자신의 교수법을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집단 학생들의 학업 실패가 가정문화와 학교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평등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학습양식을 교수법에 반영하고 협동학습을 지향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을 교수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들에게 요구한다. 즉, 학생들이 속한 민족 집단과 관계된 특징적인 문화적 행동이 학생들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

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정통하고,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다문화교수법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집단 출신인 학생들의 교실참여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사들에게 요구한다.

5) 학교문화와 사회조직 강화(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학교문화와 사회조직 강화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과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평등과 다문화적 역량강화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교조직 및 사회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즉 다양한 집단에서 온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Banks(2002, 2008)의 다문화교육 구성요소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Banks(2002, 2008)는 학교가 다문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① 교직원의 태도, 인식, 신념 및 행동, ② 공식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③ 학교가 선호하는

교수 학습 방법, ④ 학교 언어, ⑤ 교수·학습 자료, ⑥ 평가 절차, ⑦ 학교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⑧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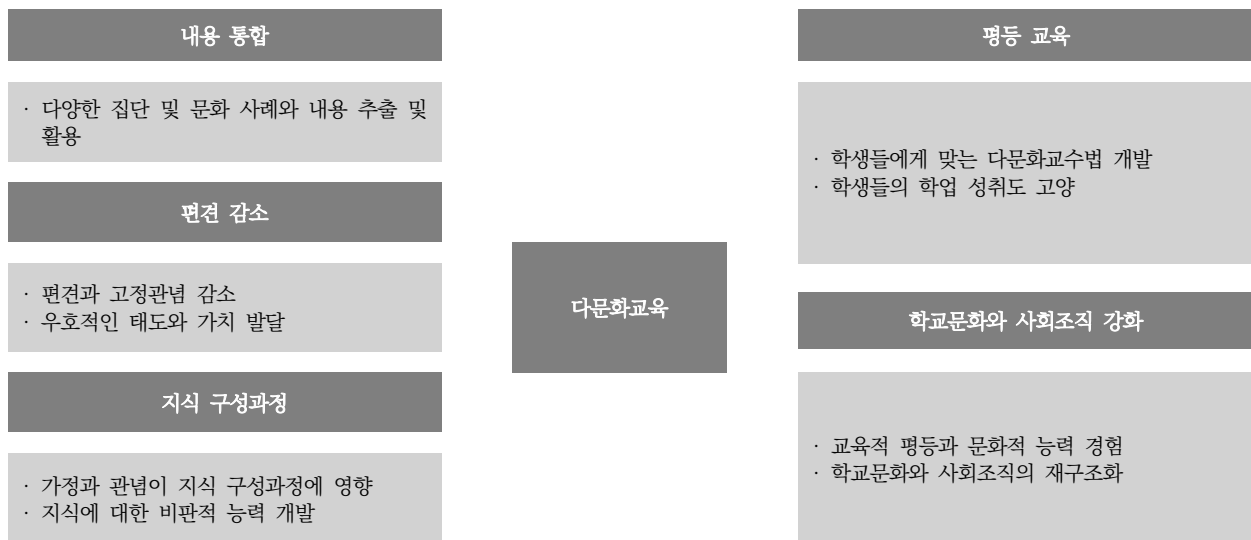
2. Bennett(2007)의 다문화교육 구성 내용

여러 개념을 조합한 Bennett(2007)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평등교육으로 두고 이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을 시도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양성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다문화교육의 구성내용을 평등교육, 교육과정 개정, 다문화적 역량, 그리고 사회정의 교육으로 제안하였다.

1) 평등교육

Bennett(2007)의 평등교육은 교육의 평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등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수종족, 소수집단, 그리고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가 학생 집단 편성 및 교수 전략, 학교 교육정책 및 관행,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교실 환경 등에

<그림 1> Banks의 다문화교육 구성 내용



반영되어 잠재적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한다. 교사는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의 문화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Bennett (2007)의 평등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학교에 입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기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모든 잠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적 결핍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개정은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다종족적이고 세계적 관점을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하여 단일종족 중심적이며 주류집단 중심적인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차이, 역사,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동시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변화된 내용을 주류와 비주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3) 다문화적 역량

다문화적 역량은 학생들이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문화적 역량 개발을 통하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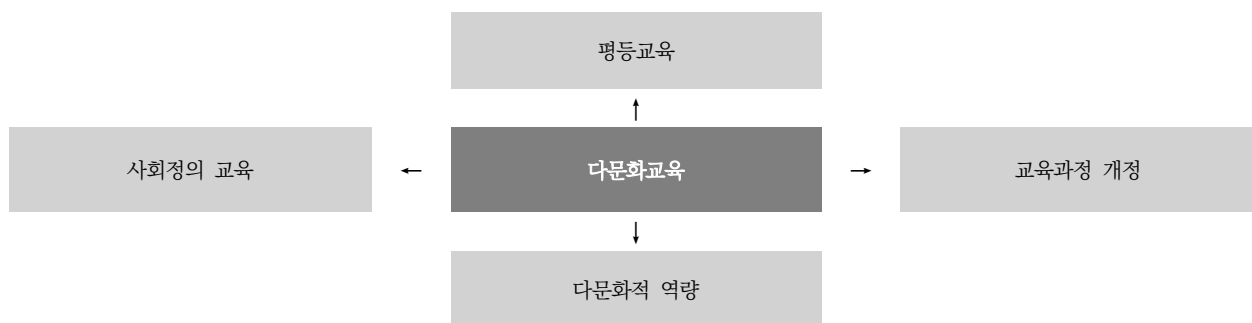
생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특성이 다른 구성원들과도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시에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도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다문화적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인종, 문화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즉, 다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사회정의의 교육

사회정의의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등 각종의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사회정의의 교육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차별적 사고와 행위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결국 사회정의의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및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종, 문화, 계급, 성 등의 이미지들에 대해 신중하게 탐구한다. 즉 사회정의의 향안 교육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인종적 차별과 편견 등을 깨닫고, 인종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실천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Bennett(2007)의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Bennett의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



Banks(2002, 2008)와 Bennett(2007)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교육의 주된 교육목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하여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학생들의 배경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알맞은 교수법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III. 초등학교 사회과 다문화교육 분석과 대안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학년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아동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 산업이 주축이 되는 정보화 사회, 생활양식과 가치관, 권력 소재가 다양해지는 다원화 사회, 정치와 경제, 문화면에서 세계가 한 생활권으로 움직이는 지구촌 사회, 종교와 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간 중심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사회과 교육이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다양화와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제와 문제 중심의 간학문적 통합 원칙이 구현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바람직한 시민이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시민이란 곧

주권자로서의 한국인이며 특히 한국 및 세계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21세기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국인을 뜻한다. 현명한 한국인은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여러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 교육, 지구촌 학습과 다문화 교육은 꼭 필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교과와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상호 보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과정에 수록되지 않은 다문화 교육도 실행가능하고 사회과 교육 과정 속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과 연관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정용교, 2013; 정윤희, 2007; 김진희와 차승환, 2016)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와 관련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 다문화 교육의 구성요소에 적합한 교육 활동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개방적 자아 개념 형성하기
-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구성원들과의 협동 능력 향상시키기
-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신 형성하기
- 국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 다양한 문화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긍정적인 태도 가지기
-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국가, 인종, 성,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을 추구하기
-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기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세계시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 지구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기
-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원인과 현상 이해하기

〈표 1〉 초등 사회과에서의 다문화교육 활동 내용

주제	활동 내용
학교문화와 사회조직 강화	
평등교육	
지식구성과정/다문화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기 · 지역과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하기 ·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구성원들과의 협동 능력 향상시키기 ·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신 형성하기
내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긍정적 태도 가지기 ·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원인과 현상 이해하기 · 개방적 자아 개념 형성하기 · 국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 세계시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편견 감소/사회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 극복하기 · 지구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기 ·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국가, 인종, 성,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을 추구하기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지역과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하기
- 지역 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 극복하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에 나타난 다문화교육활동을 Banks(2002, 2008)와 Bennett(2007)의 다문화교육 수업 구성내용에 기초하여 분류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기, 지역과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하기,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구성원들과의 협동 능력 향상시키기,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신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활동 내용 “지식구성과정” 또는 “다문화적 역량 강화” 영역에 포함이 된다.

다양한 문화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긍정적 태도 가지기,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원인과 현상 이해하기, 개방적 자아 개념 형성하기, 국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세계시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 활동 내용이 “내용 통합” 영역에 포함이 된다.

지역 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 극복하기, 지구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기,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국가, 인종, 성,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을 추구하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 활동 내용이 “사회정

의” 또는 “편견 감소” 영역에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하는 “평등교육”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화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평등과 다문화적 역량강화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교조직 및 사회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평등교육”, “학교문화와 사회조직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등은 교사들의 수업방법 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는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들의 역량강화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개인 역량 강화의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 교과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수종족, 소수집단, 그리고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가 학생 집단 편성 및 교수 전략, 학교 교육정책 및 관행,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교실 환경 등에 반영되어 잠재적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의 문화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다종족적이고 세계적 관점을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하여 단일종족 중심적이며 주류집단 중심적인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차이, 역사,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동시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변화된 내용을 주류와 비주류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화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평등과 다문화적 역량강화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교조직 및 사회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온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편견과 차별 철폐 등을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교수학습 방안, 교육 활동 및 자료, 교육환경 등에 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교육이념이나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 속에서 다문화 교육적 요소를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초등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이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교수 학습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목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기, 지역과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하기,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구성원들과의 협동 능력 향상시키기,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신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활동 내용과 같은 “지식구성과정” 또는 “다문화적 역량 강화”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긍정적인 태도 가지기,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원인과 현상 이해하기, 개방적 자아 개념 형성하기, 국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세계시민적 정체성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 활동 내용이 “내용 통합”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지역 차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 극복하기, 지구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기,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국가, 인종, 성,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등을 추구하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등의 다문화 활동 내용이 “사회정의” 또는 “편견 감소”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하는 “평등교육”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화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평등과 다문화적 역량강화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교조직 및 사회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의 평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평등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수방법, 교재, 교육매체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평등과 문화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은 교사와 학생 두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 또는 사회전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문화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류집단 중심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발전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의존하는 다문화 교육방법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Banks(2008)의 “통합적 모형을 활용한 수업과정과 수업설계 모형”을 수업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진희와 차승환. (2016). 세계시민의식과 도덕 교육의 이론적 관계 정립: 세계시민이론과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한국교육, 43(3), 31-55.
- 정용교. (2013). 다문화시대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대안모색: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0(2), 109-123.
- 정윤희. (2007). 초등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의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ks, J. A.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Allyn & Bacon.
- Banks, J. A.(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129-139.
- Bennett, C.(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Boston: Allyn & Bacon.

Abstract

The Actual Condi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s

Lim, U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ociety by analyzing the present social textbook, and to find the applicable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hecking the problems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contents of 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multi-cultural abilities, contents integration, social justice or prejudice reduction were included. Second, the contents of equity education, 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and syllabus revis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suggestion could be made. First, equit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all students. Second,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syllabus and to revise the syllabus, syllabus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make students experienced educational equality and multi-cultural ability,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should be empowered.

해외두뇌정책의 개념과 쟁점

김규찬(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해외두뇌의 이동에 관한 이론과 해외의 정책 경향을 분석한 후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 정책의 구조 및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아젠다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즉 '해외두뇌(foreign brain)'의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정부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도입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는 우수인재의 유입규모가 매우 적고 일부 전문인력 그룹은 불법체류율이 높은 등 정책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발전 방향으로 전문인력 도입의 영역과 규모의 현실적 목표 설정, 기존 비전문인력의 기술상향 활성화, 유학생정책과의 연계강화, 재외 한국출신 전문인력의 귀환이나 순환 촉진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해외두뇌, 외국인전문인력, 이민정책

I. 서론

본 논문은 해외두뇌정책(foreign brain policy)의 개념과 이민정책에서의 위상 그리고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문인력(brain)의 유출과 유입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즉 '해외두뇌(foreign brain)'의 확보

를 위한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이민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자 유입국가들이 비전문 노동 이민자 유입을 전면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대조된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비전문 이주노동자를 신규 유입시키지 않은 국가들이나 한국과 중국 등 새롭게 이민 유입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나라들 모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해외두뇌 정책은 최근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

김규찬: E-mail: gyuchankim@gwnu.ac.kr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Bath에서 석사학위(MSc),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이민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세계화, 국제이주, 이민·다문화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17),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8), "Marriage 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Social Investment beyond the Nation State"(International Migration, 2018) 등이 있다.

으며 향후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논문은 해외두뇌의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 정책 경향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 정책의 구조 및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아젠다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전문인력(브레인)의 국제이동이동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에 소개하고 해외두뇌 확보를 위한 국제적 정책 동향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 정책의 구조와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해외두뇌정책’의 이론적 분석틀과 국제 정책 경향

이 절에서는 먼저 두뇌(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분석하는 이론적 분석틀을 살펴보고 해외두뇌정책이 가지는 이민정책상의 위상과 중요성에 관해 논의한다. 이어 해외두뇌정책에 관한 국제적 경향을 분석한다.

1. 이론적 프레임: 두뇌유출, 두뇌획득, 두뇌순환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고용과 투자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취업은 저발전 국가에 거주하는 비전문직 노동자들이 소위 선진국의 저기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노동력의 이동은 비전문·저기술 근로자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로 전문직일수록 출신국에 상관없이 더욱 유동적(mobile)일 수 있다(Urry, 2007). 지식산업으로의 이행이 진전되면서 소위 ‘두뇌(brain)’ 즉, 교육수준이 높고 인적자원의 축적이 많은 고급인력들의 고용기회가 기존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경 외, 2016).

두뇌의 해외이동은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두뇌유출(brain drain)이고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두뇌획득(brain

gain)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양자에게 상이한 사회경제적 함의를 가진다. 두뇌유출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생하기 쉬운데, 국가 간의 소득격차로 인해 단순히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Chiswick, 1999). 그러나 다른 노동이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두뇌들의 이동도 선진국 내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중·후진국으로 혹은 중·후진국 내에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두뇌유출은 해외취업자의 송금(remittance)의 행태로 손실의 일부를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송출국가의 인적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Newland, 2003). 더구나 전문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공적재원(고등교육비 지원 등)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국부가 유출되고,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본국이 교육훈련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인적자원을 쉽게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두뇌유출이 송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Stark(2004)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두뇌유출이 송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두뇌들이 해외에서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등 전문기술을 갖추기 위해 인적자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만약 두뇌유출로 감소된 인적자본의 양이 새롭게 축적되는 인적자본의 증가보다도 작다면 두뇌유출은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유출된 두뇌 중의 일부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그들이 동반하는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본국의 인적자본을 크게 증가시키고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뇌유출과 두뇌획득이라는 일방향적 접근보다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이라는 관점에서 두뇌들의 이동을 분석해야 한다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이규용 외, 2005).

2. 해외두뇌정책의 중요성과 국제적 경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뇌유출은 장기적으로 송출국의

인적자본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GCIM, 2005). 개발도상국과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선진 산업화 국가들의 연구개발 분야에 개발도상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IOM, 2006). 요컨대 두뇌의 확보는 다양한 산업화 단계에 놓인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수 인재(인적자본)를 확보하기 위한 전지구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이민자 수용국들이 이민정책의 개혁을 통해 경영, 공학, 정보통신, 교육, 의료분야 등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Castles et al., 2014). 대부분의 이민유입국들은 단순·저기술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전문·고기술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이민레짐(migration regime)의 변화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단순·저기술 직종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지식기반의 전문·고기술 직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한다. 한편으로는 전문·고기술 이민자는 단순·저기술 이민자에 비해 정주하더라도 사회통합 실패의 우려나 사회복지 부담이 더 적을 것이라고 기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서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청노동자’¹⁾로 표현되는 단기순환 이주근로자들이 결국 장기 정착함으로써 의도치 않았던 이민인구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경험했다. 이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후발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이력 도입이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이혜경 외, 2016). 전문인력중심의 이민레짐 전환을 천명함으로써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우려나 이민자 사회통합 실패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인력을 받아들인다는 정책 합리화(rationalization)는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도 수월하다.

이러한 정책적·정치적 정당성을 근거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들은 점수제²⁾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민자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민유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나라들 역시 비전문노동력의 유입을 통제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해외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기술수준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구분하고 규모제한(quota)을 부여하는 등 유입을 통제하고, 현지 사증갱신, 가족동반, 사회복지급여 등을 거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장기체류(정착)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도입규모 통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입국, 체류, 생활(적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유인하고 있다. 해외인력 유입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경우에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이민정책 수립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법무부, 2008, 2013, 2018). 국내 인재들의 유출을 억제하는 한편(강윤경, 2016; 박현아 외, 2016),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외국인력의 입국 및 장기체류를 유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이주실·전대성, 2016; 이창근·정선양, 2016; 김혜련, 2019).

III.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정책’ 구조와 실태

본 절에서는 한국의 해외두뇌정책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한국으로의 해외전문인력 유입실태와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초청노동자(guest worker) 제도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만 일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하는 것이 원칙인 단기 외국인근로자 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2) 점수제(Points-Based System) 이민제도란 학력, 기술, 언어능력 등의 개인의 자질(qualification)에 점수를 부여하여 이민자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캐나다와 호주 등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이민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의 개념과 구조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를 국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한국 정부는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외국인전문인력’이란 일차적으로는 취업목적의 체류자격 중 전문인력 사증(비자)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의미한다. 이는 취업목적(노동) 이민자를 기술수준에 따라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등(학사이상)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소유하고 취업목적 분야의 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전문인력 사증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1(교수)에서 E-7(특정활동)에 해당한다. 한편 취업목적은 아니지만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비자들도 있다. 강의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

(C-4)3) 비자나 구직 중인 유학생(D-10-1) 비자, 그리고 기출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D-10-2) 및 기업투자(D-8) 비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2.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 자격별 요건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전문인력은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입국 및 근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일 이하 단기취업 자격 등은 제외하고, 장기체류자에 부여되는 전문인력 체류자격의 대상과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E-1)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고급과학 기술인력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과, 교육과학기술

<표 1> 한국의 취업목적 체류자격의 유형별 규모(2019)

구분	총체류	합법체류	불법체류	자격별 비중(%)	불법 체류율(%)	
계	565,616	507,083	58,533	100	10.3	
전문인력	소계	44936	40826	4110	7.9	9.1
	교수(E-1)	2,187	2,186	1	0.4	0.0
	회화지도(E-2)	13,910	13,875	35	2.5	0.3
	연구(E-3)	3,132	3,130	2	0.6	0.1
	기술지도(E-4)	220	218	2	0.0	0.9
	전문직업(E-5)	624	617	7	0.1	1.1
	예술홍행(E-6)	3,549	2,136	1,413	0.6	39.8
	특정활동(E-7)	21,314	18,664	2,650	3.8	12.4
비전문인력	소계	520,680	466,257	54,423	92.1	10.5
	비전문취업(E-9)	276,755	230,633	46,122	48.9	16.7
	선원취업(E-10)	17,603	11,397	6,206	3.1	35.3
	방문취업(H-2)	226,322	224,227	2,095	40.0	0.9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a)

3) 단기취업(C-4) 자격은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비자로서, 일시홍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90일 이하의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신소재(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및 환경 에너지, 기술경쟁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사람에게도 단기취업의 체류자격이 발급될 수 있다.

4) 이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b)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으로서 교수(E-1)의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이다.

회화지도(E-2)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이때 회화지도라 함은 위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크게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와 '초·중·고교의 외국어보조교사'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는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초·중·고교의 외국어보조교사'는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를 의미하며, 영어회화를 지도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와 중국어회화를 지도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hinese Program in Korea: CPIK)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다.

연구(E-3)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해서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위의 교수(E-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의 경우에는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이외에도 「방위사업법」상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를 포함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그곳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도 포함한다. '고급과학 기술인력'은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

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 체류자격은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이다.

기술지도(E-4) 자격은 공·사 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즉,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이 사람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후자는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과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학(D-2) 자격 또는 구직(D-10)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체류 중인 사람이 전문기능인력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하려는 기관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지도의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이다.

전문직업(E-5)은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전문업무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다음의 사람들이 전문직업의 체류자격이 가능한 외국인이다. 국토교통부장과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최신 의학과 첨단 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부속대학병원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사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역시 5년이다.

예술흥행(E-6) 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이 체류자격은 E-6-1(예술·연예), E-6-2(호텔·유흥), E-6-3(운동)으로 세분할 수 있다. E-6-1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를 들면,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E-6-2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활동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6-3은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 가운데 E-6-2는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도 많은 까닭에 전문외국인력 분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으로 다른 전문인력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특정활동(E-7)은 가장 넓은 범위의 전문외국인력을 포괄하는 체류자격으로서,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력에 해당된다. 특정활동(E-7) 부여 대상 인력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직능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세분된다. 전문인력은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나 국민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유치와 정주를 지원하는 대상인 반면, 준전문인력이나 숙련기능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은 고용업체 자격, 최저 임금요건, 업체별 고용인원 등 국민고용의 보호기준을 마련하는 전제 위에 도입된다. 구체적인 도입직종이나 허용업체 기준 등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직종의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내국인 근로자 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이 선정한다. 자격부여 심사시 전문인력과

준전문 및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이 적용된다.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하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체류관리 역시 인력의 유형별로 달리하는데, 전문인력은 체류기간 상한 부여, 체류자격 변경의 허용,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 허용 등으로 체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준전문인력은 전문인력 기준을 준용하면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한다. 이 자격의 1회 부여 체류자격의 상한은 3년(일부 우수인재의 경우 5년)이다.

3. 한국의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의 주요내용

한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과학자 등 '고급인력'을 해외로부터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진입후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정기선 외, 2013). 정책의 대상인 고급인력의 범위는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경험 등을 보유한 자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과 경영자,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금융·의료·디자인·건설·첨단산업(IT, BT, 신소재 등) 관련 전문가 등이다. 전문외국인력정책은 좁은 의미에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자격별 차등 대우를 위한 점수제 도입, 장기정착을 유도하는 체류제도 개선, 우수인재 발굴 및 취업알선, 잠재적인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 창업 및 투자이민 활성화와 같은 정책도 전문외국인 유치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의 정책목표는 보다 많은 해외 우수인재가 한국으로 진출하고 가능하면 장기간 체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정책수단은 전문인력에 대한 다양한 우대(특혜)정책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우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체류 및 정착(영주 및 귀화) 유도이다. 예술흥

행(E-6)과 특정활동(E-7) 자격을 제외하고는 1회 부여 체류가능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출국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비자 취득자의 경우 영주자격(F-5) 신청 자격인 연속 5년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최소 3년 체류후부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연속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구정착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많은 이민 유입국에서도 그러하듯이 체류(residence)는 권리(rights)의 양과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직장 및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부여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는 이른바 점수제를 학력·연령·한국어 능력 등의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고, 3년 체류 후에는 영주(F-5) 자격으로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거주(F-2) 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호텔·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자(E-6-2)를 제외한 전문외국인력(E-1~E-7), 또는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의 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20점의 평가점수 중 80점 이상이면 최대 3년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고용 및 사증발급 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고용추천서’의 발급이다.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준다. 첨단 과학기술분야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의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장관도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고급과학기술인재에게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준다.

셋째, 사증발급 및 구직활동에 있어 편의제공이다. 사증

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외국인력 등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을 말한다. 즉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해당자 등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영사의 인터뷰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본인이나 초청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휴넷코리아’(HuNet KOREA, www.visa.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문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직(D-10) 체류자격을 도입하고, 구직 자격자에 대해 구직활동이나 기술창업활동을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 구직 자격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기업투자(D-8)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구직 자격자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외국인력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하거나,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유학생,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수료(예정)한 유학생도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적극 수용하려는 이민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넷째, 가족 등 동반자에 대한 혜택제공이다. 배우자나 심지어 동반 가사보조원의 체류상 지위와 권리도 폭넓게 보호한다. 전문인력 체류자격 자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동반(F-2)비자로부터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원에게도 동반비자의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국내에서 이직하여 근무처의 변경이 가능하며, 비자발급기간 내에 유학, 회화지도와 같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도 가능하다.

4. 한국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9년 기준 단기취업(C-4) 자격을 제외한 국내 체류

5) 고용추천서 제도의 연혁은 Contact Korea(<https://contactkorea.kotra.or.kr/jsp/ko/gold/app2.js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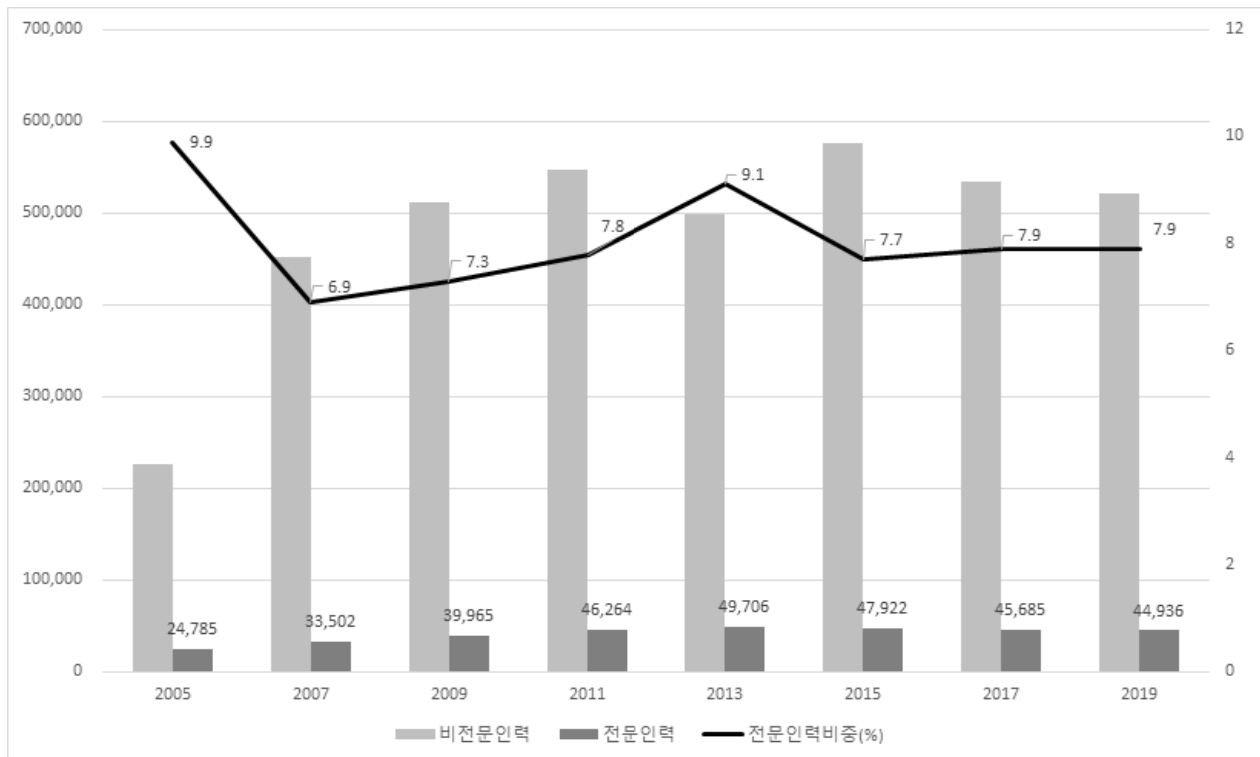
‘외국인전문인력’의 규모는 44,936명이다(앞의 <표 1> 참조). 이는 총 취업자격 체류외국인(565,616명)중 7.9%에 해당하는 수이다. 전문인력의 유형으로 보면 중급수준의 기술수준을 가진 인력을 포괄하는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가 21,314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성 수준이 높지 않은 회화지도(E-2)가 13,91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교수(E-1)나 연구(E-3)와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문인력의 규모는 2~3천명대 초반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에 체류 중인 해외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5년간의 기술수준별 체류외국인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 성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010년대 이후로는 전문인력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만4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7%대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비전

문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외국인전문인력의 유입 규모의 정체(혹은 최근 약간씩 감소) 경향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장기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인력 체류자격의 발급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체류(근무) 기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거의 수집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전문인력의 불법체류율이 비전문인력의 불법체류율과 총량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표 1> 참조). 일부 전문인력 체류자격의 경우 비전문취업(E-9)보다도 높은 불법체류율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전문인력유형인 특정활동(E-7)의 경우 12.4%에 달하고, 절대규모는 작으나 예술홍행(E-6) 자격의 경우는 39.8%에 이르러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강조되는 외국인전문인력제도의 취지를 무색

<그림 1> 기술수준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규모 추이(명)



비고: 비전문자격(E-8, E-9, E-10, H-2), 전문자격(E-1~E-7), 그림의 ‘전문인력비중’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합에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각 년도)로부터 저자 취합

하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국제적으로는 해외 두뇌 유치경쟁이 날로 가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및 정착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요컨대, 한국의 해외두뇌정책인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핵심 우수인재의 유입규모가 매우 적고 일부 전문인력 그룹은 불법체류율이 높은 등 정책 목표와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결론: 한국의 ‘해외두뇌’ 확보를 위한 제언

2000년대 중반이후 해외 두뇌(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전문인력 중심의 노동이민 레짐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지난 15년간 매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해외전문인력의 적극유치는 절실한 정책 목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인력 중심의 이민레짐의 구축을 통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과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민자 사회통합의 강조되는 국제적 분위기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적 두뇌 확보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이에 한국 해외두뇌정책의 몇가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전문인력 도입 분야와 규모를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여러나라들이 업종 및 직종을 매우 구체화하여 전문기술인력을 도입하고 있다(유길상, 이정혜, & 이규용, 2004). 한국도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접근에서 탈피해 성장기대 분야 및 집중 육성 분야를 설정하여 도입분야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노동시장 상황에 근거하되 정부와 관련부처,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

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전문 및 준전문인력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도 준전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통해서 계속취업 및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즉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특정활동(E-7)자격으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러한 ‘기술상향(upskilling)’ 정책은 인력부족이 심한 분야에서 ‘검증된’ 노동력을 중단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본인도 장기 취업(체류) 및 가족동반(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한 유인이 존재하고 이미 장기간 한국에서 적응해 온 만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체류율이 높은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유학생정책과 전문인력정책과의 연계 강화이다. 국내 유입 주요 체류자격 중 지난 십여년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인 것은 유학생(D-2)이다. 이런 추세는 비전문인력이나 결혼이민자 유입증가가 안정화되는 것과 대조된다. 정규 유학생은 잠재적으로 전문인력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유인 및 정착이 유리하다. 현재 정부는 국내대학(원) 졸업자에게 여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졸업후 한국 노동시장으로 진출 및 장기체류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그리고 유학생 출신국도 보다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출신 해외두뇌들의 귀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이 북미나 유럽 혹은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해야 할 유인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혀 연고가 없는 외국인보다는 해외 각지에서 배우고 일하고 있는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이들이 국내정착이 아니라 해외를 택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임금수

준, 발전가능성, 연구 및 근로 여건과 같은 여러가지 결정 요인이 작용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두뇌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윤경 (2016) '한국, 두뇌유출에 사실상 무방비', 「마이더스」 2016(1), 96-97.
- 김혜련 (2019)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연구', 「인문사회」 21, 10(4), 867-880.
- 박현아·김혜영·장안식·유승호 (2016) '한국의 인재양성 관련 두뇌유출과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요인 분석: 2015 Imd 세계인재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19(1), 123-151.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http://www.korea.kr/>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j.go.kr/>
- 유길상·이정혜·이규용 (2004) 「외국인력 제도의 국제비교」, KLI
- 이규용·박성재·김선웅·노용진·김재훈 (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KLI
- 이주실·전대성 (2016) '경로분석을 이용한 전문외국인력의 장기 체류 영향요인들간 인과관계 연구', 「한국정책학회보」25(3), 409-428.
- 이창근·정선양 (2016) '해외과학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19(2), 395-415.
-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2016)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정기선 외 (2013)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a)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b)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법무부.
- Castles, Stephen, De Haas, Hein, & Miller, Mark J. (2014)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5th e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Chiswick, Barry (1999)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181-185.
- GCIM (2005) *Migration in an Interconnected World: New Directions for Action*,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 IOM (2006) *World Migration 2005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 Academic Foundation.

- Newland, Kathleen (2003) "Migration as a Factor in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Migration Information Servi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 Stark, Oded (2004) "Rethinking the Brain Drain", *World Development*, 32(1), 15-22.
- Urry, John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Press.

Abstract

Foreign Brain Policy: Concepts and Agenda

Kim, Gyucha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foreign brain policy' and its global trends, and provide som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eign brain policy. While a global competition in securing brains intensif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deployed numerous policy tools to attract foreign talents. However, the outcomes do not meet the policy goals: the entry of foreign brains to Korea has been limited and unexpectedly some groups of skilled workers show high levels of overst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research suggests setting consented but realistic goals of foreign brain policies, encouraging more upskilling of the current unskilled foreign workforce, combining strategically foreign student policies and brain policies, and pursuing alternatively the return or circulation of Korean brains overseas.

Key words : foreign brain, brain circulation, skilled labor migration policies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노년기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

이행옥(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부부관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노년기 부부교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교육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진행되었고, 대부분 노년기 이전단계인 형성기, 확대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노년기 부부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1~5회 차로 개설되거나 의사소통,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노인부부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교육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부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핵심 용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년기 부부교육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2년 7%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 2017년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30년에는 21%를 넘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0).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12만 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이고, 5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령화 지수를 상승시키며, 가족과 국가의 노인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년기의 연장, 노부부만이 거주하는 1세

대 가구의 증가,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 희망 증가, 노인의 재혼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홍달아기, 이남주, 2005). 특히 황혼 이혼은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은 부부 가운데서도 노년기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노인들도 과거의 제도적인 부부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부부간의 친밀감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부부사이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강금희, 권오균, 2009).

노년기 부부는 역할 상실의 시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정

이행옥; E-mail: holee1@gwnu.ac.k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간발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가족 및 노년학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노년기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2002), "노년기부부의 정서적 상호작용유형에 관한 연구"(Information, 2016) 등이 있다.

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적극적인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동반자적 특성을 지니게 되고, 다른 가족원보다도 배우자가 가장 많은 정서적 지원을 하게 된다(Atchley, 2000). 그리고 노년기의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노부부들의 우울증을 낮추고, 친밀감 및 정서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내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게 한다(Tower & Kasl, 1996).

가족을 연구하는 방법인 건강가족적 관점은 가족이 성공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제시하는 긍정적 관점의 연구를 말한다(조희금 외, 2018). 즉 연구의 관점이 성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전환된 것이다. 기본적 의미는 가정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정,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에 대해 유명주(2004)는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관계적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며, 체계적 차원에서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조희금 외, 2018 재인용).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와 노인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년기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년기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노인부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김윤정, 서선영, 2005). 부부관계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김태현, 전길양, 1998). 가족주기 상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

졌기 때문에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최우선의 가족부양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임주영, 전귀연, 2004: 권오균 외, 2009 재인용).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는 은퇴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상호작용이 많아져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임선영, 김태현, 2002: 권오균 외, 2009 재인용).

노년기에 대한 초기이론들은 노년기의 감정적 무활동과 감정적 경험의 회피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였지만, 나이드는 사람도 주관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감정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고 현저하게 성장한다는 시각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노년기의 감정, 정서적 관계의 발달을 보여주는 이론으로는 Carstensen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 대표적이다. Carstensen(1993)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년기 적응에 필요한 사람들만을 선택한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죽음이 임박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서의 정서적 관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는 연령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며 노년기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1993)에 따르면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가 축소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감정적 친밀감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이드는 사람들의 후기 인생단계의 결혼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부부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노부부의 결혼 특성, 결혼

만족을 이루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어왔다(Anderson et. al, 1993; Tower et. al, 1996). 즉 노년기 부부가 친밀한 사적 관계이며, 노년기 결혼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년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건 강하고, 특히 남성의 수명연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Jonhson, 1985). 노년기의 긍정적인 결혼은 부부들에게 우울증을 낮추고, 친밀감 및 정서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내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온다 고 한다(Tower & Kasl, 1996).

따라서 노년기 부부간의 갈등은 결혼생활에 잠재해 있 던 어려움을 표출하는 기회가 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면 불만들이 누적되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즉 노부 부간의 갈등은 해소되어야 노후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 질 수 있다.

2. 부부관계 향상

부부관계 향상은 부부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수 용하고, 부부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여 더욱 행복 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조력하기 위한 교육적 성장 및 발달 지향적, 상호지향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발전과 인격적인 성장 그리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 발전시 키는 긍정적인 활동인 것이다.

부부관계 향상에 대한 개념은 부부 생활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 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사회인구학 적인 변인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점차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강학중, 유영주, 2003).

오윤자(2002)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하여 부부체계내의 강점을 인지시키고,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며, 이 능력을 위한 기술 습득 을 통하여 보다 더 만족하고 기능적인 부부체계를 형성하 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lson 등(1987)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숙련된 행동이 며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며 의사소통은 부부 기술수준에 의존하는데, 한쪽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의 다양성이 결여되면 다른 한쪽의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소통이 붕괴 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생 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조희금 외, 2018 재인용).

부부 적응은 연구자들이 결혼성공, 부부만족, 부부행복 등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동이 자주 일어 나고 있는데, 부부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경험하 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중심적인 용어는 부부 적응이라 할 수 있다. 부부 적응은 결혼성공, 부부만족, 부부행복 등의 개념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부부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경험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중심적인 용어다 (Willson, 1980: 권오균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부부 적응은 부부 상호간에 기대되는 행동이나 관심사에 대한 갈등 및 불일치 등을 해결하면서 결혼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부 적응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과정으로 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족감과 행복감이 부 여되며, 부부 적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에서의 성공 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관련 연구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부부들로 하여금 결혼생활 에서의 자기발견과 인격적 성장,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성 장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Wamer, 1981:권오균 외, 2009 재인 용). 과거에는 부부관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과 치료에 초점을 두던 것을 최근에는 보다 예방적이고 부부 개개인 의 성장잠재력 측면에 중요성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연구는 이선

미(2003), 김홍란, 김유정(2004), 박성희(2006), 정미경, 김주후(2008), 전영숙, 양희택(2009)의 연구가 있다. 노년기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법이 너무 어려워 부부들이 스스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보다는 대부분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치중해 있다. 부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부관계에서의 변화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Gottman(1999)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기쁨을 제시하였고, 부부관계의 갈등해결에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며, 부부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탈피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한 긍정적 정서의 교류가 배우자를 변화시켜 부부관계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Gottman(1999)의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여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서적 교감은 우정의 강화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Gottman의 부부관계 프로그램은 부부들 각자에게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최미나 외, 2014).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 내에서의 유대감 증진, 건강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노년기의 부부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기본법(2018)에 의하면, 건강가정을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2018).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문제의 해결부터 사전 예방까지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사업을 의미한다(조희금 외,

2018).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이후 제3차 기본계획은 2016~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실행되고 있다. 3차정책의 비전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이며, 정책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 실현이다. 정책과제는 1)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2)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3)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4)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 가정 양립 실천, 5)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체계 강화이다(조희금 외, 2018).

교육지원은 핵심 추진과제1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에 포함된다.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은 정책과제로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가족교육 접근성 제고, 공공 교육 과정에 가족교육 확대,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이다.

건강가정사업을 통하여 가정기능의 강화와 자원개발이 가능하다. 즉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 활용하는 가정의 자원화가 필요하다(노영주 외, 1999: 조희금 외, 2018 재인용).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조희금, 2018).

건강가정서비스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정책에 근거한 건강가정사업을 실제적이고, 잠재적 이용자와 수요자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공사의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조희금 외, 2018). 건강가정기본법 제 4장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 34조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3)건강가정사

의 요건, 4)센터의 조직,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건강가정기본법,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는 건강가정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 상담 프로그램, 건강가정 문화 프로그램,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2018년부터 실시되었던 부부교육 프로그램총 347개의 프로그램 중 예비부부, 신혼부부와 임신과 출산 부부교육, 영유아 부모교육, 다문화부부, 중장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 대상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노년기 부부대상 교육은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에 실시된 교육 중 다문화부부, 중노년기 부부, 예비 신혼부부를 생애주기별로 모두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웰다잉에 대한 교육, 미술치료와 목공예 교육으로 구성된 4가지 프로그램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시행되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 프로그램 중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이중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북구의 ‘함께하는 부부, 행복한 노후설계’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으로 부부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배우자 이해 교육, 노후설계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교육은 3회 차로 구성되었다.

2) 인천남동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년을 위한 관계개선, 효과적인 노년기 설계교육, 삶의 소중함을 주는 행복한 원예활동으로 구식물심기와 향주머니 만들기로 구성되었다.

표 1. 노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분류	내용	기간	대상
대구 북구	2019부부교육, '함께하는 부부행복 노후설계'	2019. 3.28	노인부부 5가족
인천 남동구	노년기 부부교육, '행복한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2019.4.9	50대이상~노년기 20명
경북 봉화군	노년기 부부교육 '사랑의 대화가 필요해!'	2019.4.9.~4.24	노인부부 10가족
경북 영덕군	2019노년기 부부교육 '할배 FUN, 할매 FUN'	2019.5.17.~6.21	65세이상 2가족
경기 화성시	2019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부부가(家) 행복애(愛)2차:60세 이상 부부대상 프로그램'	2019. 10.1	60세이상부부 13가족
속초시	노년기부부교육'인생을즐기며'	2019. 11.12	60세이상부부 10명
대전시 서구	부부역할지원사업:60대이상 부부교육 및 원예체험활동 '꽃보다 아름다워'	2019.11.23	60대 이상 부부 10명
대구 달성군	중노년기 부부교육 '부부 인생 후반전'	2019.12.5.~12.12	중노년기(50~70대) 부부 4가족
인천 연수구	노년기 부부역할지원사업 온(on)동네 특화프로그램, 노년기부부교육, '브라보! 황혼라이프'	2020.7.2.~7.30	50대 예비 노인 및 60대 이상 노인 20명
경남 남해군	찾아가는 노년기부부교육 '즐거운 실버라이프'	2020.10.15.~10.22	60대이상 노년기부부 50가족
서울시 강북구	중노년기 부부학교'청학동'	2020.10.24.~10.31	50~60대 중노년기부부

3) 경북봉화군의 ‘사랑의 대화가 필요해!’

노인부부를 위한 웃음테라피, 부부요가, 푸드테라피로 구성되었다. 전체교육은 3회 차로 구성되었다.

4) 경북영덕군의 ‘할매 FUN, 할매 FUN’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문화를 통한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상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1,2회 차는 마음열기로 레크레이션, 치매예방하기, 기억력 검사, 치매조기진단 검사로 구성되었다. 3회 차는 요리교실, 4회 차는 가족공예, 5회 차는 노인의 성이 교육되었다. 또한 6회 차는 영화보러 가기, 7회 차는 자유치유능력, 8회 차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부 건강 체조, 9회 차는 원예활동이 진행되었다. 10회 차는 레크레이션, 11회 차는 올바른 대화법으로 적극적 경청하기와 공감적 경청활용 하기, 12회 차는 나들이로 진행되었다.

5) 경기화성시의 ‘부부가(家) 행복애(愛)’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를 위한 교육으로 대화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0세~59세 중년기 부부를 위한 대화하기 부부교육도 별도로 진행되었다.

6) 속초시 ‘인생을 즐기며’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를 위한 교육으로 속초 시니어클럽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7) 대전시서구 ‘꽃보다 아름다워~우리부부 친애(愛)지기’

60대 이상 노인의 부부역할교육 및 원예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8) 대구달성군 ‘부부인생 후반전’

50대~70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그리기를 통한 부부추억 회상하기, 웃음 레크레이션을 통한 부부소통 교육, 부부애정도 상승을 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다육공예 만들기 로 구성되었다. 전체 교육은 4회 차로 진행되었다.

9) 인천연수구 ‘브라보! 황혼라이프’

50대 예비노인 및 60대 이상 노년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1)나도 늙음을 처음이라, (2)품안의 상실 떠나 보내기, (3)부모의 삶에서 부부의 삶, (4)생애 최고의 순간 ‘지금 이 순간’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5회 차로 구성되었다.

10) 경남남해군 ‘즐거운 실버라이프’

60대 이상 노년기부부 대상으로 부부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년기 정서적 생활지원, 부부관계 증진체험을 위한 식물테라피로 구성되었다.

11) 서울시 강북구 ‘청학동: 청춘학교 동아리’

50대~60대 중노년기 부부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알고, 소통하고 싶은 부부로 부부 행복페즐, 분노원인과 처리기술, 건강한 가족, 부부대화법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교육은 4회 차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1~5회기로 단기실시 되어 지속적인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구체적 교육보다는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원예활동, 웃음 테라피, 요가, 푸드 테라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을 실시하여, 부부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이나 배우자 이해 교육, 노후설계교육, 분노 원인과 처리기술, 부부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부부 대상이 아닌 개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예비노년기(중년기)부부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의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노년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가정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는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효율성,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이 있다(조희금 외,

2018). 노인부부대상 교육을 분석하면 가족형태의 다양성이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회성 사업과 지속적 사업의 균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가정에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 계속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차로 실시되는 교육보다는 3회 차나 5회 차로 실시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의 구체적이고 노년기 관계개선이나 효과적인 노년기 설계교육, 부부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부부대화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이 3~5회의 단기간에 효과성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년 단위로 구성되는 부부역할 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과 부부 역할지원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III. 결론

노년기 부부관계의 기간의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부부관계의 강화가 요구되므로 부부 각자의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인 서비스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육내용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중심의 교육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이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은 신혼기와 중년기에 관한 교육에 편중된 경향을 갖는다(홍달아기, 박경옥, 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관계 교육은 건강가정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 상담 프로그램, 건강가정 문화 프로그램,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부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부교육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부교육은 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 다문화 부부교육,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며, 노인부부대상 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거나 중장년기 부부대상 교육과 함께 실시되고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이 1~5회기로 단기 실시 되어 지속적인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구체적 교육보다는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원예활동, 웃음 테라피, 요가, 푸드 테라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을 실시하여, 부부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이나 배우자 이해 교육, 노후설계교육, 분노 원인과 처리기술, 부부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부부대상이 아닌 개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발견되었다.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의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년 단위로 구성되는 부부역할 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과 부부 역할지원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노인부부 대상의 교육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노년기 부부대상 교육의 구성에 있어서 일회성 행사나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층적, 지속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손쉽게 진행 가능한 구조화된 전문적인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학중, 유영주(2003). "한국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2):61-84.
- 권오근, 강금희(2009).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5):137-145.
- 김태현, 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7(2):167-182.
- 여성가족부(2015), 『제3차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조희금, 김경신 등(2018), 『건강가정론』, 신정.
- 홍달아기, 박경옥(2004). 노년기 부부역할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제7(3)집:83-106.
- 홍달아기, 이남주(2005). 결혼만족도와 노년기 부부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6)집:883-893.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
- 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
- 통계청 <https://kosis.kr>
- Anderson, T., & McCulloch, B.(1993). *Conjugal support: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Gerontology*, 48(3), S133-142.
- Carstensen, L. L., Gottman, J. M., & Levensen, R. W.(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 140-149.
- Gottman, J. M.(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Tower, R., & Kasl, S.(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 Journal of Gerontology*, 51B(3), 115-129.

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elderly couple education

Hangok Lee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As the aging process progressed, the elderly couple relationship becam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the elderly couple education.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education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and most of them were concentrated in the formation and expansion stages before the old age, and elderly couple education was relatively low. Also,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opened in 1~5 sessions or limited to communication, leisure activities, or cultural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improvement in quantity and quality was required for elderly couples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that provide education for couples in old age, and to provide various marital education services to improve marital relationships in old age.

Key Terminolog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elderly couple education

독일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박수지(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사회에서 합의하고 있는 질 높은 노후 생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과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 실태조사로 독일 노인 삶의 질 현황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노년기 삶을 지원하는 독일 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연방 차원의 제도와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시스템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삶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주거공동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I. 서론

다음에서는 독일 사회에서 합의하고 있는 질 높은 노후 생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첫째, 독일 내에서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삶의 질 개념에 포함된 항목을 살펴보고 독일 노인 삶의 질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둘째, 노년기 삶을 지원하는 독일의 주요한 사회정책을 연방차원의 제도와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공동체 접근을 통해 살펴보겠다.

II. 독일 노인의 삶의 질

1. 2017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 개관

65세 이상 85세 이하 독일 거주 노인 4,197명을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 보고서(Generali Altersstudie)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년기 삶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자의 36%가 노년기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생의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37%는 노년기를 이전보다 힘든 삶의 여건과 어려움이 많은 생의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7%는 어느 하나로 응답하기 어렵다 등의 기타 의견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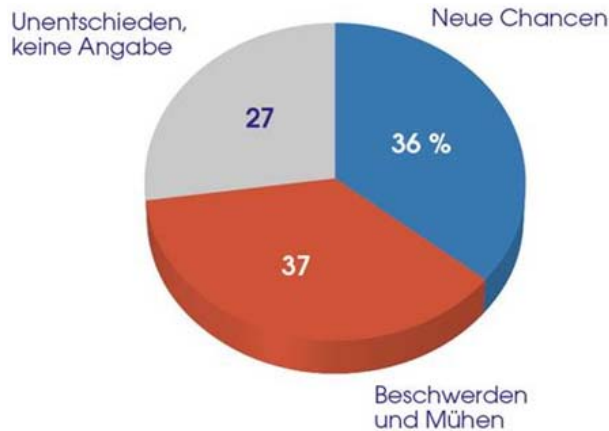
독일 노인의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보면 0점, '거의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점 '매우 만족함'

박수지: E-mail: susiepark@gwnu.ac.kr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독일 기이센(Gießen)시의 Justus-Liebig 대학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돌봄, 사회적경제, 장애인서비스 등이다.

1) 본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김태완 외, 2020)의 제5장, 본인 집필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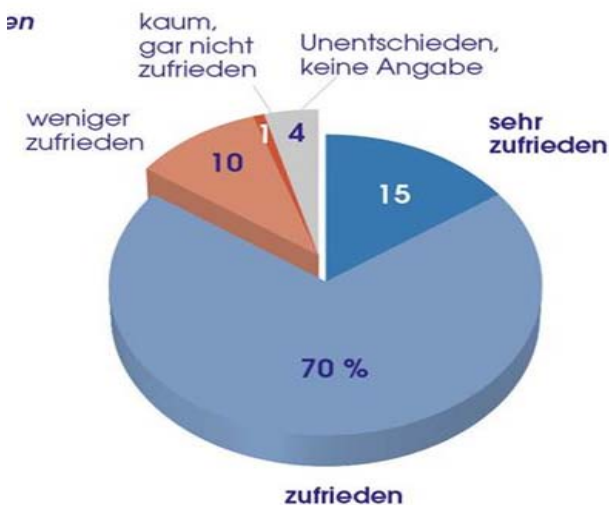
〈그림 1〉 독일 노인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



출처: Generali Altersstudie(2017)

으로 측정하여 평균 7.2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삶의 만족도를 0점 '매우 만족함'부터 10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으로 조사하여 응답을 다시 '매우 만족함', '만족함', '적게 만족함', '거의 만족하지 않음'의 4단계로 구분한 결과를 보여준다.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중이 8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거의 절반인 49%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약 7.5세 젊게 느끼며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80세에서 85세 사이 노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 나이를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적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독일 노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독일 노인의 삶의 만족도



출처: Generali Altersstudie(2017)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0~10점 척도로 조사한 주관적 삶의 질 평가의 경우 쉘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주가 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가 6.8점으로 가장 낮았다.

2. 2020년 노인 삶의 질 보고서 개관

2020년 1월 Seniorenbedarf info가 발표한 65세 이상 85세 이하 노인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4점으로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www.seniorenbedarf.info/lebenszufriedenheit-im-alter) 조사 대상자의 56%가 5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26%가 8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단지 7%만이 4점 이하의 점수로 응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은퇴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와의 접촉 횟수는 노년기 삶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이동성의 유지와 여행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이 운전 면허증을 유지하고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은퇴 후 노인은 일주일의 평균 5일을 집과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동 수단을 이용해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버스나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또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셋째, '소득이나 주거시설 같은 물질적인 조건'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은퇴 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하고 있었

으며, 절반 이상이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인이 은퇴 이전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셋째, '은퇴 이후 시작한 봉사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독일 사회의 노인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체 노인의 약 4분의 1은 은퇴 이 후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5세 이상 85세 이하 노인의 봉사활동 시간은 일 년에 약 15억 시간으로 노동시장에 일하는 약 87만 명의 정규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봉사활동은 근린에 존재하는 협회(verein),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하고 있었다.

III.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1. 연방 차원의 정책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제도는 일상생

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한다. 여기서 연방 차원의 개입은 주로 물질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물질적 영역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을 의미한다. 반면 노년기 삶을 지원하는 비물질적 지원 즉 사회적 교류, 봉사, 여가, 체육 등의 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비물질적 지원으로 대표적인 서비스는 수발(pflege)서비스였다. 그러나 이는 1994년 연방 차원의 수발보험(SGB XI: 사회법11)으로 재정비되었다. 그 배경에는 1980년대 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발서비스 욕구가 폭증했고 이를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있었다. 이 후 독일의 보속성(subsidiarität)원칙에 의해 지방정부의 수발서비스 책임은 연방으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연방에서 노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는 연금 등의 소득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사회참여지원과 수발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본 절의

〈표 1〉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연방 차원의 제도

제도	개인지원	지역사회지원	주거공간지원
사회참여 지원	SGB IX에 의한 사회통합지원*		SGB IX §55에 의한 주택 수리, 개조, 건립의 지원
	기타 재활서비스 기관 이용 지원*		
수발서비스	SGB XI §36에 의한 재가서비스 현금지원		SGB XI §40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SGB XI §37에 의한 수발지원금		SGB XI §45에 의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씨드머니 지원
	SGB XI §38a에 의한 생활공동체 보조금		
	SGB XI §45b에 의한 추가 돌봄 지원금		
	SGB XI §39에 의한 예방 지원		
	SGB XI §42에 의한 단기수발서비스 지원		
	SGB V에 의한 가정간호서비스 지원*		
	SGB XII에 의한 수발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개별상담	연방법에 의한 개별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협회나 조직의 상담서비스	
협회 등 민간 조직의 지원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조직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는 개인예산제도(persönliches budget)로 지원 가능함
출처: Lebenshilfe e. V.(2016), 필자 수정

주제를 벗어나는 연금 등의 소득보장은 제외하고 연방 차원의 제도로 사회참여지원, 수발서비스, 사례관리 및 개별 상담, 민간을 통한 추가지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1) 사회참여지원(Teilhabeleistungen)

노년기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여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독일 재활법(SGB IX)은 사회참여지원 제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타 재활기관의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재활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자의 직업생활, 주거, 돌봄, 사회참여,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재활법에는 해당 서비스 기관의 운영, 의료적 재활의 지원, 생계보장, 기타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사회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은 개인예산 방식으로 위에 제시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하여 개인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인예산(persönliches budget)은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욕구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준 서비스 공급 방식이다. 개인은 여러 서비스에 들 비용을 통합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후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다. (www.bmas.de)

2) 수발서비스

연방법으로 규정한 수발서비스는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발보험법(SGB XI)에 의한 서비스 이 외 질병보험법(SGB V)에 의한 서비스, 노인과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회부조 서비스(SGB XII)로 구분된다. 여기서 질병보험법(SGB V)에 의한 수발서비스는 §37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일컫는다. 병원의 치료가 이미 제공되었

으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혹은 병원의 치료가 자택에서의 간호서비스를 통해서 짧아질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4주를 기본으로 제공되며 예외적인 경우 질병금고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독일의 수발보험법(SGB XI)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 노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발보험법에 의한 서비스는 독일 수발서비스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 운영의 원칙

수발보험법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Bäcker et al, 2008) 첫째, 재가서비스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는 시설보다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능한 한 먼저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SGB XI §3)

둘째, 예방, 재활서비스 우선의 원칙이 있다. (SGB XI §5) 이는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가 수발서비스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예산의 원칙(Budgetprinzip)이 있다. 이는 질병금고 및 수발금고의 매해 예산에 맞춰 수급자의 혜택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서비스 내용

수발보험법에 의한 서비스는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비공식 수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설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생활시설 서비스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로 구분된다.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로는 노인공동주택 (Altenwohnheim), 노인거주시설(Altenheim), 요양원 (Pflegeheim) 등이 있다. 이 시설에서는 24시간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단기보호시설은 하루 중 주간 혹은 야간에 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재가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수급자가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인력이 자택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노인보장구 지원, 노인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인력이 자택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수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체청결, 영양보조, 이동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사서비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보장구 구입비도 지원될 수 있으며, 노인 활동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원될 수 있다. 그리고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2인 이상 13명 이하의 수급자가 소규모 주거공동체 혹은 생활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서비스 이외 추가지원금 또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수발을 드는 가족이나 친지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발보험 수급자가 직접 돌봄 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현금지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서비스와 현금의 혼합 신청도 가능하다. 즉 재가서비스로 모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3) 사례관리 및 개별상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고려하여 연방법 1권(SGB I)의 §14에서는 독일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담을 제공할 의무는 해당 사업의 실행 주체가 갖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금고(Krankenkasse)와 수발금고(Pflegekasse)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즉 해당 기관은 개별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할 의무를 갖는다.

4) 협회 등 민간 조직을 통한 추가 지원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민간 조직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하기 힘든 서비스를 지역사회조직 특히 협회(verein),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조직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 연합체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지원체계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발서비스 재정을 지방이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외적으로 1994년 연방이 수발보험법을 제정하고 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역사회 내 수발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 조직의 체계를 그 중심점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구심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주 정부의 담당부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의 양과 금액, 서비스 인력 자격 및 양성 등의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기초자치체 또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이 부서는 노인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별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헤센(Hessen)주 기초지자체인 마부룩(Marburg)시에는 '노인수발, 수발상담소, 자원봉사조직 담당부서(Stabstelle Altenpflege, Pflegebüro, Freiwilligenagentur)'를 설치하고 있다. (Kreisausschuss des Landkreises Marburg-Biedenkopf, 2013) 이 부서는 마부룩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발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 지역행사,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노인 관련 민간 협회(verein), 법인, 기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reisausschuss des Landkreises Marburg-Biedenkopf, 2013)

2) 지역사회 수발상담소

노인을 포함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수발상담소(Pflegebüro)이다. 1994년 수발보험법(SGB XI)이 제정되고 이 후 연이은 법 개정을 통해 수발서비스 기관의 조직 형태는 비영리 조직 이 외 영리조직으로까지 다양해졌다. 수발서비스와 각종 노인케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혼자 수집하여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2008년부터 기초지자체는 수발상담소를 설치하고 수발서비스 등의 복잡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통합,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발상담소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시설을 서로 연계되고 통합하는 네트워크 또한 구축하고 있다.

3) 정보 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호

독일은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존재하고 협력한다는 공존성(Dualität)의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공존성을 중복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의 포괄성 혹은 커버리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수발상담소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의 상담소와 공존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담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독일 연방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부(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MFSFJ)는 ‘노년기 삶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노년기 삶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약 160페이지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은퇴 후 노년기 삶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의 도움 정도를 체크하여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자신이 노년기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조건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서비스 이용, 요양원 생활, 노인 생활공동체 생활, 의료세팅이 갖춰진 주거시설,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정산해 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년기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즉 재가서비스를

〈표 2〉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예

도움이 필요한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P	A	P	A	P	A	P	A	P	A	P	A	P	A
오전/점심시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x												
세수, 목욕, 몸단장					x									
...(생략)...														
오후/저녁시간														
집 청소					x						x			
옷 다림질														
장보기													x	
산책								x						
...(생략)...														

P: 전문가의 도움
 A: 배우자, 친척, 이웃, 아는 사람의 도움
 출처: MFSFJ(2018)

〈표 3〉 기관을 방문하여 물어봐야하는 필수 질문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지 체크	질문내용	답변기록, 기타사항
x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집에서 어떻게 기관에 연락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나요?	
	현재 지역사회에서 몇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기관이 설립된 이유 혹은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x	이용자의 사생활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나요?	
	...(생략)...	

출처: MFStJ(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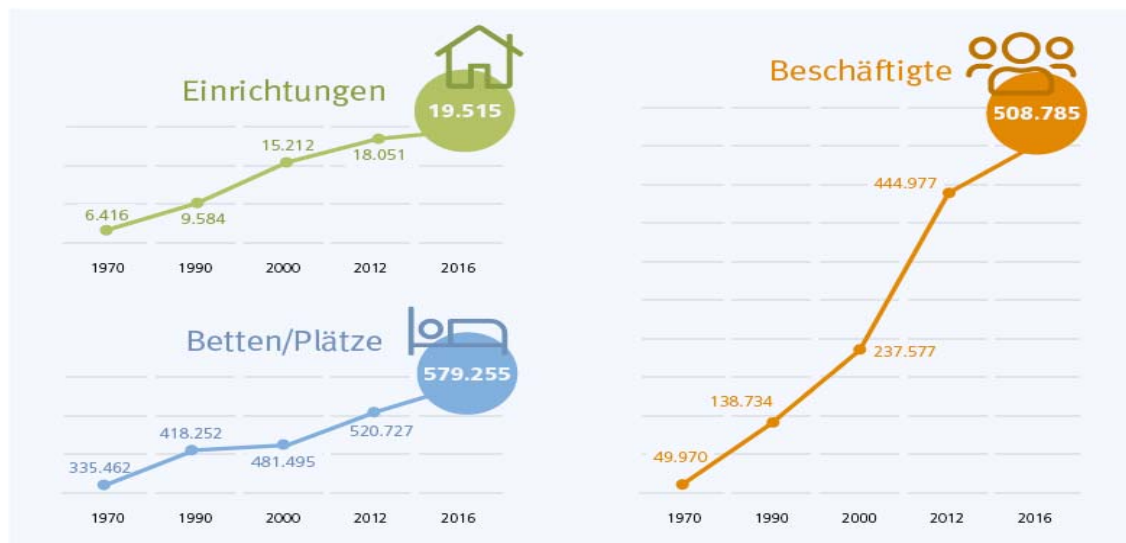
이용할지,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할지, 노인공동체 생활을 시도할지, 의료세팅이 갖춰진 시설에 입주할 것인지가 결정되었다면 해당하는 몇 개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 종사자를 만나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적으로 질문할 내용과 스스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사항들 예컨대 건물의 위치, 운영 유형, 서비스 내용 등도 제시하고 있다.

3. 노인서비스 현황

다음에서는 노인서비스를 시설서비스, 주/야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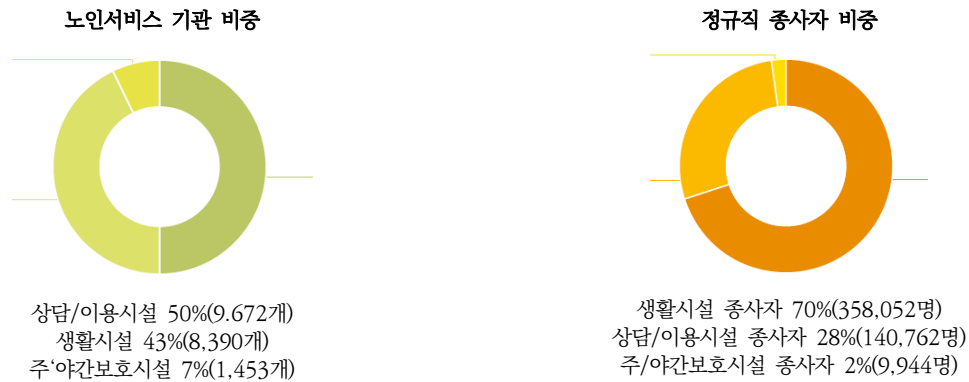
서비스, 상담 및 이용서비스로 구분하여 기관 규모, 이용자 규모, 종사자 규모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 사회의 주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freie Wohlfahrtsverbände)은 지역사회 자생 조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전국 연합체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체(Bunde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이하 BFW)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19,515개, 수용 가능한 인원은 579,255명(상담 및 이용서비스 기관 제외), 종사자 규모는 총 508,785명(종일제 정규직 146,230

〈그림 4〉 노인서비스 증가 추이



출처: BFW(2016)

〈그림 5〉 노인서비스 기관 현황



출처: BFW(2016)

명, 반일제 정규직 362,5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4〉는 1970년 이후 최근까지의 노인서비스 기관 규모, 수용 가능한 인원, 종사자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그림 5〉은 노인서비스 기관을 시설서비스 기관,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상담 및 이용서비스 기관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상담 및 이용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50% (9,672개)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생활시설로 43% (8,930개), 주·야간 보호시설이 7% (1,453개)로 나타났다. 기관 종사자의 수는 생활시설이 358,05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4〉는 노인서비스 기관의 유형을 생활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상담 및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기관 규모, 수용가능 인원 규모, 정규직 종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의 수를 보면, 생활시설 중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원의 수가 5,290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인 공동거주시설이 2,104개로 많았다. 상담 및 이용서비스 시설로는 재가수발서비스 기관이 4,24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로당 등의 노인 여가시설이 1,671개로 많았다. 노인의 영양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식사서비스 시설이 457개, 방문 식사서비스 기관이 827개로 총 1,284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노인의 영양보조서비스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 야간보호시설의 수는 1,453개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종일제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요양원으로 94,683명, 그 다음으로 방문 수발서비스 기관 24,033명이었다.

〈표 4〉 노인서비스 기관 현황

시설유형	기관수	수용가능 인원	종일제 (Vollzeit) 종사자	반일제 (Teilzeit) 종사자
생활시설	8,390	559,353	115,762	242,290
노인 공동거주시설(Einrichtung mit Wohnangeboten für Senioren)	2,104	94,936	8,040	11,073
노인 공동주택(Seniorenwohnheime)	374	35,943	10,608	10,718
요양원(Vollstationäre Altenpflegeeinrichtungen(mit/ohne Versorgungsvertrag nach §72 SGB XI)	5,290	415,304	94,683	217,317
단기보호시설(Solitäre Kurzzeitpflegeeinrichtungen nach §42 SGB XI (Leistungsart) oder mit Versorgungsvertrag nach §72 SGB XI)	622	13,170	2,431	3,182
주간/야간 보호시설	1,453	19,902	1,788	8,156
주간/야간 보호시설(Solitäre Tages- und/oder Nachtpflege)	1,453	19,902	1,788	8,156

시설유형	기관수	수용가능 인원	종일제 (Vollzeit) 종사자	반일제 (Teilzeit) 종사자
einrichtungen nach §41 SGB XI)				
상담시설/ 이용서비스	9,672	-	28,680	112,082
방문 수발서비스 기관(Ambulante Pflegedienst/ Sozialstationen §72 SGB XI bzw. §36 SGB XI)	4,246	-	24,033	97,181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Seniorenbegegnungsstätten/ Senientagesstätten/ Seniorenfreizeitsstätten)	1,671	-	961	2,157
노인 생활공동체(Wohngemeinschaften u. a. alternative Wohnformen)	171		185	563
노인 상담기관(Beratungstellen für Senioren/ Seniorenbüros)	772	-	475	893
식사서비스 시설(Stationäre Mahlzeitendienste)	457		702	2,579
방문 식사서비스 기관 (ambulante Mahlzeitendienste "Essen auf Rädern")	827	-	591	3,476
응급출동기관(Hausnotrufdienste)	745	-	654	1,619
가사지원서비스 기관(Ambulant Betreutes Wohnen für Senioren)	582	-	1,016	3,063
기타 노인서비스 기관(Sonstige Hilfsdienste für Senioren)	201	-	62	550
총합	19,515	579,255	146,230	362,528

출처: BFW(2016)

III. 나가면서: 노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

노년기 삶의 질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공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 지방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지원을 통합하여 노인의 거주 공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도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간으로 소규모 주거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시설서비스에 준하는 질 높은 의료, 재활, 수발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Lebenshilfe e. V.는 2016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주목할 만한 주거공동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Lebenshilfe e. V.는 장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민간 협회로

최근 독일 지자체의 소규모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Lebenshilfe e. V. 2016)

첫 번째 유형은 뮌스터-닌베르그(Münster-Nienberge)와 브레멘(bremen)에서 추진한 주거공동체로 <생활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수발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 하우스(Wohnhaus mit einem Mix aus stationären und ambulanten Wohnangeboten)>이다. 브레멘 시에는 24시간 온종일 돌봄 세팅을 갖춰진 주거 공동체로서 일정 구획 내 아파트의 동 1층마다 생활시설의 의료, 재활, 수발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 'Buntentor'가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은 필요할 경우 생활시설과 동일한 의료, 재활, 수발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유사한 형태로 뮌스터-닌베르그는 'Baumberger Hof'를 설립하였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교회와 협력하여 24시간 생활시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생활시설의 의료, 재활, 수발서비스 전문인력이 일정 구역 안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담당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모델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대학생, 청년 등 거주공간이 필요한 자를 연결하여 만든 <비장

에인 통합 생활공동체)이다. 이는 대학생, 청년 등에게 저비용 혹은 무료로 주거공간을 임대하고 대신 장애인에게 신체청결, 영양지원, 가사지원서비스를 일정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생활공동체이다. 도르트문트(Dortmund) 시는 도시의 공동화된 슬럼가를 개발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공간으로 개발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마다 13명의 '비장애인 통합 생활공동체'를 입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파트 1층에는 공동 공간으로 정원, 휴게소, 만남의 장 등을 건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구획별로 24시간 의료, 재활, 수발 서비스가 가능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사회부조 수급자 주택 지원, 수발서비스 대상자 시설 지원비 등을 활용하였다.

세 번째 모델은 칼텍-프랑켄베르크(Qaldeck-Frankenbergr), 드레스덴(Dresden)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친지, 생활지도사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생활공동체(Wohnmodell, basierend auf dem Engagement von Angehörigen/Elterninitiativen die von der Lebenshilfe begleitet und unterstützt werden)>이다. 이 생활공동체는 입주자의 가족, 친지들의 경제적 지원과 정부의 지원 예컨대 수발보험에 의한 추가 지원, 생활공동체 지원(SGB XII), 비공식적 수발서비스 지원(SGB V)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간 협회 Lebenshilfe e. V.는 생활지도사를 생활공동체마다 배치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활지도사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한다. 노인의 가족과 친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스케줄을 잡고 노인이 활동하기 편하게 주택을 개선, 보수하는 일은 기본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다. 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병원, 스포츠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여가 및 체육활동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태완; 신화연; 임완섭; 김기태; 최준영; 김보미; 강예은; 남재현; 박수지; 송치호; 안서연; 정용문; 남재량, 2020,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9-01
- Boebenecker, K. H. 2005. Spitze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spflege. Weinheim. München: Juventa.
- Bogatz, T. 2015. Quality of life in old age: a concept analysis. The Journal older people nursing. ISSN:1748-3743. pp. 1~15.
- Bunde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e. V. (BFW). 2016. Gesamtstatistik: Einrichtungen und Dienste der Freien Wohlfahrtspflege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 2004. Rechtliche Grundlage der Haimaufsicht. Bon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 2018. Auf der Suche der passenden Wohn- and Betreuungsform: Ein Wegweiser der älterer Menschen. Bonn.
- Erickson, R. 1993.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in M. C. Nussbaum & A. Sen (ed.). The quality of life. pp. 67~83. Oxford: Clarendon.
- Generali Deutschland AG. 2017. Generali Altersstudie 2017: Wie ältere Menschen in Deutschland denken und leben. Springer.
- Kreisausschuss des Landkreises Marburg-Biedenkopf. 2013. Angebote und hilfen für ältere Menschen und pflegende Angehörige Kreisausschuss des Landkreises Marburg-Biedenkopf. Marburg Brochure.
- Landkreis Marburg-Biedenkopf, 2013. Pflegestützpunkt. Marburg Brochure.
- Lebenshilfe e. V. 2016. Zukunft Wohnen: Beispiele für innovative Wohnformen, Eine Praxishilfe der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e. V. Berlin.
- LVPE Rheinland-Pfalz e. V. 2005. Individuelle Hilfeplanung und Persönliches Budget in Rheinland-Pfalz: Trier.
- Marburger Verein für Selbstbestimmung und Beratung e. V. 2012. Veranstaltungen Angebote: rechtliche Betreuung, rechtliche Vorsorge. Sommerhalbjahr2012. Marburg Brochure.
- Oppikofer, S & Mayorova, E. 2016. Lebensqualität im hohen

- Alter: theoretische Ansätze, Messmethoden und empirische Befunde. *Pflege & Gesellschaft* Vol.21(2). pp. 101~114.
- Schablon, K. U. 2009. Community Care: Professionell unterstützte Gemeinwesenbindung erwachsener geistig behinderter Menschen. Analyse, Definition und theoretische Verortung struktureller und handlungbezogener Determinanten. Marburg.
- Tüllmann, M. 2006. Auftrag moderner Behindertenhilfe in einer erschöpften Gesellschaft. in Aselmeier, L. Nobert, S. (Hg.) *Das Gemeinwesen mitdenken*. www. ih-nrw.unisiegen.de
- Wahrendorf, M., Reinhardt, J. D. and Siegrist, J. (2013). Relationships of Disability with Age Among Adults Aged 50 to 85: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Continental Europe. *Plusone*. Vol8(8). pp.1-10.
- Wohlhüter, H. 2002. Warum haben die Deutschen immer Sondereinrichtungen? *Community Care auf dem Prüfstand*. in: *Die Orientierung*. Vol. 25(1). pp.2~5.
- Zapf, W. 1979. Lebensbedingungen und wahrgenommene Lebensqualität, in: Matthes, J. (ed.). *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pp.767~790. Frankfurt am Main: Campus
- 노인정보협회(Senioren info e. V.) 홈페이지. www.seniorenbedarf.info
- 독일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and Soziales) 홈페이지. www.bmas.d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ditions of quality old life agreed upon in German society and to look at various federal and community efforts to support i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Germany. And we looked at the various efforts of German society to support life in old age as a federal system and a community support system. Finally, we looked at small residential communities that support the design of old life in communities, not facilities.

Key words : german social policy, quality of life, 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나정숙(강릉원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W시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만5세 유아들이며, 남녀아 각 8명씩 모두 16명이고, 연구 기간은 2019년 10월 14일~12월 6일까지 총8회에 걸쳐 한국화 감상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한국화 감상활동을 통한 그림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화 감상활동 과정에서 미적 요소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유아들은 미술 표현력이 증진되고, 유아의 정서적 표현력 및 우리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화 감상활동이 유아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화 감상, 교육적 의미, 유아

I. 서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의 다원화·세계화·국제화가 더욱 급속하게 변화되어 국제사회의 상호 교류와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칫하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전통문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유아교육에서도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그 이유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타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 또는 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이혜정, 조경자, 2007), 전통문화교육이 토대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우리의 문화이므로, 이는 곧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출발이며,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기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에 중

나정숙: E-mail: sookjung@gwnu.ac.kr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유아교육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유아미술, 유아발달심리, 미술치료 및 모래놀이치료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게임 프로젝트 활동에서 나타난 혼합 연령 유아들의 지식형성 과정에 관한 의미 연구"(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0), "한국화와 서양화의 비교감상활동에 따른 유아의 미적 반응과 그림변화에 관한 연구"(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0) 등이 있으며, 저서는 "영유아발달"(문음사, 2019),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과학교육"(문음사, 2016) 등이 있다.

점을 두어 구성하였고(교육과학 기술부, 2013),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보건복지부, 2019).

이처럼 전통문화란 민족의 생명과 직결되며, 우월한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그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형성해 나아가려면 유아기부터 전통문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유아들이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진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춘자·이명환, 2006; 나정숙, 2013; 백희숙, 2006; 이해정·조경자, 2007).

전통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며 현재의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길을 넓혀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미술 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전통미술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 주고, 그 특성을 이해하며 우리민족의 정서와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미술인 한국화는 민족문화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순한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까지 풍부하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윤향미, 2004). 더불어 전통미술은 한국인의 체질과 심성에 맞는 미적 구조와 미의식이 담겨져 있는 우리 고유의 전래적인 미술로서 보편성과 가치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한국화란 한국의 전통적인 매체와 기법만을 쓴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써 전통적으로 그려오는 수묵화나 채색화를 말하며 한민족의 생활구조, 관습, 환경 등에 의해 형성된 민족 특유의 정신을 담은 그림이다. 또한 한국의 작가가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의식을 갖고 한국적 생활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이다(이해정·조경자, 2007; 홍성희, 2011).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한국화는 우리나라 전통의 조형 가치를 이해하고 그 속에 스며있는 정신을 깨달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세계 속의 진정한 국제인이 되도록 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백희숙, 2006). 유아들은 그림에

나타난 옛 조상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 풍습 및 옛 물건의 용도 및 이름을 그림 속 이야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화는 다른 형태의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랜 민족문화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미술교육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비추어 볼 때, 유아들에게 한국화 감상활동을 활용한 통합적 미술교육을 함으로써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게 되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정체감을 수립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우리 민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백희숙, 2006).

그러므로 유아들로 하여금 한국화 감상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미를 느끼며,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전통 문화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화 감상활동을 유아감상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문화교육과 유아미술 감상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통과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전통문화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통문화에 기초한 미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미와 한국인 정서를 담은 한국화를 감상하고 미술표현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유아의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본 연구 대상은 한국화 감상활동을 실시하는 W시에 소

제한 공립유치원의 만5세 유아들이며, 남아 8명과 여아 8명을 중심으로, 한국화 감상활동에서 나타난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교육기관은 종일제의 운영형태로 유아들의 하루일과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7시 경에 유아들은 귀가하였다. 연구자는 한국화에 관심이 있고,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교육경력 25년차 유아교육 전공자로 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개정된 누리과정에서의 한국화의 감상지도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감상지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유아교사들이 한국화 감상의 지도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감상활동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과정에 의한 한국화 감상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화 감상에 관해 3주간에 걸쳐 주 1회 3시간 씩 강의하였고, 강의 후 한국화 감상의 교수학습 과정과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다. 유아의 한국화 감상과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관해 본 연구자와 협의하고 결과 분석과정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생활주제와 관련한 한국화 선정과 이에 따른 교수매체가 제공되어, 어려움 없이 한국화 감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기간은 2019년 10월 14일~12월 6일까지이며, 표 1의 비교감상 활동의 교수단계에 의해 표 2의 프로그램 내용을 주 1회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교사는 미술영역에 한국화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개인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사는 한국화감상을 20분 정도 유아와 함께 실시한 후, 유아가 미술영역에서 자유롭게 재 표현하도록 하였다.

Katz(1995)도 미술활동 시작 전 혹은 사후에 미술 감상과 연계하는 미술교육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명화감상한 후에 그리기 또는 언어적 표상을 통해 경험을 재 표현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은 미술 감상의 효과를 높인다고 하였다(Forman, 1994: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97).

이처럼 한국화 감상활동은 미술 감상과정과 표현과정 이 상호연속 되는 과정이며, 유아들의 자발적 표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감상교육은 감상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화 시키는 재해석의 표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유아의 한국화 감상활동을 통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수단계는 6단계로 나누고,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표현활동, 비교감상 활동, 재 표현활동의 3개 활동으로 나누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화와 서양화 비교감상 활동의 교수 단계

순서	활동	교수 단계	
1	표현활동	사전 표현하기	주제에 관한 개인경험 자유롭게 표현하기
2		작품 만나기	관심가지기
3		작품 알아보기	미적 요소 및 느낌 알아보기
4	비교감상 활동	작품 설명하기	차이점과 공통점·그림에서의 상황·대표적인 물체(생물)·제목 말하기
5		작품 평가하기	선호한 그림과 그 이유 말하기
6	재표현 활동	작품 재 표현하기	비교 감상 후 자유롭게 표현하기

한국화감상 활동을 위해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일치되는 한국화 그림을 선정한 표 2, 구안한 교수 단계 표 1, 교수학습과정 표 3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육과 교수 1인, 미술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 1인,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1인, 그리고 유치원 교사 2인의 유아미술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선정된 작품들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기초한 아동미술(이윤옥, 2016)과 우리 그림 백가지(박영대, 2003)를 참고하였다. 한국화의 선정 기준은 첫째, 유아의 생활 주제와 관련되고, 둘째, 유아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며, 셋째, 미술의 요소나 생활주제 표현이 잘 나타나고, 넷째, 유아가 아름다움과 감성도 느낄 수 있으며, 다섯째,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고, 유아들

이 흥미와 관심으로 미술표현활동과 통합적인 감상활동을 할 수 있는 한국화 8개가 선정되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에서 각 회기별 관찰은 교육기관과 유아들의 상황에 따라 1일~3일 동안 2시간~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비교 감상활동 과정에서의 교사와 유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 장면은 디지털카메라로 총 16개의 동영상 자료를 녹화하고 전사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가 그림은 그릴 때 사용한 종이는 화선지와 A4용지이고, 미술영역에서 붓 펜, 먹물, 연필 및 색연필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전 표현하기는 감상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하였고, 한국화 감상 한 후 미술 영역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재 표현활동을 통해 유아그림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와의 공식적인 면담은 본 연구 시작하기 전과 후, 그리고 새로운 생활주제의 감상활동이 실시되면 한국화 감상 자료를 배부하고, 감상 지도 시의 의문점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은 교사 면담 4회, 전사된 수업 자료 12점, 활동사진 24장, 관찰일지 8회기, 유아작품 130점 등 다섯 가지의 주요 출처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 2〉 한국화 선정

회기	한국화 화가와 작품명	연관된 미술표현 활동	생활 주제
1	신사임당 "초충도 (수박과 들쥐)"	꽃의 모습 표현하기	식물
2	김홍도 "매화나무"	나무의 모습 표현하기	
3	변상벽 "고양이"	고양이 모습 표현하기	동물

4	변상벽 "닭"		닭 모습 표현하기	
5	신윤복 "미인도"		자화상 표현하기	나
6	강세황 "자화상"		자화상 표현하기	
7	김홍도 "서당"		유치원 표현하기	유치원
8	신윤복 "단오풍정"		단오 풍습 알고 표현하기	단오 날

〈표 3〉 한국화감상 활동에서의 교수·학습과정의 예

목표	활동	교수단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화 감상을 통해 한국화의 특징을 안다. 한국화 감상 후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미술활동을 표현을 한다. 	표현 활동	사전 표현하기 · 이 그림을 보고 느낀 대로 표현하자.
방법	비교 감상 활동	만나기 · 그림을 천천히 보자. · 그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알아 보기 · 그림 속에 접이나 선이 보이니? · 어떤 색을 사용했니? · 어떤 것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 무엇(형태)을 그린 것일까? · 이 그림에는 어떤 장소(공간)들이 보이니? · 이 그림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니?
		설명하기 ·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 ·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일까? ·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해보자.
		평가하기 · 그림이 마음에 드니? · 왜 마음에 들었어?

	· 이 그림을 어디 놓고 싶니?	
	재 표현 활동	재 표현 하기 · 한국화 감상 내용을 생각하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자.
평가	· 한국화의 특징을 아는가? · 명화 감상 후 느낌을 말하는가? ·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미술활동을 표현을 하는가?	
비고	한국화 감상 활동은 기관의 생활주제와 같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한 생활주제에 맞추어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유아작품, 감상수업의 동영상 전사본, 교사와의 면담 전사본, 활동사진, 관찰일지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감상수업의 동영상 자료와 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즉시 전사하였다. 유아작품, 활동사진, 관찰 일지도 교사와 의논하여 자료화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 면담 자료 등을 반복하여 읽고 문단 분석을 하고, 유아작품의 그림내용과 질적 변화도 검토하면서, 추출된 중요한 내용들을 토대로 '예쁘다', '멋지다', '한국화의 내용 이야기 찾아내기', '그림 표현하기', '점, 선, 색, 모양, 공간 설명하기', '새로운 명화 제목 정하기', '한국화의 느낌 표현하기' 등등의 범주들을 생성하였다. 셋째, 다양하게 생성된 범주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유목화한 후 '교육적 의미'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범주와 결과에 대한 자료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자 1인 및 연구 참여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석과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유아의 미술표현활동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

생활주제에 맞는 한국화 감상 활동이 교수학습과정에 의거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유아들의 그림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는 유아들의 미술 표현력·정서적 표현력·우리문화의 긍정적 자부심의 증진이다.

1) 미적 요소에 의한 유아의 미술 표현력 증진

한국화 감상활동 중 '만나기 단계'에서는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그림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관찰을 하였다. 그리고 관찰이 끝나면 '알아보기' 단계에서 미적 요소인 점, 선, 색, 형태, 공간, 움직임과 그림 도구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 유아 그림은 지식이 증가되어 구체적인 선, 정확한 형태, 공간 구도의 적절한 배치 및 예쁘고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되어 미술 표현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상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은 그림의 내용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화지의 공간을 활용하였다. 그림 속 인물과 사물 등의 형태(모양)와 색의 사용은 한국화와 다르게 표현하였으나 그림 속 중심인물·사물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였고, 재 표현 활동에서는 채색에 신경을 쓰고, 선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유아들의 미적 요소에 의한 미술 표현력의 증진과 관련된 자료(답)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변상벽 '닭' 재 표현활동 자료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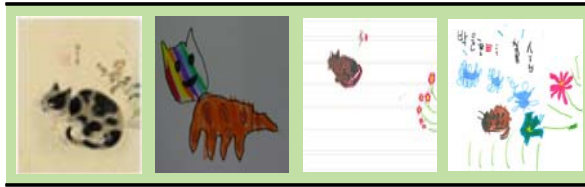


변상벽의 '닭'을 그린 유아들은 한국화에 나타난 닭들의 방향과 움직임, 색깔들을 이해하여 재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 여아3명은 사전표현에 이어 비교감상 활동을 진행한 후 재 표현을 하면서 선명한 색의 사용과 완성도 높은 채색, 완성된 그림 안에서의 질감 표현을 위한 선의 사용, 적절한 공간 활용 등 미술적 표현력이 증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아1명도 표현·재 표현활동 시 그림을 그리는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선을 많이 사용하여 역동성을 표현하였고, 사전표현에서 강조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아들의 미적 요소에 의한 미술 표현력의 증진과 관련

된 자료(고양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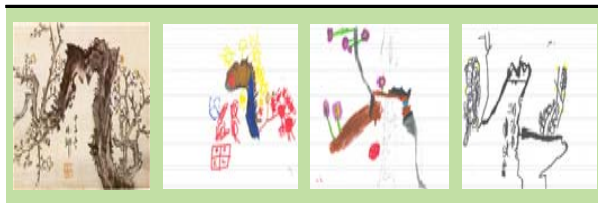
[그림 2] 변상벽 '고양이' 재 표현활동 자료의 예



'유아들은 '동물 감상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교육적 활동 없이 진행한 표현활동 자체만으로도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전 회기의 '작품 알아보기' 단계를 거치면서 그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적으로는 재 표현활동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유아의 미적 요소에 의한 '미술 표현력의 증진과 관련된 자료(매화나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김홍도 '매화나무' 재 표현활동 자료의 예



유아들은 '매화나무의 나뭇가지가 꺾여도 꽃이 예쁘게 피어서 좋아요, 터널이 생겨서 지나갈 수가 있어서 멋지잖아요, 도장이랑 한자가 있고 나뭇가지가 꺾였어요.' 라고 했으며, 선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일부 유아들은 재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나 선과 색을 활용하여 뚜렷하고 선명한 구체적인 그림과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화지의 공간을 다 활용하였다. 특히 남아3명은 한국 화인 '매화나무'의 굵은 줄기와 잔가지들을 다양한 형태의 선과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하여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미술 요소에 의한 한국화 감상은 유아들의 그림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선과 색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강조하여 모양을 표현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모양의 변화를 가져오며 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명암을 활용하여 공간을 고르게 사용하고 미적 요소를 사용한 섬세한 묘사와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으로 그림에 나타났다.

2) 한국화 감상 활동에 의한 유아의 정서적 표현력 증진

유아들은 한국화의 설명하기 단계에서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등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한국화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이유를 표현하였다. 변상벽의 '닭'을 감상하며 '무지개처럼 예쁘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예쁘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감상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니까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김홍도의 매화나무는 '꺾여서 볼썽하고 슬프다', 신윤복의 단오풍정은 '몰래 훑쳐보고 있어서 재미있다. 속상하다', 김홍도의 서당은 '훈장님이 무섭다. 혼나서 울고 있다' 등의 감정표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내용에 감정을 공감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한국화를 감상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정서적 표현력이 증진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3) 한국화 감상에 의한 유아의 전통문화 자부심 증진

유아들은 한국화 감상활동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림 4의 신윤복의 '미녀도'인 한국화감상 후, 그러보자는 교사의 말에 유아들은 '미남도로 그려도 돼요?'라고 질문을 한다. 미남도로 그려도 된다고 하자 유아들은 좋아하고, 붓펜으로 먼저 사람을 그린 후 한국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였다. 유아들은 '신기해요, 색깔이 선명하고 예뻐요, 재밌어요, 한국화 멋있어요, 한자와 도장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선이 아름다워요.' 등의 반응을 하며 우리그림인 한국화에 흥미와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림 4] 신윤복 '미인도' 재 표현활동 자료의 예



그림 5에서 유아들은 신윤복의 단오풍속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와 연계하여 한국화 감상을 진행하였다.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고는 '세수하는 것 같아요, 놀고 있어요, 몰래 훑쳐보고 있어요' 등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느낀 우리 문화의 특징을 부채에 붓 펜을 이용하여 단오그림을 정성껏 재 표현 하였다.

[그림 5] 신윤복 '단오풍정' 재 표현활동 자료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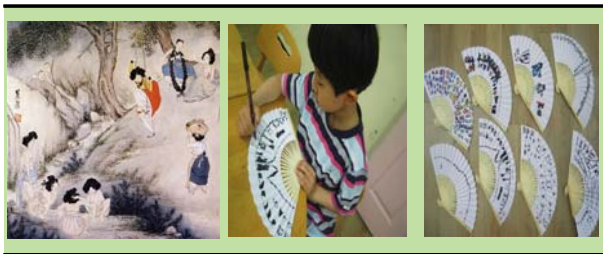


그림 6의 초충도는 땅속 벌레 찾기의 바깥놀이와 연계 되어 유아들이 재미있게 재 표현하였다. 특히 그림을 재 표현할 때 화선지와 붓 펜 매체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 하였다. 이러한 한국화감상과 연계된 유아 미술표현활동을 통해, 유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미술과 매체를 이해 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나아가 우리그림인 한국화에 긍정적인 자부심이 증진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그림 6] 신사임당 '초충도(수박과 들쥐)' 재 표현 활동 자료의 예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화 감상과 통합한 유아의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주제에 맞는 한국화 감상 활동이 교수학습과정에 의거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유아들의 그림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는 유아들의 미술 표현력의 증진이다.

유아는 감상 활동 중 '만나기' 단계에서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그림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관찰하였다. 그리고 관찰이 끝나면 '알아보기' 단계에서 점, 선, 색, 형태, 공간, 움직임 등 미적 요소에 의한 감상을 하였다. 이러한 감상 활동은 유아들이 그림에 관한 이해와 인지능력을 도모하여 표현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선과 색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강조하여 모양을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며, 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명암을 활용하며, 공간을 고르게 사용하여 원근감과 섬세한 묘사를 하는 등 미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그림에 나타났다. 이는 Forman(1994)과 Katz(1995)의 명화감상 후 미적 요소에 의한 상호작용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의 그림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선, 색, 형태 등으로 강조하고, 운동감과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선이나 색, 그리고 방향 등으로 표현하였다. 선을 반복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작품 내에서 균형을 맞추어 미적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들은 미적 요소에 의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미술 표현력이 증진되었다.

특히 한국화 감상활동에서 미술 요소인 선, 색, 형태, 공간, 질감 및 움직임에 관한 미술 요소를 관찰하고, 느끼며, 다양한 표현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미적 안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는 미적요소를 기초한 미술 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 표현력을 증진한다는 연구보고들(김정아, 송광철, 2011; 조효진, 2010)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화 감상활동은 유아의 정서적 표현력이 신장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과정의 한국화의 작품 설명하기 단계에서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등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한국화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정표현을 하였다. 더불어 유아는 한국화를 보고, 유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유아간의 다양한 감정을 비교하고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한국화를 감상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정서적 표현력이 증진되었다. 이는 명화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들(김춘자, 이명환, 2006; 나정숙, 2013)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화 감상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한국화의 특성과 미에 관해 함께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이해와 표현기법, 재료 및 미적 표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신윤복의 ‘미녀도’인 한국화 감상 후, 붓 펜으로 먼저 사람을 그린 후 한국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였다. 유아들은 ‘신기해요, 색깔이 선명하고 예뻐요, 재밌어요, 한국화 멋 있어요, 한자와 도장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선이 아름다워요.’ 등의 반응을 하며 우리그림에 관한 흥미와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화 감상활동은 화가의 표현기법과 그림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어서 우리고유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화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전통미술임을 알고, 긍정적인 자부심이 증진되는 교육적 효과를 지녔다. 이는 윤향미(2004)의 한국화 연구와 홍용희(2004)의 한국전통문화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아는 서예 붓을 사용하면서 보다 진중하게 활동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화’라는 명칭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지, 화선지, 붓 펜, 벼루, 먹, 한국화물감 등의 한국화 관련 미술매체를 미술 영역에 제공함으로써,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친숙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화 감상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로 미적 요소에 의한 감상활동은 유아의 미술 표현력 증진되었다.

둘째, 한국화 감상활동 중 ‘작품 설명하기’를 통해 자신의 감상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유아들의 정서적 표현력이 증진되었다.

셋째, 한국화 감상활동이 우리고유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화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전통미술임을 알고, 긍정적인 자부심이 증진되었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한국화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 표현력, 정서적 표현력 및 전통문화의 자부심이 증진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는 한국화 감상활동과 통합한 미술표현 활동이 유아미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연구 기간과 1개 기관에 의해 한국화감상 활동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확장된 기간과 비교 가능한 몇 개 기관에서의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화 감상활동을 통한 만 5세 유아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표현활동과 재 표현활동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였으나, 만 4세의 다른 연령에도 적용하여 좀 더 보편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자료』, 세종: 교육, 보건복지부.
- 김춘자·이명환(2006). 한국화 미술활동이 유아의 미술표현능력과 미술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31-249.
- 나정숙(2013). 한국화와 서양화의 비교감상과 통합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미술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제81권 1호: 1-24.
- 박영대(2003). 『우리 그림 백가지』, 서울: 현암사.
- 백희숙(2006). “전통문화소재를 활용한 통합미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미적반응,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향미(2004). “한국화 감상을 통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의 미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조경자(2007). 민화를 통한 유아 전통미술 지도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제2권 1호: 127-146.
- 조효진(2010). “명화감상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미술표현 능력 및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2011). “한국화를 활용한 조형 활동이 유아의 미술성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희(2004). 한국 전통문화와 유아교육, 『대한 어린이교육협회』제5집: 120-135.
- Forman, G. (1994). *Different media, different languages*. Urbana, IL: ERIC Clearinghouse on EEC.
- Katz, L. (1995). *Talks with teachers of young children: A collection*. Norwood, NJ: Ablex.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ren from birth to age 8: A position statement from the NAEYC*.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meaning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ppreciation and integrated art express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Ra, Jungsook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meaning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ppreciation and integrated art expression activities to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16 five-year-old children comprised of 8 boys and 8 girls from a public kindergarten located in W city and the study was conducted 8 times from October 14 to December 6, 2019.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pproach the changes of young children's paint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Young children's artistic expression, emotional expression, and positive self-esteem for Korean culture were increased by their artistic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ndings suggest that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ppreciation activities can be a new way of teaching art appreciation.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ppreciation, educational meanings, young children

만 2세 영아 자녀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어려움 - 문화기술적 연구 -

마가양(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김현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2세 영아들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K도 W시에 위치한 00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2세 영아의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면담, 심층면담 자료를 토대로 문화기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만2세 영아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웠던 점으로 첫째, 막무가내로 떼쓰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원인은 자녀 발달 지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건강한 식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그에 대한 원인은 올바르게 양육하는 가정 내의 식습관에서 기인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셋째, 자녀간의 다툼은 행동들이 양육에 어려움이었으며 그 원인은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만2세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영아들의 기본적인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적절한 양육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이 자녀의 기본적인 발달과업, 양육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아버지 또한 어머니 양육 태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만2세 영아, 자녀양육, 어머니, 어려움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 생산과 양육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족 지원 정책으로 자녀 양육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지만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자녀 낳기를 꺼리고 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 이야기 한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누구 하나를 자녀를 키우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자녀에게는 주된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데 아직 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안게 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버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생소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출산의 경험과 자녀의 발달 단계의 변화는 어머니에게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준다.(이대균·황주미, 2008a). 영아는 엄마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세, 표정,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

는데(김희순·신영희·오가실·김태임·심미경, 2005) 이를 적절하게 상호 작용 하여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성은 자녀를 출산 후 변화된 자신의 몸을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이 해 오던 많은 활동들에 제약을 받게 되며,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밤중 수요 및 가사 노동의 증가로 체력적인 한계를 겪는다(권경숙, 2008; 김정은, 2008; 모정아, 2012; 서영민, 2010; 손승아, 2000, 이대균·황주미, 2008b).

이전의 과거의 가족은 자녀 양육에 있어 많은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대사회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육아의 책임을 갖게 되며 이는 특히 어머니의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며 이는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므로 대상 어머니의 자녀 연령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2세 영아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지는 시기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기쁨과 보람이 증가하는 반면 자신의 의사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와 갈등 상황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어려움 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어머니의 어려움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함께 어머니의 감정과 의식을 엿볼 수 있어 예비 어머니가 될 한국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예측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 하는 기초가 되어 어머니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국가적 육아 정책 사업에 기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만2세 영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어

려움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 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으로 진행되었다. 문화 기술적 방법이란 특정 사회나 집단의 문화를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관점과 삶의 방식,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Spradley),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Wolcot, 1980).

이에 어머니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들의 문화를 포괄적인 인간 삶의 문화적 맥락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기에 문화 기술적 연구의 주제로써 적합하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밝히기 위하여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아들의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 및 전화상담, 어머니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찰과 해석, 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중립 있는 해석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지속적인 감수를 받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1. 연구 기관 특성 및 연구 참여자 선정

1) 연구 기관 특성

00어린이집은 아파트 인근에 인접해 있으며 만1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잔디밭과 강당 및 자연학습장이 함께 구비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내부는 유희실과 만1세 1반, 만2세 3반으로 총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실에는 4~6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은 영 유아의 흥미와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화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 되어 지고 있다. 00어린이집 학급 구성 및 담임 교사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00푸른 어린이집 학급 구성 및 담임 교사 현황

학급 구성 현황							
학급명	남	여	합계	교사명	담당	교육경력	재직기간
이슬반	3	2	5	우교사	담임교사	4	4
바다반	2	3	5	정교사	담임교사	3	3
구름반	4	3	7	용교사	담임교사	5	5
나무반	3	4	7	이교사	담임교사	6	5
계	12	12	24	평균		4.5	4.3

본 어린이집은 1달에 두 번씩 학부모님들과 영 유아에 대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록화 하고 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 씩 방문 상담을 통해 어머니들과 심층 면담이 이루어져 가정과 연계한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지고 있다.

학부모님과의 상담은 항상 기록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을 근거 자료로 자녀 상담과 유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원에서는 각 시기에 맞는 부모 교육 자료 및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는 영 유아 발달 특성 및 지도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씩 각 영 유아에 대한 발달 특성표를 기록하여 어머니들과 상담 시 근거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00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1세, 2세 영 유아의 학부모님께 연구의 주제를 알리고, 연구에 동의 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힌 4명의 어머니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싶었지만 면 담 약속을 맞추기가 어려워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

〈표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연령 (직업)	자녀 연령(개월)	가족 구성 및 특성
조종민 (가명) 어머니	1984년생 (가정 주부)	29(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은 자녀1명, 아버지, 어머니임 ·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음 · 자녀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함 ·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음 · 원에 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아버지와의 양육에 대한 갈등을 종종 이야기함
손민철 (가명) 어머니	1981년생 (가정 주부)	22(여) 42(남) 56(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은 22개월 여아, 42개월 남아, 56개월 여아 아버지, 어머니임 · 세 남매의 양육을 어려워함 · 남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음 · 세 남매의 양육 방법과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한 상담을 자주 요청함 · 성격이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품으로 거침없는 대화법을 사용함 · 아버지께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음
이성진 (가명) 어머니	1981년생 (가정 주부)	22(여) 39(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은 22개월 여아, 39개월 남아, 아버지, 어머니임 · 성격이 차분하고 매사 신중하게 대화를 이끌어감 ·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으며 책과 다양한 매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를 양육함 · 남아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함
이윤서 (가명) 어머니	1976년생 (회사)	40(남) 56(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은 40개월 남아, 56개월 남아, 아버지, 어머니로 구성 · 성격이 활발하고 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형과 동생을 자주 비교하며 이야기하심 · 둘째 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하심 · 둘째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양육 방식에 대한 상담을 자주 요청함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담임교사와의 면담, 현장 노트, 연구자 학부모 관찰 노트, 영아 관찰 노트의 내용을 통해 가족의 특성 및 어머니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2>로 도식화 하였다.

연구 시작 전 학부모님들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일정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2명의 학부모님들과 심층 면담을 위한 일정을 세우고 그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방문 상담이 어려운 2명의 학부모님은 전화상담 및 등·하원 상담, 유아 관찰 면담 시간을 통해 면담에 참여하였다.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총 경력11년이며, 현재 00어린이집 원장으로 5년 째 재직 중에 있다. 현재 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으며 어린이집 영 유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30개월의 남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 다른 어머니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또한 그 원인이 무엇 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이러한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교육자로서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들과의 심층 면담 및 전화 면담, 상담 자료를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에 시작하기 연구자의 일상생활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살펴 보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의 일상생활 에세이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그 안에서 연구자의 연구 주제를 찾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 역시 만1세의 영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궁금증이 연구로 확대 되어 영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면담을

갖기로 계획을 세웠다. 본 연구의 참여자로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머니들을 4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를 참여하는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조종민 어머니와 는 한차례 심층 면담 3번의 등·하원 상담이 이루어 졌다. 그룹 상담으로 이성진, 이운서 어머니와 2번의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등·하원 시간에 상담을 가졌다. 손민철 어머니와는 방문 면담이 어려워 각 2차례의 전화 상담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의 면담 관찰, 전화 면담, 등·하원 면담 동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전사본을 만들었고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관찰 동영상 각 반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사본을 만들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해 연구를 병행 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어머니들과 이루어진 심층 관찰 전사본, 교사가 작성한 영유아 발달 특성관찰일지, 학부모 면담 일지 등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 관찰은 2020년 9월20일부터 2020년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이루어 졌으며 학부모님들과 총6번의 면담(심층 면담, 전화 면담, 등 하원 면담)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면담은 2명의 어머니들과 그룹 면담으로 50분 정도 이루어 졌으며 1명의 어머니와는 30분 심층면담, 나머지 1명의 어머니와는 전화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룹 면담 및 개인 면담은 음성 녹음을 통해 녹취 했으며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노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교사의 부모 면담 자료를 통해 어머니들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했으며 어려움이 무엇 인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는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원에서 기록한 영 유아 발달 특성 자료 및 학부모 상담 기록 작성표를 통해 분석 자료 수집에 이용하였다.

〈표3〉 연구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본 연구	9.20~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현장 및 삶 속에서 현장 연구 주제 찾기 • 첫 주제를 통해 의미 있는 주제 찾기
	9.27~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현장 속에서 연구 주제 찾기 • 연구문제 선정 • 연구대상기관과 연구 참여자 선정
	10.4~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 학부모님과 심층 면담 • 연구참여자 소 그룹 참여하여 심층 면담 • 자녀 관찰 및 교사 면담 • 면담을 통한 관찰 전사본 작성 • 유아교육전문가와 관찰 전사본을 통한 피드백
	10.19~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관찰 및 교사 면담 • 부모 등 하원 및 전화 면담 • 관련 문헌 자료 수집과 분석 • 참여 관찰의 분석과 해석 • 관찰 전사본 보고를 통한 피드백
	10.25~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문헌 자료 수집과 분석 • 원에서 작성한 유아 발달 특성표 및 학부모 상담 자료 분석 • 참여 관찰의 분석과 해석 • 분석과 해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의 유목화 작업
자료수집	11.21~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한 자료 분석 • 보고서 작성과 검토 • 중간 보고서 작성

3. 자료 분석

어머니와 녹음된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말 그대로 기록한 후 자료를 전사하였고, 전사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각 내용의 공통의 속성으로 묶어 질 수 있는 내용은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주관성과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자 유아교육전문가와 매주 자료를 검토하였다. 자료에 대한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 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전문가와의 객관적인 피드백으로 총4회에 걸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자료 분석 과정

차분석	자녀 발달 지식 부족	잘못된 양육 태도	부부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
1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떼쓰기 - 고집 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양육 - 잘못된 식습관 - 부모의 잘못된 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배우자의 적극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
2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유아 특성 이해 부족 - 떼쓰기 - 고집 피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못된 양육 태도 - 과잉 양육 - 식사 거부 - 비 일관된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 - 부부 양육 방식 차이 - 적극적이지 않은 배우자
3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문제 행동 - 자기 주장 내세우기 - 건강한 식사 거부 - 자녀 간의 다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양육 지식 및 기술 부족 - 알맞은 훈육 방법을 알지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갈등 - 일치하지 않은 양육 방식 - 남편의 비 적극적인 양육 태도

4 차 분 석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 문제 행동의 원인
	- 막무가내로 떼쓰는 행동 - 건강한 식사 거부 거부하는 행동 - 자녀 간의 다투는 행동	- 자녀 발달 지식 및 이해의 부족 - 올바르지 않은 가정에서의 식습관 -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

III. 연구 결과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 기술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막무가내로 떼쓰는 행동, 건강한 식사 거부 거부하는 행동, 자녀 간의 다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자녀의 발달 지식 및 이해의 부족, 올바르지 않은 가정에서의 식습관, 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문제 행동이란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습관적으로 보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행동들은 어머니의 양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막무가내로 떼쓰는 행동

자녀들이 자신의 주장을 어머니 자신에게 관철 시키려 할 때 그 표현 방법 중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떼쓰기의 형태이다. 이런 떼쓰기의 형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임을 아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안 되면 막 짜증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개는 그냥 누워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다 흠뻑 젖을 때 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2016.10.12. 이윤서 학부모 면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해야 하면 그냥 무조건 떼를 쓰더라고요 막 제 다리를 붙잡고(손으로 잡고 흔드는 흉

내를 낸다.)울고 불고 하는데 그럴 땐 참...

(2016.10.12. 이성진 학부모 면담)

위 사례와 같이 어머니는 영 유아 자녀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들어 줄 때까지 온몸이 흠뻑 젖도록 울며 떼쓰기, 어머니 다리 잡고 울며 떼쓰기, 고집 피우며 떼쓰기의 행동을 보이며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위 면담 내용에서 보듯 유아들은 어머니 뜻이 아닌 자신의 뜻 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대립을 겪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유아의 떼쓰기 행동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다.

아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중 눈에 띄는 시기는 '독립의 시기'이다.(김재은, 2013). '독립의 시기'가 되기 전 영 유아들은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며 양육되어져 왔다.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어머니에게 의존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투쟁은 완강한 거부나 떼쓰기 등 위와 같은 사례들로 나타난다.(Erik Erikson) 결국 떼쓰기는 영 유아들의 발달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녀 발달 특성 이해 및 지식의 부족은 갑자기 달라진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녀들이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이 어머니들에게 있다면 자녀들의 떼쓰기의 모습은 문제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발달로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한 식사 거부하는 행동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웠던 부분은 자녀들이 일정한 건강한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간식을 찾으며 억지로 먹여야 하는 부분에서 힘든 점을 느꼈다.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 싫다고 손을 저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그리고 과자를 찾아요

그래도 먹여야 하잖아요 식사 때마다 과자로 꼬시거나 아니면 계속 쫓아 다니면서 먹여요.

(2016.10.06. 종민 어머니 면담)

민철이가 가정에서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피자 또는 치킨을 시켜 달라며 떼를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의 밥을 먹지 않아 걱정이예요.

(2016.9.28. 민철 어머니 면담)

위 사례에서 보듯 종민이나 민철이는 어머니 본인이 만들어 준 음식들을 거부하고 다른 패스트푸드나 간식을 찾으며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본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음식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 식사 시간마다 힘든 대답을 겪게 된다. 결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쫓아 다니며 먹인 다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식사 시간은 어머니들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졌다.

종민이 아빠가 간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과자를 좋아해서 밥 먹기 전에 먹고 밥 먹고 난 뒤에도 먹고 매일 그렇게 식탁 위에 자신이 먹을 간식을 올려 나요 감추면 또 올려놓고... 종민이는 그걸 보고 같이 먹고...

(2016.10.06. 종민 어머니 면담)

아이들이 세 명이다 보니 종종 치킨 또는 배달 음식을 종종 먹여요. 그리고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예쁘기도 해서 그런 음식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을 그냥 두었어요

(2016.9.28. 민철 어머니 면담)

하지만 위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자녀 양육으로 힘든 어머니는 자주 패스트푸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올바른 식사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종민이 같은 경우 아버지의 잘못된 식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식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자녀들의 식사 거부는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을 어머니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성장기 아이들은 식사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패스트푸드나 간식이 주된 음식들은 건강한 식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식사 태도를 길러주고 알맞은 식습관 태도를 형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님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은 결국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자녀의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태도는 부모들의 잘못된 식습관 모습이 원인이 되어 자녀들 양육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자녀 간의 다투는 행동

자녀가 한 명일 때는 몰랐지만 형제자매 등 자녀가 늘어나면서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 또한 함께 겪게 된다. 이렇게 자녀 간의 다툼과 갈등에 있어 또 하나의 어머니 역할이 생기게 되는 데 이 때 어머니는 두 자녀 이상의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형이 그렇게 양보하는 데도 윤서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형 것을 뺏어요. 윤호도 처음에는 양보하다가 계속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윤서를 때리고..... 그러면 윤서는 형이 때렸다고 울고불고 난리 치고 윤호도 동생이 자기 거 빼었다고 울고.... 전쟁이예요

(2016,10.31 윤서어머니 면담)

요즘엔 성진이와 채민이의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쩔 그렇게 싸우는지.... 채민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성진이가 옆으로 가서 자기 장난감을 던져 놓고 채민이가 놀던 장난감을 가져가요 그러면 채민이는 소리 지르면서 울고.....

(2016.11.15,성진 어머니 면담)

위 사례에서 보듯 한 자녀만 양육하던 어머니는 인격과

성향이 다른 자녀들을 동시에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자매는 상호 간의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모호한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서로 경쟁적인 동시에 협동적인 관계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돕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Hetherington & Parke, 1993) 이런 독특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 관계 속에서 어머니는 다 자녀 간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자매 형제 관계 속에서 올바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 자신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한 자녀 양육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사이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등 어머니는 자녀들 간의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양육 기술과 지식 부족이 원인이 되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만2세 영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어려움은 무엇 인가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만2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막무가내로 떼쓰는 행동, 즉 온몸이 흠뻑 젖도록 울며 떼쓰기, 어머니 다리 잡고 울며 떼쓰기, 고집 피우며 떼쓰기의 행동을 보이며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떼쓰기 활동들이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들은 막무가내로 떼쓰는 그 행동에는 그들 나름대로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아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중 눈에 띄는 시기는 '독립의 시기'이다.(김재은, 2013). '독립의 시기'가 되기 전 영 유아들은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며 양육되어져 왔다.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어머니에게 의존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투쟁은 완강한 거부나 떼쓰기 등 위와 같은 사례들로 나타난다.(Erik Erikson) 결국 떼쓰기는 영 유아들의 발달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녀 발달 특성 이해 및 지식의 부족은 갑자기 달라진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영 유아들의 기본적인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자녀들이 일정한 건강한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간식을 찾으며 억지로 먹여야 하는 부분에서 힘든 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식사 거부는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임을 어머니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성장기 아이들은 식사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볼 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식사 태도를 길러주고 알맞은 식습관 태도를 형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님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은 결국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자녀가 늘어나면서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 또한 함께 겪게 된다. 이렇게 자녀 간의 다툼과 갈등에 있어 또 하나의 어머니 역할이 생기게 되는 데 이 때 어머니는 두 자녀 이상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격과 성향이 다른 자녀들을 동시에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자매는 상호간의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모호한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서로 경쟁적인 동시에 협동적인 관계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돕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Hetherington & Parke, 1993) 이런 독특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 관계 속에서 어머니는 다 자녀 간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자매 형제 관계 속에서 올바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 자신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한 자녀 양육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를 종합, 만2세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에 있어 영아들의 기본적인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비롯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이 자녀의 기본적인 발달과업, 양육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돕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위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버지 또한 어머니 양육 태도 있어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므로 아버지 올바른 역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또한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영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5-255.
- 김상희, 박성연(1990). “형제간 및 또래 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 학회지』 11(2): 59-81(10).
- 김희순, 신영희, 오가실, 김태임, 심미경(2005),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4): 415-426.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1): 35-55.
- 변경애, 김은주(2013). “영아 쌍둥이 육아 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267-288.
- 손승아(2000), “첫 어머니됨의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애(2014).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한국 유아교육 연구』, 16(2), 1-24
- 이대균, 황주미(2008a).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머니됨의 변화 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71-403.
- 이대균, 황주미(2008b).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논집』 12(5): 103-132.
- 정은주, 이미선(2013).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부부의사소통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4): 481-487.
- 정지혜, 서영민, 2017,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위한 실행 과정과 변화”, 『유아교육학논집』 21(6):, 365-389.
- Hetherington & Parke(1993). “Psycho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evidence for varying forms of nonsocial behavior in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75: 251-263.
- Susan B. C.(2007). 『유아의 문제 행동』, 민성혜 옮김, 시그마프레스

Abstract

Mother's Difficulties in Raising 2 Years Old Infants

Ma, Ga Yang(Master Course, Gangneug-Wonju National University),
Kim, Hyeon Jeong(Professor, Gangneu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that mothers of 2-year-old infants experience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o this end, a cultural and technical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mothers of 2-year-old infants enrolled in 00 daycare center located in W city, K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fficult to raise two-year-old infants.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a desperate behavior. The cause of this was th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development. Second, it was the refusal to eat healthy, and the cause of it was caused by incorrect eating habits in the home. Third, quarrelsome behaviors between children were difficult to raise, and the cause was the lack of parenting knowledge and skills of the mother.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difficulty of mothers raising their 2-year-old infants stems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basic developmental tasks of infants in raising their children, as well as not understanding proper parenting knowledge and skills. Therefore,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programs and various social supports are required to help mothers learn basic development tasks and parenting behaviors of their children. Second, since fathe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mother-rearing attitudes, proper father education is necessary.

Key words: Mother's Difficulties, Raising, 2 Years Old Infants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유정희 · 김연숙 · 이현우 · 김상훈 · 조연수 · 김은지(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최선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피임 실천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교에서 6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 정답률은 약 57%(남성 약 52%, 여성 약 61%)였다. 피임지식에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t=-1.59$, $p=.115$). 피임태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이었으며($t=-2.42$, $p=.019$), 피임자기효능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t=-4.50$, $p<.001$). 피임자기효능감은 피임지식이 많을수록($r=.26$, $p=.043$),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r=.55$, $p<.001$), 콘돔사용의도가 높을수록($r=0.42$, $p=.001$), 성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이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다($F=4.66$, $p=.006$). 이에, 대학생 성교육프로그램은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 향상, 남자대학생의 콘돔사용의도 향상 및 긍정적인 피임태도 형성에 목적을 두고, 구체적·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피임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 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은 청소년시기에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이 된다. 대학생이 되어 성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

된 성행위가 이뤄지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성 지식은 낮고,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면서 성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외, 2007;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대학생에서 성경험률은 남학생 55~77%, 여학생 22~35%로 나타났다(박미숙, 2001; 최명숙, 하나선, 2004; 허명행 외, 2007). 또한 남자 대학생의 92%, 여자 대학생의 63%가

혼전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은경, 1999). 이처럼 혼전 성교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임신 혹은 임신 중절과 같은 혼전성교로 인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반면, 성행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76.8%가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현 외 2010).

피임은 자신이나 파트너의 임신, 출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율성을 갖게 해 주고, 성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에 스스로 피임지식을 가지고 실제에 사용함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중, 2001). 원치 않는 임신은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피임실천으로 개인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피임지식은 대학생들의 성행위에서 충동 혹은 지식결핍으로 인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피임행위를 도와준다. Hornick 외(1986)는 피임의 성공적 수행자와 비성공적 수행자를 구별하는 유의한 구별인자는 피임지식이라고 하였다. 피임태도는 개인이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사용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이다(Ajzen, 1991). 즉, 피임태도는 한 개인이 피임사용에 대해 갖고 있는 호불호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정현 외 2010).

Bandura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변화는 많은 인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인지적 요소는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김미혜, 김지미, 유인영 외, 2019). Folkman과 Lazarus (1984)도 인간이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여기고 도전 목표를 설정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최정현 외, 2010에 인용됨).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피임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의 피임행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 1)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중소도시에 위치한 일 개 대학교에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 6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3. 연구도구

1) 피임지식

피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Wang 외(2003)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23문항의 CKS(Contraceptive Knowledge Scale)를 김유진(2015)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에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에 0점을 주어, 최소 0점에서 최대 23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Wang 외(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김유진(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김경남(2018)의

연구에서는 KR 20= .78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61이었다.

2) 피임태도

강희선과 장순복(2004)이 개발한 콘돔사용 태도 측정도구(Condom Attitude Scale, CAS)를 피임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황신우(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강희선과 장순복(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황신우(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 이었다.

3) 피임자기효능감

강희선(2001)의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척도에 Galavotti 외 (1995)의 피임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음주에 관한 1문항을 추가하여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황신우(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강희선(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0 이었다. 황신우(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6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6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는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연구자 6명이 직접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매우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지양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소속 학과의 단체 카톡방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낸 후,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별 접촉을 통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학 내·외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자 선정범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 지침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가 설문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준비된 봉투에 직접 넣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지인을 소개 받아, 연구 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분리하여 봉투에 넣고 회신하도록 하였다. 직접 수집한 설문지는 33부, 우편 수집은 27부로 총 6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으로 데이터화 하였다. 대학생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로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에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33명(55.0%), 남성이 27명(45%)이었다. 학년은 1학년 7명(11.7%), 2학년 3명(5.0%), 3학년 17명(28.3%), 4학년 33명(55.0%)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3명(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가족과 거주가 30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47명

(78.3%), 1-2회 받은 사람은 7명(11.7%),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6명(10.0%)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34명(56.7%), 없는 사람은 26명(43.3%)이었다. 피임 결정자에서 본인과 파트너 함께 결정한다는 46명(76.7%), 본인이 결정한다는 14명(23.3%)으로 나타났다. 콘돔 사용 의도를 측정하여 5점 만점에 4.4±0.1점, 매번 콘돔 사용 의도는 7점 만점에 6.7±0.1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피임지식에서 남성은 12.4±2.7점, 여성은 13.6±2.9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59, p=.115). 피임태도는 남성이 52.0±5.3점, 여성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

특성	분류	n(%)	M±SD	Range
나이			22.0±1.9	18-27
성별	남	27(45.0)		
	여	33(55.0)		
종교	기독교	14(23.3)		
	불교	2(3.3)		
	천주교	1(1.7)		
	종교 없음	43(71.7)		
학년	1학년	7(11.7)		
	2학년	3(5.0)		
	3학년	17(28.3)		
	4학년	33(55.0)		
주거 형태	가족과 거주	30(50.0)		
	자취	27(45.0)		
	기숙사	1(1.7)		
	기타	2(3.3)		
성교육	안받음	6(10.0)		
	1회	3(5.0)		
	2회	4(6.7)		
성관계 경험	3회 이상	47(78.3)		
	없다	26(43.3)		
	있다	34(56.7)		
피임 결정자	본인	14(23.3)		
	파트너	0(0.0)		
	모두(본인, 파트너)	46(76.7)		
	모두 아님	0(0.0)		
콘돔 사용 의도			4.4±0.1	1-5
매번 콘돔 사용 의도			6.7±0.1	1-7

이 55.2±4.7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42, p=.019). 즉 피임태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피임자기효능감 점수는 남성이 47.5±6.2 점, 여성이 54.0±4.9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50 p<.001).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임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피임지식과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피임지식에서 차이가 있었다(F=2.94, p=.041). 피임

지식은 4학년이 14.0±2.6점, 3학년이 13.2±2.9점, 2학년 이 11.3±3.5점, 1학년이 10.5±1.9점 순 이었다. 피임태도와 일반적 특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임자기효 능감은 성교육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4.66, p=.006). Schffe 사후검정 결과 성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과 성교 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콘돔사용의도가 높을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0.42, p=.001).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차이

(N=60)

특성	분류	피임지식		피임태도		자기효능감	
		M±SD	t/F/r(p) scheffe	M±SD	t/F/r(p) scheffe	M±SD	t/F/r(p) scheffe
나이		13.0±2.9	0.20(.117)	53.2±5.2	0.11(.393)	51.1±6.4	-0.15 (.240)
성별	남	12.4±2.7	-1.59(.115)	52.0±5.3	-2.42(.019)	47.5±6.2	-4.50 (p<.001)
	여	13.6±2.9		55.2±4.7		54.0±4.9	
종교	기독교	13.9±3.2	0.93(.429)	52.6±6.9	0.68(.568)	51.7±6.5	0.92(.437)
	불교	13.0±2.8		57.0±4.2		54.0±0.0	
	천주교	16.0		58.0		60.0	
	종교 없음	12.7±2.8		53.9±4.6		50.5±6.5	
학년	1학년	10.5±1.9	2.94(.041)	54.8±4.0	0.19(.905)	51.0±6.4	0.04(.988)
	2학년	11.3±3.5		53.6±8.5		51.6±2.0	
	3학년	14.0±2.6		53.1±6.4		51.5±6.2	
	4학년	13.2±2.9		53.9±4.7		50.8±7.0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12.7±3.2	0.21(.883)	52.9±6.0	0.55(.651)	51.5±5.3	0.16(.922)
	자취	13.3±2.6		54.5±4.3		50.7±7.7	
	기숙사	14.0		53.0		48.0	
	기타	13.5±3.5		56.0±5.6		52.0±5.6	
성교육	안받음a	10.1±2.7	2.41(.076)	50.6±6.6	0.88(.456)	44.1±9.1	4.66(.006) a<d
	1회b	13.6±0.5		54.6±3.7		48.6±1.1	
	2회c	14.0±3.1		52.7±3.8		46.5±4.5	
	3회 이상d	13.3±2.8		54.2±5.2		52.5±5.6	
성관계 경험	없다	13.1±2.8	0.11(.911)	54.3±4.9	0.67(.504)	51.9±5.9	0.84(.402)
	있다	13.0±3.0		53.3±5.5		50.5±6.8	
피임 결정자	본인	12.8±2.8	0.92(.763)	53.2±5.5	0.16(.689)	51.3±5.2	0.25(.875)
	파트너	-		-		-	
	모두(본인, 파트너)	13.1±2.9		53.9±5.2		51.0±6.8	
	모두 아님	-		-		-	
콘돔사용의도		13.0±2.9	0.83(.531)	53.7±5.2	0.21(.359)	51.1±6.4	0.42(.001)
매번 콘돔사용의도		13.0±2.9	0.00(1.00)	18.2±5.2	0.24(.064)	51.1±6.4	0.23(.071)

3.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4, p=.744$). 피임지식과 피임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6, p=.043$). 즉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은 높았다. 피임태도와 피임자기효능감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5, p<.001$). 즉,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표 3>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N=60)

	피임지식	피임태도
	r(p)	
피임태도	.043(.744)	
피임자기효능감	.260(.043)	.554(p<.001)

IV.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피임행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피임지식은 23점 만점에 13.0점이었다. 남자 대학생은 12.4점, 여자 대학생은 13.6점이었으며, 남녀 간에 지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허명행 외(2007)의 연구에서도 피임지식에서 성별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 대상자의 피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56.5점(남성 53.9점, 여성 59.1점) 이었다. 대학생의 피임지식을 조사하여, 정성원(2017)은 15점 만점에 8.6점, 임복희와 박지경(2018)은 35점 만점에 20점으로 보고하였다.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조사된 대학생의 피임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5점부터

57.3점 사이에 분포하여, 대학생의 피임지식은 큰 변화 없이 60점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상관계를 가진 대학생들의 76.8%가 피임을 하며, 피임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피임방법에 대해 몰라서라는 답변이 20%정도 였다(최정현 외, 2010).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피임교육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피임태도에서 남자 대학생이 60점 만점에 52.0점, 여자 대학생이 55.2점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피임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태도를 연구한 허명행 외(2007)의 연구결과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남(2018)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임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인지적 측면 뿐 만 아니라 평가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최정현 외, 2010). 이에 이러한 결과는 임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자는 여성이므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불안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서 피임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임신에 대해 덜 민감함을 나타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성별에 따른 피임태도에서 임현자와 조유향(2002)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임태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피임법 중 경구 피임약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된 결과로서 여성이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허명행 외, 2007에 인용됨).

피임에 대한 지식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가 실제 피임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최정현 외, 2010). 태도는 일회성의 교육으로는 형성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피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여 피임방법에 대한 상대자와의 의사소통과 사용의지 등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피임교육 시 남자 대학생에게 보

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최정현 외, 2010).

피임자기효능감은 60점 만점에 남자 대학생이 47.5점, 여성 대학생이 54.0점이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허명행 외, 2007; 정혜윤, 2016)과 고등학생 대상(김경남, 2018)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여성의 피임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

이혜경(2010)과 Godin, Gagnon, Lambert, & Conner (2005)에 의하면, 자신이 피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피임실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임실천의도를 통해 피임행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황신우, 2013에 인용됨).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황신우, 2013). 이에 대학생과 미혼남녀의 피임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피임행위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임지식과 피임태도는 피임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임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피임태도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김유진, 김동희, 박정하, 2017),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피임지식과 피임태도는 피임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경남, 201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지식, 피임태도 및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위험지각이었다(임복희, 박지경, 2018).

그러나 이 연구에서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허명행 외(2007) 역시 대학생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피임에 대한 지식과 피임을 하고자 하는 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피임태도에서,

지식 보다는 가치관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김미중(2001)은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피임행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성교육 경험과 피임자기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교육을 3회 이상 받은 대학생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피임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 유무 뿐 만아니라 횟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성교육 시 일회성이 아닌 적어도 3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피임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콘돔사용의도와 피임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콘돔사용의도가 높을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학생에게 권할 수 있는 피임방법으로 콘돔을 고려할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피임을 더 잘 사용하고, 남자 대학생의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을 잘 실천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남자 대학생 대상으로 피임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정현 외, 2010).

V. 결론 및 제언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피임태도와 피임자기효능감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피임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피임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피임지식이 많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콘돔사용의도가 높을수록, 성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이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학생에 있어서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3회 이상 실시하며, 피임방법은 콘돔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남녀 대학생의 피임지식 향상, 남자 대학생의 피임태도 및 피임자기효능감 증진에 목표를 두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임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추후 대학생에게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피임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희선(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선, 장순복, 2004, "대학생의 콘돔사용 태도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5호: 751-759.
- 김경남, 2018, "남녀 고등학생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중, 2001,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 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 김지미, 유인영, 이영미, 이정애, 전미영, 조정민, 최선하, 한명화, 황승숙, 2019, "신개념 보건교육학(제5판)", 서울: 계축문화사.
- 김유진, 2015,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피임 지식, 피임 태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김동희, 박정하, 2017,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피임 지식, 피임 태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8권 10호, 246-255.
- 박미숙, 200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복희, 박지경, 2018, "대학생의 피임지식, 태도 및 위험지각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제9권 4호: 1621-1635. <http://dx.doi.org/10.22143/HSS21.9.4.112>
- 임현자, 조유향, 2002, "일 지역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6권 2호: 412-422.
- 전은경, 1999, "한국 수도권 대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구조 및 행동양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원, 2017, "대학생의 피임 관련 지식 및 태도와 성적 자기주장간에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154-154.
- 정혜윤, 2016, "대학생의 피임지식과 피임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다문화건강학회지』, 제6권 1호:17-25.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4호: 318-330.
-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3호: 511-522. <http://dx.doi.org.libproxy.knu.ac.kr/10.5934/KJHE.2010.19.3.511>
- 허명행, 안혜영, 곽은하,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대학

- 생들의 성행동 및 피임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3호: 267-275.
- 황신우, 2009,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신우, 2013, “미혼남녀의 피임행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Galavotti, C., Cabral, R., Lansky, A, Grimley, D. M., Riley, G. E., & Prochaska, J. O., 1995, “Validation of measures of condom and other contraceptive use among women at high risk for HIV intention and unintended pregnancy”. *Health Psychology*, 14(6): 570-578.
- Hornick, J. P., Devlin, M. C., Downey, M. K., & Baynham, T., 1986,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ontraceptors : A multivariate typology”, *The Journal of Social Work & Human Sexuality Series*, 4(1/2): 17-31.
- Wang, R. H., Wang, R. H., & Hsu, M. T.,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 A sample of Taiwanese female adolescent”, *Public Health Nursing* 20(1): 33-41.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ontraception Knowledge, Contraception Attitude and Contraception Self-efficacy by Gender in University Students

Yu, Chung-Hee, Kim, Yeon-Sook, Lee, Hyun-Woo,
Kim, Sang-Hoon, Cho, Yeon-Soo, Kim, Eun-Ji

(Colleg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hoi, Sun-Ha(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contraception knowledge, contraception attitude, and contracept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60 college students who had been studying at university.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May 25th to May 29th, 2020 and analyzed using SPSS 26.0. The mean score of college students' contraception knowledge was 57 out of 100(male 52, female 61).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contraceptive knowledge($t=-1.59$, $p=.115$). Women were more positive at contraception attitude than men($t=-2.42$, $p=.019$). Women were more positive in contraceptive self-efficacy than men($t=-4.50$, $p<.001$). Contraceptive self-efficacy was higher with more knowledge of contraception($r=.26$, $p=.043$). The more positive the contraceptive attitude was, the higher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was($r=.55$, $p<.0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use a condom($r=.42$, $p=.001$). The group who received sex education more than 3 times had a difference in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than the group who did not receive sex education($F=4.66$, $p=.006$). In conclusion, Sexual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aim of improving contraceptive knowledge, male college students' contraceptive attitudes, and male college students' contraceptive self-efficacy.

Key words: Contraception Knowledge, Contraception Attitude, Contraception Self-efficacy, College student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 -1차 유행기간을 중심으로-

박나라·류지홍·남민아(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소애영(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대학생들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2020.05.11.~2020.05.18.까지 W시 소재한 본 대학 재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는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가 자체개발한 두려움 측정 도구(7문항)와 불안, 우울 측정도구인 GAD-7(General Anxiety Disorder-7),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사용하였다. 그 외 COVID-19 지식과 감염예방행위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2020년 생활방역지침(안)'을 참고해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 **결과** : 대학생 COVID-19 두려움은 1달 1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와($t=2.40$, $p=.017$), 1회 음주 시 4잔 이상 음주량 하는 경우($t=3.02$, $p=.003$)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t=-2.85$, $p=.005$), 우울($t=-3.51$, $p=.001$)이 높았다. 1달 1회 이상 음주 하는 경우가 전혀 안 하는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고($t=2.22$, $p=.028$), 중등도 운동 20분 이상 하는 경우($t=-2.90$, $p=.004$)가 운동을 전혀 안하는 대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가 높았고($t=2.05$, $p=.042$),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우($t=2.89$, $p=.004$)가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가 높았다. **결론** : 지속적인 음주량을 보인 대학생과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우울 수준도 낮고, 감염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 정도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와 대학생의 건강과 운동량을 파악하여 자가 건강 관리방안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과 COVID-19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요어(Key words): 코비드-19, 대학생, 정신건강, 예방행위

소애영 : aeyoung@gwnu.ac.kr,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나라 : nara3353@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류지홍 : pig1789@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남민아 : nma8424@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들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중심으로 감염병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Sim, 2020). 영양 및 환경상태의 개선, 항생제 및 백신의 개발 등으로 전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염성 질환들이 새롭게 발생하여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오대규, 2001). 국제교류 증가로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지카 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EID)이라 한다(Shin, 2015). 사스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사례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은 잘 알려진 감염병과는 달리 발생원인 파악도 어렵지만 확산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확실한 치료법이 규명되지 못하였고,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감시체계 확립과 관련 정보의 교류 확대 및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Kim,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2017).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19일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감염자 동선 및 감염경로를 실시간 재난 문자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빠른 대응을 보였다. 국내 감염자 수가 30명 선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역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또한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 홍콩 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COVID-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선포하였다(MOHW, 2020a).

COVID-19는 비말 및 접촉을 통해 전파한다고 알려졌으며,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

해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된다. 감염 후 2-14일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권태감, 마른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경증에서 중증 정도의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CDC, 2020).

WHO에서는 COVID-19 라는 세계적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기 방법, 기침 예절과 같은 감염 예방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하였다(WHO, 2020). 질병관리청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하였으며 감염자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의료정보센터에 즉시 신고 및 해외 방문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당부했다(MOHW, 2020a; MOHW, 2020b).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감염이행행위를 실천하게 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학교라는 장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정한 고위험군 중 하나로 집단화되어 있어 질병에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Kim, 2019).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COVID-19에 대한 집단감염을 우려해 학교 안팎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면서 개학 연기, 온라인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COVID-19라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이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대학생이다.

감염병은 다른 사회적 재난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위험요인의 불확실성과 지속성이 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은 전파양상, 치명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중이 지각하는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며 공포와 불안 을 자극한다(Sim, 2020). 이에 COVID-19로 생활의 변화가 가장 큰 대학생의 정신건강상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행

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 등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대학생의 외부생활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활동 제한으로 인한 우울 정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예방행위 및 정서적 반응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생의 COVID-19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추후 대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COVID-19의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를 파악한다.
- 3) COVID-19의 지식,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 간 관련성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1차 유행기간 대학생의 COVID-19 지식과 정신건강상태 및 감염예방행위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W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0학년도에 휴학생 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84명이었고 불충분한 응답 한명을 제외한 183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카카오톡 학과 단톡방 및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홍보 하였다. 응답자에게는 인센티브로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다.

3. 연구 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21문항, COVID-19에 대한 지식 수준 11문항,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15문항, 정신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두려움 7문항, 불안 7문항, 우울 9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를 기초로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학과, 거주형태, 경제 상태 및 통학 방법, 현재 아르바이트 유무, 임상실습 경험 유무, 가족 중 COVID-19 발생유무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흡연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 중등도 운동 실천, 걷기 실천, 건강정보 획득 경로, 주관적 건강상태, 감염 관리 교육 유무, 교육 참여 등 총 21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문항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2) COVID-19에 대한 지식

지식수준 측정도구는 보건복지부의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질병관리청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 행태조사와 캠페인 활성화 방안 개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COVID-19 질병 개인 보호 장비 사용 방법(WHO, 2020) 설명을 기반으로 하였고, 기존의 신종 감염병의 연구 논문(Kim, Oh & Lee, 2016)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발한 도구는 간호학과 캡스톤 지도교수의 검토를 마친 후 사용하였으며, 개발한 도구는 지식 문항은 총 11문항이며 COVID-19에 대한 지식 5문항, 감염예방 행동지침 관련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그렇다'=1점, '아니다' 또는 '모른다'=0점을 주어 총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1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COVID-19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측정도구는 2020년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두려움 측정도구를 참고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팀이 자체개발한 도구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각 항목은 4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0 이었다.

4) COVID-19에 대한 불안

불안 측정도구는 2020년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General Anxiety Disorder-7(GAD-7)을 이용하였다.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각 항목은 4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 0점,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1점, '2주 중 절반 이상 방해 받았다' 2점,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3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9 이었다.

5) COVID-19에 대한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우울증 평가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이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각 항목은 4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 0점, '며칠 동안' 1점, '1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7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3 이었다.

6) COVID-19에 대한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감염예방행위 이행도 측정도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2020년 생활방역지침(안)'(질병관리청, 2020)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 행태조사와 캠페인 활성화 방안 개발(Hong, 2014)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도구는 간호학과 캡스톤 지도교수의 검토를 마친 후 사용하였다. 손위생, 기침예절, 마스크 이용, 사회적 접촉 최소화, 생활방역, 건강생활 실천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항상 그렇게 한다' 5점, '대체로 그렇게 한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거의 하지 않는다' 2점,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으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 예방행위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8 이었다.

4.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학생의 COVID-19 관련 지식, 두려움, 불안, 우울, 예방 행위 이행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학생과 전국의 COVID-19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의 총 점수 차이는 일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 -19 지식, 두려움, 불안, 우울, 예방행위 이행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총 183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 34.4%, 여학생 65.6%이었고, 평균연령은 22.8세이었다. 저학년이 37.7%, 고학년이 62.3%이었다. 학과는 간호학과가 48.1%, 타 학과가 51.9%이었다. 거주형태는 자취하는 학생이 41.5%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상태는 보통이 80.9%로 가장 많았다. 통학방법은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가 62.8%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8%이었다.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7%이었다. 가족이 COVID-19에 걸린 경우는 0.0%이었다.

흡연 유무는 1년 이상 흡연자가 8.7%, 비흡연자가 91.3%이었다. 음주는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72.1%이었다. 음주량은 4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77.0%이었다.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29.0%이었다. 걷기를 30분 이상 하는 경우는 37.2%이었다.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97.3%로 가장 많았다.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 물품사용은 마스크 착용 99.5%, 손 세정제 활용 80.9% 순으로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이 57.9%이었다. COVID-19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33.9%이었고, COVID-19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7.3%, 기회가 된다면 COVID-19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81.4%로 교육의 요구도가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Health Behavioral & COVID-19 Characteristics

(N=18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SD), Range
Gender	Male	63 (34.4)	
	Female	120 (65.6)	
Age (years)			22.8 (1.80), 20-27
Grade	Lower grade(1-2)	69 (37.7)	
	Senior grade(3-4)	114 (62.3)	
Major	Nursing	88 (48.1)	
	Other major	95 (51.9)	
Residence	Home	52 (28.4)	
	Apartment	76 (41.5)	
	Dormitory	54 (29.5)	
Economic status	High	18 (9.8)	
	Middle	148 (80.9)	
	Low	17 (9.3)	
Commute mode	Walking	115 (62.8)	
	Transit	68 (37.2)	
Part-time job experience	Yes	49 (26.8)	
	No	134 (73.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4 (18.7)	
	No	148 (81.3)	
Family members infected with COVID-19	Yes	0 (0.0)	
	No	183 (100)	
Health behavior	Smoking	> 1 year of smoking	16 (8.7)
		Non-smoker	167 (91.3)
	Alcohol drinking	> every 4weeks/month	132 (72.1)
		No drink for 1year or None	51 (27.9)
	Alcohol consumption	More than 4 glasses	141 (77.0)
Less than 4 glasses or None		42 (23.0)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SD),Range
Intense exercise †	Yes	53 (29.0)	
	No	130 (71.0)	
Walking ‡	Yes	68 (37.2)	
	No	115 (62.8)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Web or SNS	178 (97.3)	
	TV, radio, book, expert	5 (2.7)	
Health care supplies (multiple response)	Mask	182 (99.5)	
	Hand cleaner	148 (80.9)	
	Insect repellent	15 (8.2)	
Health status	Personalized water bottle	24 (13.1)	
	Good	106 (57.9)	
	Fair	62 (33.9)	
COVID-19 education experience	Poor	15 (8.2)	
	Yes	62 (33.9)	
COVID-19 education necessity	No	121 (66.1)	
	Yes	178 (97.3)	
Attending COVID-19 education	No	5 (2.7)	
	Yes	149 (81.4)	
	No	34 (18.6)	

† Respond when they are intense exercise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20minutes.

‡ Respond when they are walking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30minutes.

2.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지식, 두려움, 불안, 우울정도와 예방 행위 이행 정도

대학생의 총 두려움 평균은 13.73으로 전국 19-29세의 총 두려움 평균 11.1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44, p<.001$). 대학생의 총 불안의 평균은 3.43으로 전국 19-29세의 총 불안 평균 4.9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58, p<.001$). 대학생의 총 우울의 평균은 3.55이고, 전국

19-29세의 총 우울 평균은 4.6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6, p=.001$)(Table 2).

3.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불안과 우울의 비교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불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4점 이하)은 대학생 73.2%, 전국(19-29세) 52.0%로 대학생이 전국(19-29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Table 2> Knowledge, fear, anxiety, depression, & prevention health behavior of COVID-19

(N=183)

	Subject		National data* (age 19-29)		t, (p)
	Mean (SD)	Range	Mean (SD)	Range	
Knowledge	10.53 (0.79)	7-11	-	-	-
Fear	13.73 (4.74)	0-21	11.12 (5.50)	-	7.44 (<.001)
Anxiety	3.43 (3.75)	0-21	4.98 (4.53)	-	-5.58 (<.001)
Depression	3.55 (4.26)	0-22	4.61 (4.77)	-	-3.36 (.001)
Prevention health behavior of COVID-19	4.05 (0.49)	2.6-5	-	-	-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2020.04), National Mental Health Status for COVID-19

타났다.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불안경험(5 점 이상)을 비교한 결과, 대학생 26.8%, 전국(19-29세) 48.0%로 전국(19-29세)이 조사대상에 비해 불안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우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4점 이하)은 대학생 71.6%, 전국(19-29세)

57.5%로 대학생이 전국(19-29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전국(19-29세)의 COVID-19 우울경험(5 점 이상)을 비교한 결과, 대학생 28.4%, 전국(19-29세) 42.5%로 전국(19-29세)가 조사대상에 비해 우울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status of anxiety and depression

(N=183)

		Subject	National Data* (age 19-29)	comparison (Subject VS National)
		n (%)		
anxiety	normal (0-4)	134 (73.2)	527 (52.0)	>
	mild (5-9)	35 (19.1)	294 (29.0)	<
	moderate (10-19)	10 (5.5)	124 (12.2)	<
	severe (≥20)	4 (2.2)	69 (6.8)	<
depression	normal (0-4)	131 (71.6)	583 (57.5)	>
	mild (5-9)	30 (16.4)	254 (25.0)	<
	moderate (10-14)	20 (10.9)	155 (15.3)	<
	severe (≥15)	2 (1.1)	22 (2.2)	<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2020.04), National Mental Health Status for COVID-19

4.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지식, 두려움, 불안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지식은 경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분석에서는 그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12 p=.047).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두려움은 1달 1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와(t=2.40, p=.017), 1회 음주

시 4잔 이상 음주량 하는 경우(t=3.02, p=.003)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t=-2.85, p=.005), 경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분석에서는 그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18, p=.044)(Table 4).

<Table 4> Knowledge, fear & anxiety of COVID-19 according to the subject

(N=183)

Variables	Classification	Knowledge		Fear		Anxiety	
		Meas (SD)	t, F (p)	Meas (SD)	t, F (p)	Meas (SD)	t, F (p)
Gender	Male	10.30 (.96)	-1.64 (.103)	12.77 (5.44)	-1.89 (.062)	2.38 (3.07)	-2.85 (.005)
	Female	10.53 (.73)		14.24 (4.25)		4.00 (3.97)	
Age	20~23	10.47 (.80)	.47 (.637)	14.01 (4.53)	1.39 (.168)	3.44 (3.82)	.04 (.969)
	24~27	10.40 (.91)		12.89 (5.27)		3.41 (3.59)	
Grade	Lower grade	10.48 (.78)	.44 (.662)	14.22 (4.65)	1.09 (.277)	3.65 (4.49)	.62 (.538)
	Senior grade	10.43 (.85)		13.43 (4.79)		3.30 (3.24)	
Major	Nursing	10.53 (.79)	1.23 (.222)	13.58 (4.35)	-.40 (.687)	3.32 (3.62)	-.39 (.695)
	Others	10.38 (.85)		13.86 (5.09)		3.53 (3.88)	

Variables	Classification	Knowledge		Fear		Anxiety	
		Meas (SD)	t, F (p)	Meas (SD)	t, F (p)	Meas (SD)	t, F (p)
Economic§	Gooda	10.89 (.32)		16.17 (4.40)	2.70 (.070)	5.50 (4.16)	3.18 (.044)
	Normalb	10.39 (.86)	3.12 (.047)	13.47 (4.60)		3.17 (3.16)	
	Badc	10.53 (.71)		13.35 (5.77)		3.52 (4.05)	
Part time job	Yes	10.49 (.87)	.39 (.698)	14.37 (4.77)	1.11 (.270)	3.67 (4.13)	.53 (.600)
	No	10.44 (.81)		13.49 (4.72)		3.34 (3.62)	
Clinical practice	Yes	10.35 (.95)	-.77 (.446)	13.50 (4.63)	-.31 (.758)	2.91 (3.12)	-.90 (.372)
	No	10.47 (.79)		13.78 (4.78)		3.55 (3.88)	
Smoking	Yes	10.63 (.81)	.89 (.377)	11.19 (7.01)	-1.56 (.138)	2.06 (2.57)	-1.53 (.127)
	No	10.43 (.83)		13.97 (4.42)		3.56 (3.83)	
Drinking	More than 1 a month	10.44 (.85)	-.30 (.768)	14.24 (4.76)	2.40 (.017)	3.73 (3.93)	1.77 (.079)
	No drinking	10.48 (.76)		12.39 (4.45)		2.65 (3.15)	
Alcohol consumption	More than 4	10.48 (.80)	.96 (.337)	14.29 (4.67)	3.02 (.003)	3.52 (3.65)	.61 (.540)
	Hardly ever	10.34 (.91)		11.83 (4.54)		3.12 (4.12)	
Intense exercise †	Yes	10.58 (.80)	1.41 (.159)	14.09 (4.75)	.67 (.504)	2.96 (2.86)	-1.08 (.281)
	No	10.40 (.83)		13.58 (4.74)		3.62 (4.06)	
Walking ‡	Yes	10.52 (.77)	.90 (.371)	13.82 (5.08)	.21 (.832)	3.38 (3.57)	-.14 (.892)
	No	10.41 (.86)		13.67 (4.55)		3.46 (3.87)	
Subjective health state§	Gooda	10.51 (.78)	.79 (.456)	13.60 (4.74)	2.30 (.103)	3.14 (3.58)	2.87 (.059)
	Normalb	10.39 (.86)		14.45 (4.46)		4.26 (4.19)	
	Badc	10.27 (.96)		11.60 (4.74)		2.07 (2.22)	
Education status	Yes	10.41 (.86)	-.47 (.638)	13.00 (4.71)	-1.49 (.138)	3.24 (3.66)	-.49 (.626)
	No	10.47 (.81)		14.10 (4.73)		3.53 (3.81)	
Education necessity	Yes	10.46 (.81)	.69 (.492)	13.71 (4.76)	-.32 (.748)	3.51 (3.77)	1.72 (.087)
	No	10.20 (1.30)		12.40 (4.28)		0.60 (0.89)	
Education join	Yes	10.43 (.82)	-.85 (.397)	13.90 (4.73)	1.03 (.304)	3.54 (3.72)	.84 (.400)
	No	10.56 (.86)		12.97 (4.76)		2.94 (3.90)	

† Respond when they are intense exercise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20minutes.

‡ Respond when they are walking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30minutes.

§ Scheffé test.

5.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우울, 감염예방행위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t=-3.51, p=.001$). 음주 습관에 따라 1달 1회 이상 음주 하는 경우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고($t=2.22, p=.028$), 중등도 운동 20분 이상 하는 경우($t=-2.90, p=.004$)가 운동을 전혀

안하는 대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

대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감염예방행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가 높았고($t=2.05, p=.042$),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우($t=2.89, p=.004$)가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가 높았다(Table 5).

<Table 5> Depression & anxiety of COVID-19 according to the subject

(N=183)

Variables	Classification	Depression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	
		Meas (SD)	t, F (p)	Meas (SD)	t, F (p)
Gender	Male	2.17 (3.59)	- 3.51 (.001)	3.98 (.46)	- 1.22 (.221)
	Female	4.29 (4.42)		4.06 (.45)	
Age	18~23	3.68 (4.28)	.69 (.489)	4.04 (.43)	.14 (.889)
	24~29	3.17 (4.25)		4.03 (.52)	
Grade	Lower grade	3.30 (4.28)	- .61 (.543)	4.01 (.43)	- .45 (.652)
	Senior grade	3.70 (4.27)		4.06 (.47)	
Major	Nursing	3.84 (4.10)	.88 (.379)	4.06 (.49)	.61 (.546)
	Others	3.28 (4.41)		4.02 (.41)	
Economic§	Gooda	5.33 (5.16)	1.76 (.176)	4.13 (.45)	2.39 (.094)
	Normalb	3.36 (4.27)		4.05 (.45)	
	Badc	3.35 (2.64)		3.82 (.42)	
Part time job	Yes	2.92 (3.82)	- 1.22 (.225)	4.08 (.40)	.72 (.473)
	No	3.78 (4.41)		4.02 (.47)	
Clinical practice	Yes	2.94 (2.72)	- 1.26 (.212)	4.18 (.49)	2.05 (.042)
	No	3.69 (4.54)		4.00 (.44)	
Smoking	Yes	2.38 (3.58)	- 1.16 (.249)	3.94 (.51)	- .90 (.367)
	No	3.66 (4.32)		4.04 (.44)	
Drinking	More than 1 a month	3.91 (4.64)	2.22 (.028)	4.02 (.44)	- .78 (.435)
	No drinking	2.63 (2.94)		4.08 (.47)	
Alcohol consumption	More than 4	3.49 (4.17)	.36 (.717)	4.04 (.42)	.06 (.950)
	Hardly ever	3.76 (4.60)		4.03 (.54)	
Intense exercise †	Yes	2.32 (3.26)	- 2.90 (.004)	4.18 (.44)	2.89 (.004)
	No	4.05 (4.53)		3.97 (.44)	
Walking ‡	Yes	3.06 (3.58)	- 1.20 (.230)	4.11 (.49)	1.81 (.720)
	No	3.84 (4.61)		3.99 (.42)	
Subjective health state§	Gooda	3.01 (4.33)	2.16 (.118)	4.09 (.41)	1.87 (.158)
	Normalb	4.19 (3.85)		3.97 (.49)	
	Badc	4.73 (5.05)		3.92 (.52)	
Education status	Yes	3.71 (3.51)	.36 (.721)	4.03 (.44)	- .21 (.838)
	No	3.47 (4.15)		4.04 (.46)	
Education necessity	Yes	3.61 (4.29)	1.04 (.301)	4.04 (.45)	.24 (.809)
	No	1.60 (2.61)		3.99 (.48)	
Education join	Yes	3.50 (4.10)	- .37 (.715)	4.04 (.43)	.30 (.763)
	No	3.79 (5.00)		4.01 (.52)	

† Respond when they are intense exercise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20minutes.

‡ Respond when they are walking more than 5times for one week and more than 30minutes.

§ Scheffé test.

6. 대학생 연령, 경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물품, 지식, 두려움, 불안, 우울, 감염예방행위의 상관관계

대학생 연령은 두려움과 음의 상관관계($r=-.15, p=.0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두려움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주관적 경제 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r=.23, p=.002$)가 있어 경제가 나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 ($r=.19, p=.009$)가 있고, 감염예방행위 이행도와 상관관계 ($r=-.15, p=.0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감염예방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물품 수는 감염예방행위와 양의 상관관계($r=.19, p=.012$)가 있어 건강물품 수가 증가할수록 감염예방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COVID-19 지식은 감염예방행위와 양의 상관관계($r=.18, p=.0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OVID-19 지식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COVID-19 두려움은 불안($r=.45, p<.001$), 우울($r=.17, p=.019$) 및 감염예방행위($r=.21, p=.004$)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두려움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감염예방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COVID-19 불안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63, p<.001$)(Table 6).

IV.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가 증가했다. 선행연구에서 메르스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메르스 관련 교육경험이 있을 때 예방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르스에 대한 지식이 높고,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메르스 예방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Chang & Park, 2018; Choi, J. S. et al., 2015; Vadharuya & Sansgiry, 2015). 따라서 COVID-19 관련 감염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COVID-19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두려움의 차이는 음주의 양과 소비습관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음주 소비 습관은 2019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에서 음주 소비 습관 79.6%와의 비교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Kim, 2019). 또한, 본 연구의 COVID-19의 두려움은 13.73 (± 4.74)으로, 2020

<Table 6> The Correlation of Subject

Variable	Age	Economy	Subjective health state*	Number of health items	Knowledge	Fear	Anxiety	Depression	(N=183)	
									Prevention health behavior of COVID19	
r(p)										
Age	1									
Economy	.09 (.240)	1								
Subjective health state*	.06 (.455)	.23 (.002)	1							
Number of health items	.12 (.110)	-.09 (.241)	.01 (.905)	1						
Knowledge	-.03 (.668)	-.11 (.134)	-.13 (.087)	.10 (.171)	1					
Fear	-.15 (.040)	-.14 (.064)	.02 (.843)	.10 (.201)	.04 (.592)	1				
Anxiety	-.09 (.255)	-.10 (.195)	.06 (.450)	.11 (.137)	.03 (.649)	.45 (.001)	1			
Depression	-.04 (.643)	-.07 (.363)	.19 (.009)	.03 (.715)	-.03 (.707)	.17 (.019)	.63 (.001)	1		
Prevention health behavior of COVID19	-.01 (.860)	-.13 (.076)	-.15 (.047)	.19 (.012)	.18 (.018)	.21 (.004)	.01 (.873)	-.10 (.200)	1	

* Lower score means better health.

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에서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COVID-19의 전국 두려움 12.14 (± 5.03), 19-29세 두려움 11.12 (± 5.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2.21 (± 0.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KSTSS에서 분석한 전국 대상자들도 가족감염이 1.93 (± 0.78)으로 높아 일치하는 결과이다(KSTSS, 2020). 이전 미국의 에볼라 선행연구에서 에볼라의 인식은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촉진시키고 예방행위 실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한 두려움은 예방행위를 촉진시킴을 넘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Kinsman J, 2012; James JJ, 2014). 그러므로 COVID-19로 인한 과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COVID-19 불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COVID-19 관련 전국 선행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일치하였다(KSTSS, 2020). 이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메르스 유행 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불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Kim, 2019). 또한, 메르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불안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Oh & Lee, 2016). 대학생의 COVID-19 불안은 19-29세 불안 4.98 (± 4.53)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우울 항목 중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음'이, 전국과 19-29세는 '불안과 초초'가 가장 높았다(KSTSS, 2020).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전국에 비해 비교적 낮았지만, KSTSS에서 분석한 전국 대상자들에서도 우울 정도는 남자 4.36 (± 4.86), 여자 5.86 (± 5.56)로 여자가 더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STSS, 2020).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안과 우울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등도 운동을 1회에 20분 이상 하는 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낮았다. 이는 운동 강도 중에서 저강도와 중강도의 운동이 우울 증세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했다(김성운, 2006). 다른 선행연구에

서도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우울함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Kirkcaldy & Shephard, 1990; North, McCullagh & Tran, 1990; Yeung, 1996).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내고 있는 대학생 위험군을 발굴해 적극적인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 같은 중재를 마련하고, 대학생의 중등도 운동을 고려해 우울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예방행위에서는 실습 경험 유무와 30분 이상 걷기 운동 유무를 중심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임상 실습을 통해 감염의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 Hong, 2019). 또한 건강관련 행위의 흡연, 음주, 소비, 운동, 건강정보의 습득부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나 30분 이상 걷기를 이행하고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 이행도가 높았다.

COVID-19 감염예방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물품 사용수, 지식, 두려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물품 사용수가 많을수록, 지식수준과 두려움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 수준이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COVID-19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이행을 잘하고 있었다는 일부 연구결과와 유사하다(Park, Chang & Choi, 2018; Kim, 2017; Kim & Park, 2018, Kim & Choi,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통해 COVID-19에 대한 지식과 감염예방행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감염예방행위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활용과 같은 감염예방행위 이행도는 높았으며, COVID-19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 및 참여는 높았다. 대학생과 전국 19-29세

의 두려움, 불안, 우울 정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학생이 전국 19-29세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전국 19~29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생의 두려움, 불안, 우울 정도는 양호했지만 음주량과 빈도가 높을수록 두려움과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불안, 우울 수치는 전국 19-29세에 비해 낮았지만, 두려움은 전국 19-29세에 비해 높았다.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두려움, 불안, 우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건강문제의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시 한 대학교에서 모집단을 추출해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적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추후 다른 관련 연구와 비교분석이 요구되며, COVID-19가 종식되거나 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관련 연구와의 비교분석 또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성운 (2006). 운동강도가 우울증세 여자대학생의 뇌파와 기분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1): 193-205.
- 오대규 (2001). "텔파이기법을 이용한 신중 및 재출현 전염성 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영, 양희정, 김가원, 정해관 & 최보율. (2015). 2015 메르스 유행 시 지역사회 주민의 감염민감도와 예방행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05.04).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l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4341&contSeq=354341&board_id=140&gubun=BDJ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지 (2020.04). 『코로나 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조사.』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Retrieved from <http://kstss.kr/?p=1370>
- Chang, S. J. & Park, J. (2018). Knowledge, attitudes and compliance regarding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s for MERS among staff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334-344.
- Choi, J. S. Ha, J. Y, Lee, J. S, Lee, Y. T, Jeong, S. U, & Shin, D. J., et al. (2015). Factors affecting MERS-related health behaviors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8(3): 150-157.
- Hong, J. Y. (2014). 『Conducting Survey on Behaviors of cough etiquette and Developing Promotion Campaign for preventing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James JJ (2014). *Fearbola*. NJ: Disaster Med Public Health Prep. 8: 465-466.
- Kim, H. S., Park, J., H. (2018). Predictors of MERS-related preventive behaviors performance among clinical practice students in a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174-185.
- Kim, J. H. (2011). *A Study on Legislation Modification to Develop National Abilities to Cope with Epidemics*. NJ: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Kim, J. S. & Choi, J. S. (2016).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related knowledge, preventive behaviours and risk perception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outbreak.

-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17-18): 2542-2549.
- Kim, M. J. (2017). The convergence study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M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49-157.
- Kim, O. S., Oh, J. H., & Lee, K. H. (2016). The Convergence Study on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 Level of ME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3): 59-69.
- Kim, S. D. (2019). Analysis on University Students' Prevention Awareness of EIDs. *JKIAS*, 20(3): 447-454.
- Kim, Y. S. & Hong, S. S. (2019). Awareness about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33(3): 326-339.
- Kinsman J. (2012). "A time of fear":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es to a large Ebola outbreak in Uganda. NJ: Globalization and health.
- Kirkcaldy, B. D., & Shephard, R J, (1990). Therapeutic implications of exerc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 165-184.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04.02). "corona virus disease 19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port of basic control and prevention plan for infectious disease (2013-2017).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_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9245&page=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of Korea Quarantine System (2020a.02.25).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4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of Prevention Measures for the General Public (2020b.02.25).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4.do?brdId=4&brdGubun=44>
- North, T. C., & McCullagh, P. & Tran, Z. V. (1990). Effect of exercise on depress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18, 379-415.
- Park, J. H., Chang, S., Jung., Choi, S. J. (2018).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regarding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4): 252-260.
- Shin, H. J. (2015). Comparison and Research of the Response System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n Domestic and Foreig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Journal*, 14, 171.
- Sim. M. Y. (2020).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The Korean Association fo Internal Medicine*. 95(6): 360-363.
- Vadharuya, A. & Sansgiry, S. S. (2015). Use of health belief model to understand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people towards the Ebola outbreak. *Value in Health*, 18(3): A241.
- WHO (2009).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4102/9789241597906_eng.pdf?sequence=1&isAllowed=y&ua=1.
- Yeung, R. R. (1996). The acute effects of exercise on mood stat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0, 123-141.

Abstract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of COVID-19, mental health statu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focused on the first epidemic period-

Park, Na-Ra, Ryu, Ji-Hong, Nam, Min-Ah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nursing student)

So, Ae-Young(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nursing professor)

Purpose : It was conducted to assess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of COVID-19, mental health statu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on 183 students at the university in W city from 2020.05.11 to 2020.05.18. Research tools include a fear measurement tool(7 questions) developed by the 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KSTSS), and GAD-7(General Anxiety Disorder-7),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which measures anxiety and depression. COVID-19 knowledge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were developed and used by researchers referring to th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Prevention National Code of Conduct' and '2020 Living Prevention Guidelines(draft)'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using SPSS 25.0. **Results** : The fear of COVID-19 in students includes drinking more than once a month($t=2.40$, $p=.017$), and drinking more than 4 cups when they drink alcohol($t=3.02$, $p=.003$). It was higher than never doing it at all. Female students had higher anxiety($t=-2.85$, $p=.005$) and depression($t=-3.51$, $p=.001$) than male. Those drinking alcohol more than once a month had a high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who never($t=2.22$, $p=.028$), and those doing more than 20 minutes of moderate exercise($t=-2.90$, $p=.004$) had a low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no exercising. In addition,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had higher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than students withou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t=2.05$, $p=.042$), and those who consistently practice walking for more than 30 minutes($t=2.89$, $p=.004$) had higher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than those who do not walking exercise.

Key words: COVID-19, Universities, Students, Mental Health, Prevention Behavior

원주시 COVID-19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방역대책 고찰

현상익·유재옥·방민지(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소애영(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이 연구는 원주시의 COVID-19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방역대책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원주시의 COVID-19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확진자 기준으로 발생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주시청 홈페이지 COVID-19 관련 공시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원주시청 및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COVID-19 관련 2차 자료를 분석해 활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집단감염의 발생 현황을 빈도,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결과** 확진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20.2%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이 55.1%, 여성이 44.9%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단구동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확진자의 감염원을 분류한 결과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32.6%로 가장 많았다. 원주시의 정책으로 8월 23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9월 11일부터 PC방,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하였고, 10월 봉산동 소재의 식당에서 다시 한 번 집단감염 일어났다. **결론** 원주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및 편의시설에 인원수 제한 및 예방 수칙 수행 등의 강화된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확진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키워드 : COVID-19, 집단감염, 방역대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2020년 11월 15일 기준

소애영 : aeyoung@gwnu.ac.kr,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상익 : young703420@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유재옥 : maroomong7@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방민지 : qkd9als8wl7@naver.com,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이다.

전체 국가 발생 현황 누적확진자는 54,430,367명, 사망 1,320,23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WHO Dashboard, 2021). 2020년 11월 15일 기준 국내 발생 현황 누적확진자는 28,546명, 사망 49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55.1명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시도별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누적확진자 6,733명, 경기 누적확진자 5,956명, 대구 누적확진자 7,203명 순서로 확진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서울, 경기, 대구, 인천, 경북, 부산, 충남, 경남, 광주, 강원, 충북, 대전, 전북, 울산, 전남, 제주, 세종) 중 10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2020년 11월 15일 기준 394명의 누적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원주의 확진자 수는 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순위로 춘천이 37명으로 많다. 원주시는 차순위 지역과도 큰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차이나며,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주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59.5명으로, 강원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5.5명에 비교하면 단위 인구 당 확진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강원도청, 2021). 따라서 원주시의 COVID-19 확진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2020년 11월 15일 기준 국내 확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59세가 18.2%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연령으로 나타나지만, 사망률은 0.4%로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4.3%의 확진자로 낮은 비율의 확진자 수를 보이지만 사망률은 20.6%로 높은 편에 속한다(질병관리청, 2021). 따라서 성별 및 연령이 COVID-19 확진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연령, 성별, 지역을 설정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가족감염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발생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시행된 강원도 원주시의 방역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막고, 방역대책을 실시한 이후 확진자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접촉하지 않게 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싱가포르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학적 예측 모델에서는 감염자 격리,

휴교, 직장 내 물리적 거리두기 시행의 효과가 감염자의 수를 78.2~99.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최성호, 2020). 원주시의 경우 2020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야별 대책을 실시했으며 원주시 COVID-19 확산차단을 위한 COVID-19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위해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COVID-19 무료진단을 벌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의 확산 예방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 발 COVID-19 확산으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양상을 확인한 원주시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아갔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고려하여 경로당(44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지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국민체육센터·종합운동장 등의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 중앙도서관·건강문화센터·역사박물관·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교육문화시설도 즉시 휴관에 들어갔다(원주시 블로그, 2021). 따라서 이러한 원주시의 대응이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방역대책 실시 후 COVID-19 확진자 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주시의 COVID-19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원주시 COVID-19 방역대책이 감염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방역대책 시행 전후의 확진자 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 1) 원주시 COVID-19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원주시의 COVID-19 방역대책을 파악한다.
- 3) 원주시 COVID-19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예방대책을 비교해 발생한 확진자 수 및 집단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확진자가 줄었는지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의 COVID-19의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기준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지역)과 감염원, 감염경로, 가족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발생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확진자에 대한 2차 자료이다. 원주시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28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8월에 발생한 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 실태와 10월에 발생한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주시청 홈페이지 COVID-19 관련 공시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원주시청 및 원주에서 운영하는 COVID-19 관련 블로그의 2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확진자의 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는 감염경로, 확진일, 확진자 방문 장소로 제한된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주시의 COVID-19 확진자와 관련된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의 2차 자료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확진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지역 등)과 원주시청 홈페이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된 역학조사를 통한 공시자료 등의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감염의 발생 현황을 빈도,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차 유행시기인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COVID-19 확진자의 월별 분포는 8월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9월, 10월은 각각 12.4%, 25.6%로 나타났다. 확진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20.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8.6%, 20대가 14.0%로 뒤를 이었다. 10대 미만의 확진자가 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은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이 55.1%, 여성이 44.9%로 나타났다. 확진자의 감염원을 분류한 결과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차 순위로 기타를 제외하면 다중시설인 식당 및 유치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감염유입에 대한 유형을 보면 지역 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74.4%였으며, 지역 외 확진자 접촉은 9.3%로 나타났다. 또한, 34.1%의 확진자가 가족 간 전파를 통해 감염되었다.

연령별 확진자의 감염원을 확인해 보았을 때 10대 미만 확진자의 감염원은 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한 감염으로 각각 3명,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대, 20대, 30대의 주요 감염원은 체육시설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별 확진자의 70%(10대) 62.5%(20대), 61.5%(30대)를 차지했다. 40대 확진자에서는 음식점, 교육시설 및 기타 감염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각 5명씩 각각 27.8%의 비율을 보여 총 78.9%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확진자에서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보다는 기타 감염원(광화문 집회, 여주 요양원, 교회,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감염의 비율이 43.3%로 높았다(표 1, 그림 1).

〈표 1〉 확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총 대상 수=129)

구분	빈도(퍼센트)	
확진월	8월	80(62.0)
	9월	16(12.4)
	10월	33(25.6)
연령	10대 미만	7(5.4)
	10대	26(20.2)
	20대	18(14.0)
	30대	15(11.6)
	40대	24(18.6)
	50대	15(11.6)
	60대 이상	15(11.6)
	알 수 없음	9(7.0)
성별	남	54(41.9)
	여	44(34.1)
	알 수 없음	31(24.0)
감염원*	체육시설†	42(32.6)
	명륜동 유치원	18(14.0)
	봉산동 'ㄷ' 식당	22(17.1)
	기타‡	27(20.9)
	알 수 없음	20(15.5)
감염유입 유형	지역 내 확진자 접촉	96(74.4)
	지역 외 확진자 접촉	12(9.3)
	해외유입	1(0.8)
	알 수 없음	20(15.5)
가족감염§ 여부	예	44(34.1)
	아니오	76(58.9)
	알 수 없음	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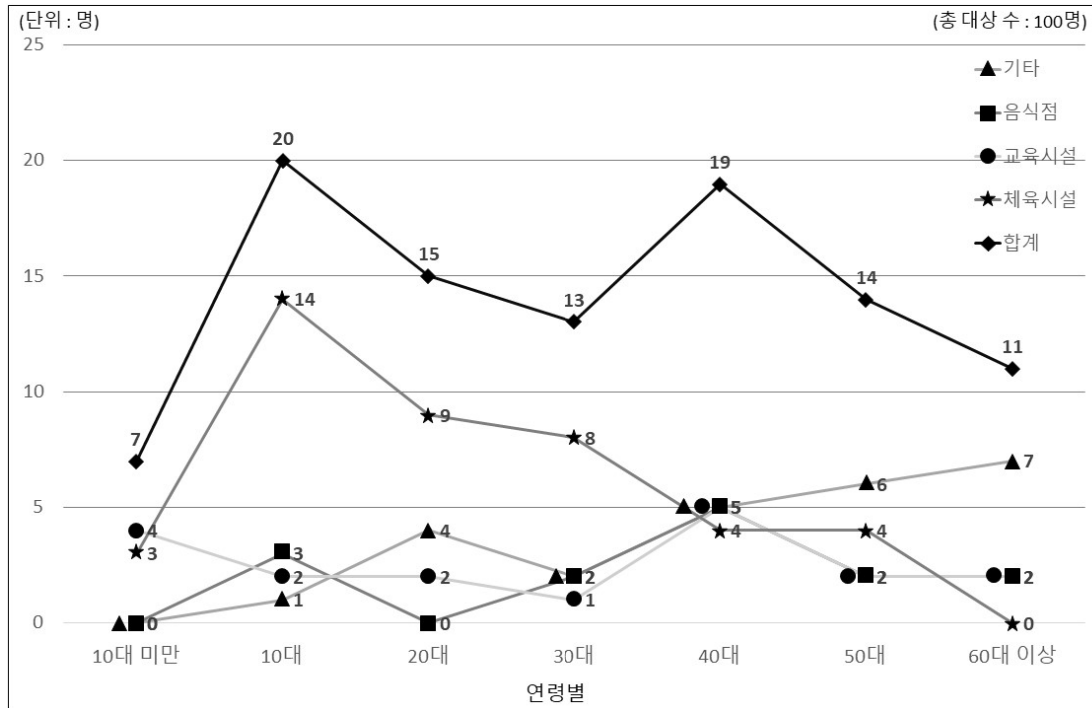
* 감염원 : 확진자가 감염이 된 근원, 확진자 감염의 근원이 된 환자, 보균자 등을 만난 장소

† 체육시설 : 무실동 체조교실, 단구동 헬스클럽

‡ 기타 : 광화문 집회, 여주 요양원, 교회, PC방, 독서실, 이태원 클럽, 해외유입 등

§ 가족감염 : 동거가족을 통한 감염전파의 경우

〈그림 1〉 원주시 COVID-19 인구사회학적 특징



* 2차 자료의 연령 또는 감염원 제시가 되지 않은 대상 29명 제외
 ● 교육시설 : 명륜동 유치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 기타 : 광화문 집회, 여주 요양원, 교회, PC방, 독서실, 이태원 클럽, 해외유입 등

지역별 분포는 단구동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무실동 14.0%, 반곡동 13.2%, 단계동 10.1% 등의 순서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2018 지역사회건강통계의 건강 권역 구분에 따라 서부권, 중앙권, 북부권, 읍면권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르면 서부권이 34.1%, 북부권이 31%로 주를 이뤘

고, 중앙권과 읍면권은 각각 10.1%, 11.6%의 확진자 수를 보였다. 또한, 익명성 검사 등으로 인해 지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3.2%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 단위 지역의 감염자 발생률이 75.2%로 읍면권의 11.6%보다 6.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2).

〈표 2〉 원주시 COVID-19 확진자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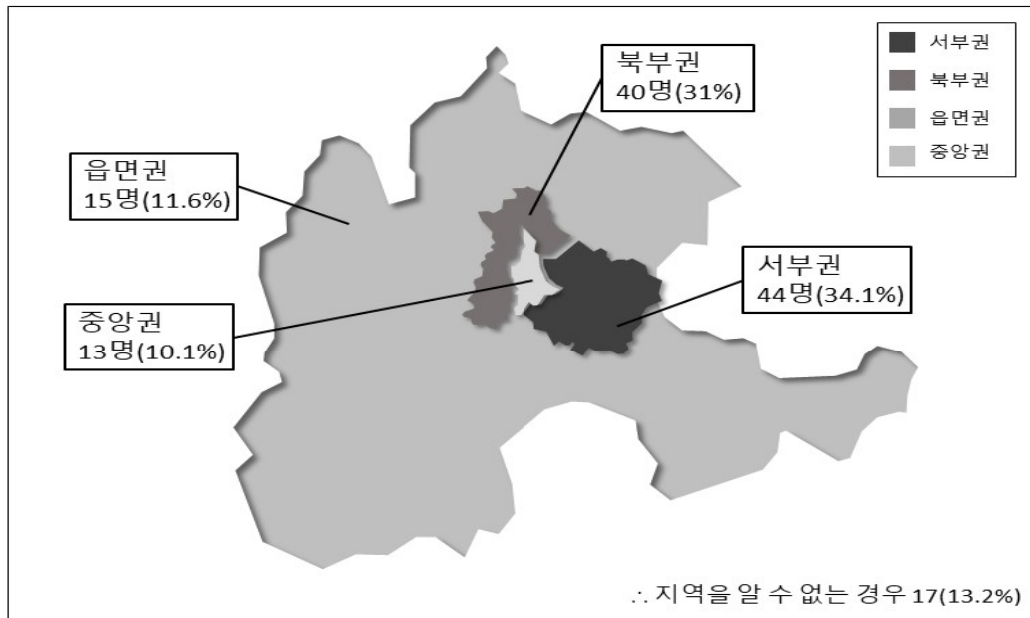
		구분	빈도(퍼센트)
지역*	서부권	단구동	20(15.5)
		봉산동	5(3.9)
		반곡동	17(13.2)
		관설동	2(1.6)
		서부권 합계	44(34.1)
	북부권	무실동	18(14.0)
		단계동	13(10.1)
		태장동	8(6.2)
		우산동	1(0.8)
		북부권 합계	40(31.1)

(총 대상 수=129)

구분		빈도(퍼센트)
중앙권	개운동	7(5.4)
	일산동	1(0.8)
	학성동	2(1.6)
	명륜동	3(2.3)
	중앙권 합계	13(10.1)
원주 동단위 합계		97(75.2)
읍면권	지정면	9(7.0)
	소초면	2(1.6)
	호저면	2(1.6)
	부론면	1(0.8)
	문막읍	1(0.8)
	읍면권 합계	15(11.6)
알 수 없음		17(13.2)

* 지역의 구분 : 2018년 지역사회건강통계의 건강 권역 구분을 따름

〈그림 2〉 원주시 건강 권역별 COVID-19 확진자 분포



* 지도상 음영색이 진할수록 해당 권역 COVID-19 확진자 발생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서부권(단구동, 봉산동, 반곡동, 관설동); 북부권(무실동, 단계동, 태장동, 우산동)

중앙권(개운동, 일산동, 학성동, 명륜동); 읍면권(1읍 8면)

2. 감염원별 유행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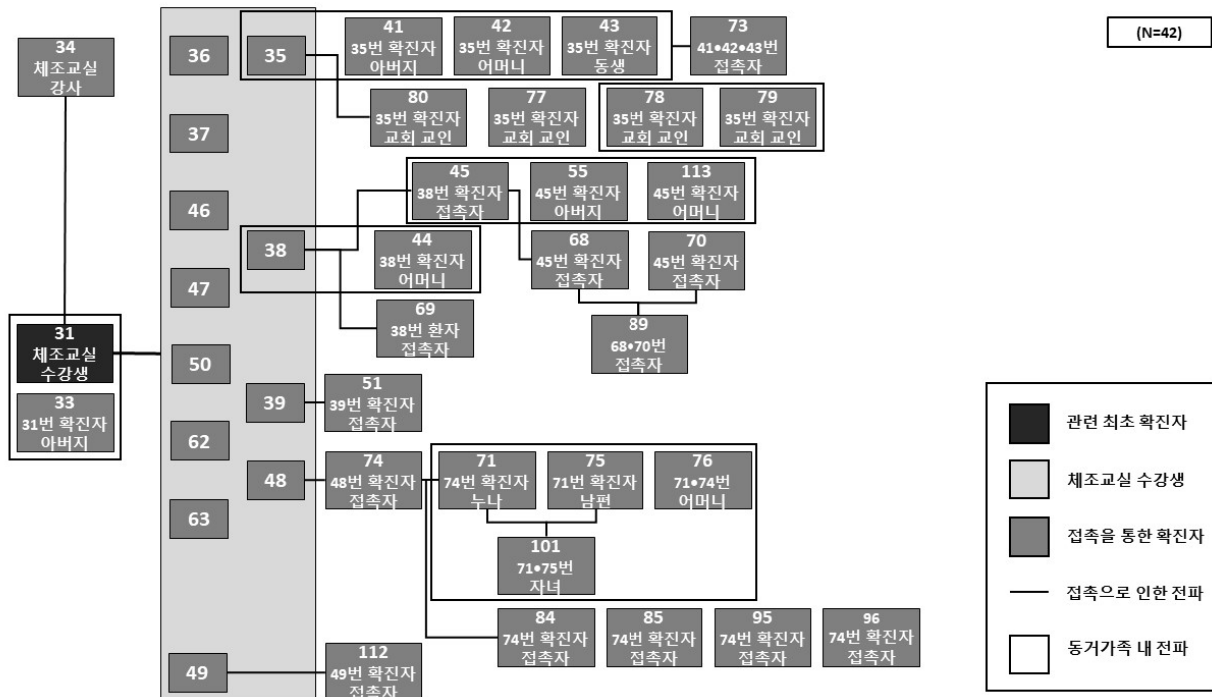
1) 체육시설 집단감염

2020년 8월 19일 확진된 원주시 31번 확진자는 경북 영주에서 COVID-19에 감염되어 원주로 이동하였으며 무실동 소재의 체조 교실을 통한 집단감염의 감염원이 된다. 31번 확진자의 아버지와 체조 교실 강사를 포함하여 14명에게서 31번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1차 감염이 이루어

졌고 이후 n차 감염을 일으켜 총 42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체육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특징은 밀집된 공간 안에서 격한 운동으로 인해 같은 공간의 다수의 접촉자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체육시설의 특성상 젊은 남성 인구가 많았다. 또한, 확진자들에게서 가족감염이 많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기도 했다(그림 3).

〈그림 3〉 원주시 체육시설 관련 COVID-19 집단감염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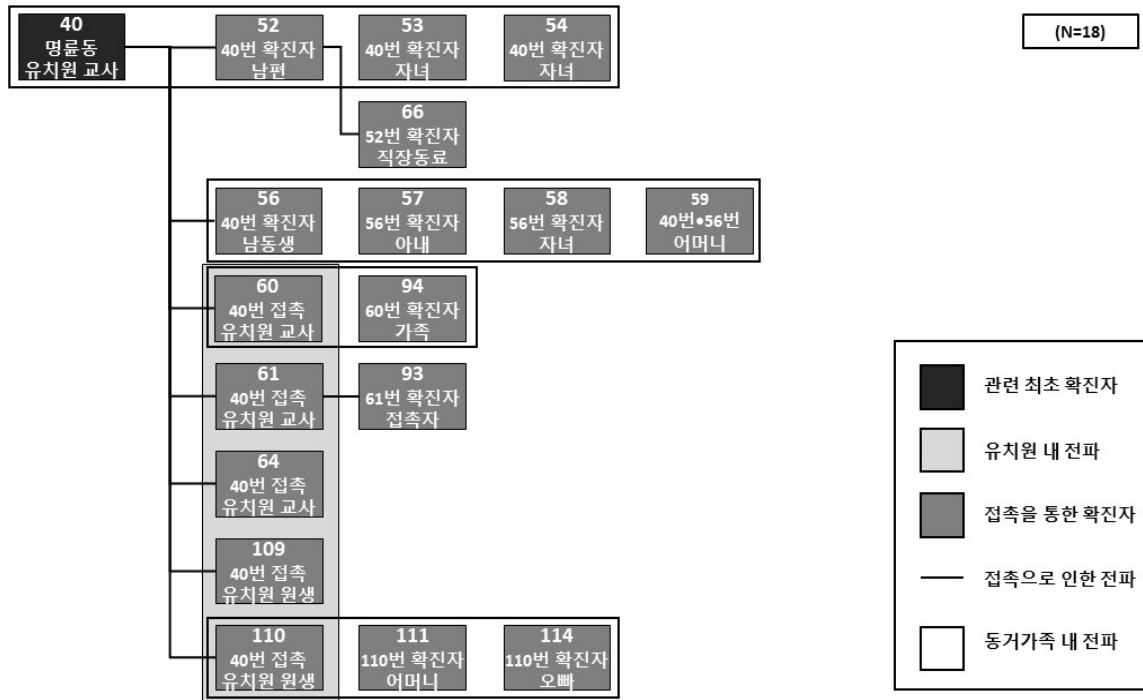


2) 교육시설 집단감염

2020년 8월 20일 확진된 원주시 40번 확진자는 명륜동 병설 유치원 교사로 유행지역 방문을 통해 감염된 후 원주시로 이동하였다. 해당 확진자가 근무했던 유치원은 8월 20일 개학했으며, 확진자는 8월 19일부터 출근하였다(조선비즈, 2020). 해당 교육시설 관련한 집단감염은 다수의 가족 내 전파가 확인되었으며, 8월 22일 40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유치원 직원 중 3명의 교사가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20년 9월 3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COVID-19 검사를 실시한 유치원 원생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10번 확진자의 어머니와 남매도 추가로 가족 내 전파가 이루어져 총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강원도민일보, 2020)(그림 4).

〈그림 4〉 원주시 교육시설 관련 COVID-19 집단감염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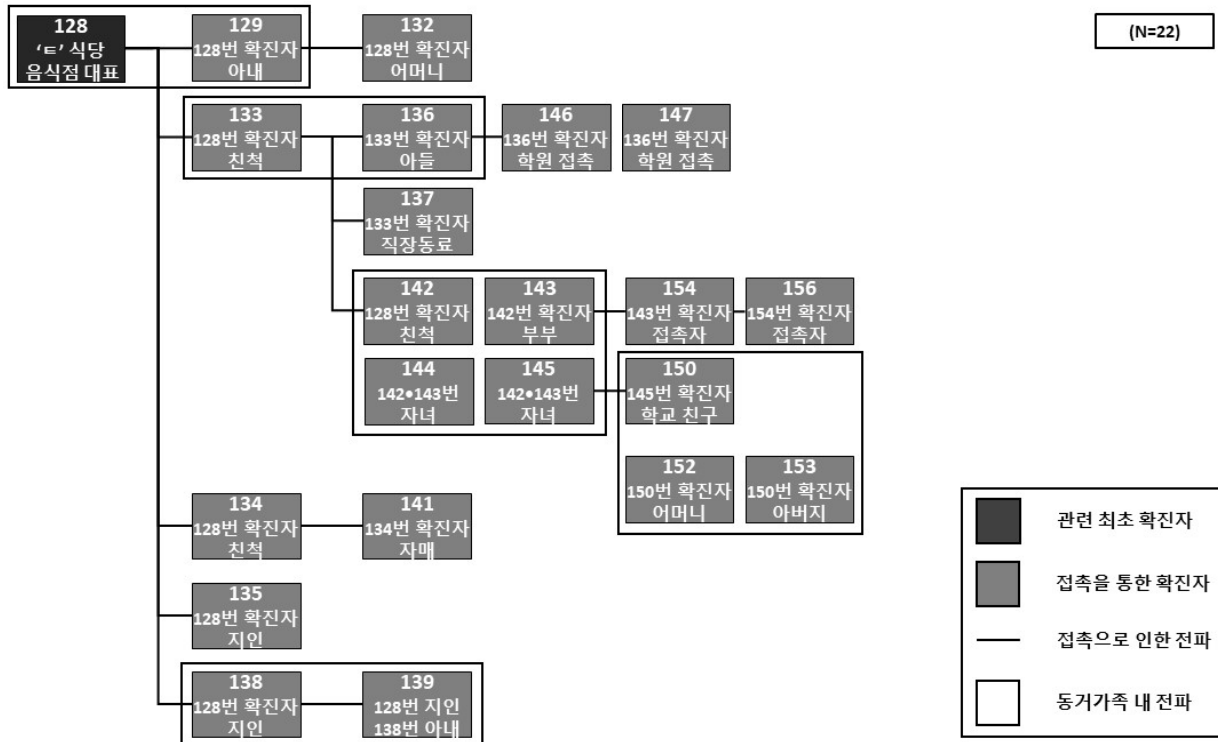
3) 음식점 집단감염

2020년 10월 26일 확진된 원주시 128번 확진자는 봉산동 소재의 'ㄷ'식당 음식점의 대표로 확진 전 본인의 식당에서 친척 및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해당 식당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 해당 모임의 참석자와 접촉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해당 음식점을 통한 집단감염의 특징은 가족, 친척, 지인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최초 128번 확진자의 아내와 어머니는 물론 친척들을 통한 전파로 접촉자들의 직장 동료, 군인, 일가족 4명, 자녀의 학교 친구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홍천, 천안, 제주 등 원주 외의 지역까지 전방위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다(강원도민일보, 2020). 또한 10월에 발생한 집단감염의 감염원이 된 12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원주시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자로, 자료 수집 당시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연합뉴스, 2020),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번 확진자의 정보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14일이 경과되어 공개된 자료가 삭제되었으며 추정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그림5).

〈그림 5〉 원주시 음식점 관련 COVID-19 집단감염 관계도



3. 원주시 COVID-19 방역대책 파악

2020년 8월 16일 원주시 28번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8월 18일 동작 85번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29번, 30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0번 확진자는 29번 확진자의 아내였다. 원주시는 2020년 8월 19일, 서울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로 인해 수도권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31번 확진자를 통한 무실동 체육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8월20일부터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였다. 이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긴급폐쇄하였으며, 관광지 방역과 소독 실시, 복지 및 공공시설 전면 휴관, 보건소 일반진료 중단, 어린이집 휴원 권고 등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8월 23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였다.

원주시의 방역대책 강화에 따라 2020년 9월 5일 마지막 명륜동 유치원 관련 확진자인 115번 확진자 이후로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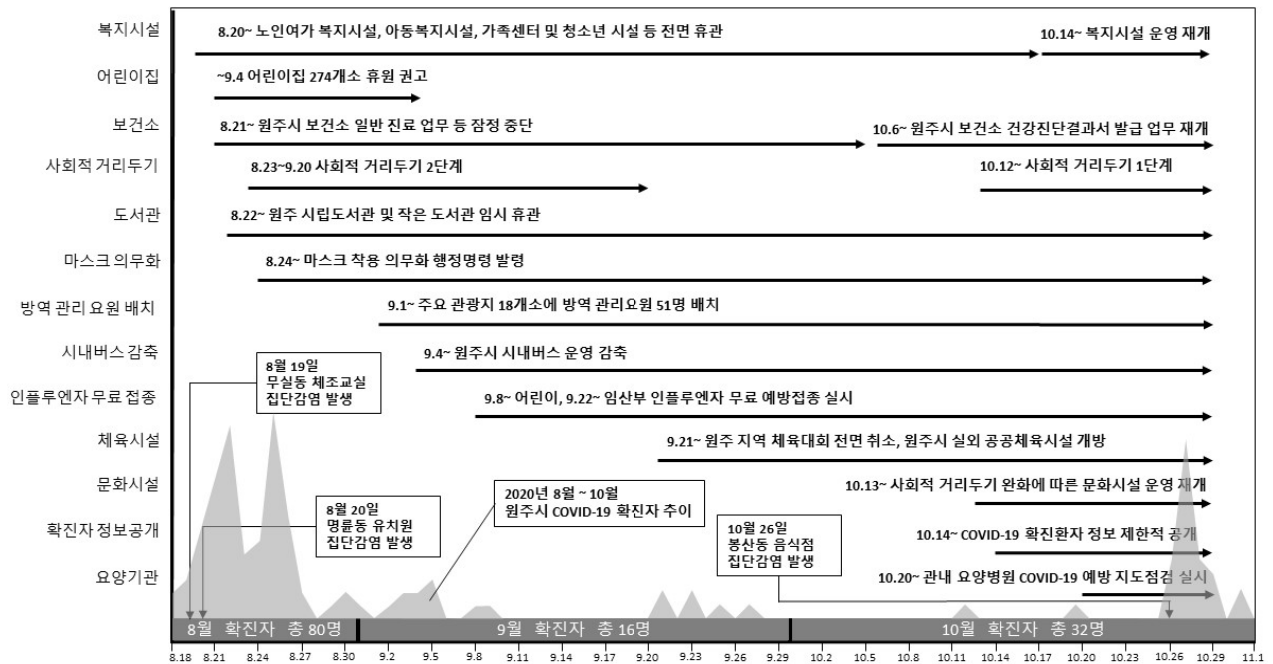
의 COVID-19 확진자는 전 달 80명에 비해 9월 확진자는 16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는 9월 2일 콜센터와 요양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을 매일 전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9월 4일 원주시 시내버스의 운영을 감축하였다.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9월 11일부터 PC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하였고 9월 21일부터 원주시 실외 공공체육시설이 개방되었다.

2020년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과 그에 따른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운영재개 등 집합제한에 대한 조치가 완화되며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26일 여주 요양원 발 감염확산과 봉산동 'E' 식당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원주시는 식당 이용자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식당 방문자와 접촉자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원주시 관내 경로당 452개소 전체를 잠정 폐쇄 조치하였다. 그러나 10월 한 달간 원주시 COVID-19 확진자는 33명으로 9월 확진자 16명보다 증가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학생 간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당국과 협의하였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강조하였다(그림 6).

〈그림 6〉 원주시 COVID-19 2차 유행기간(8~10월)의 방역대책 흐름 및 확진자 발생현황



IV. 논의

COVID-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강원도 원주시가 실시한 감염전파의 방역대책이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적절성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월별 확진자의 주요 감염원을 살펴보았을 때 8월에는 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한 전파가 주요 원인이었다. 원주시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무실동 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n차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 다수 일어났으며 8월 한 달간 관련 확진자가 40여명 발생하였다. 또한, 40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명륜동 교육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총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주시는 다중시설 폐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령별 확진자의 주요 감염원은 체육시설을 통한 10~

30대 확진자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이전 1차 대규모 확산 당시에는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의 확진자가 많았으나 지난 8~10월간의 집단감염 사태에서는 확진자의 연령층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가 주를 이뤘던 1차 대규모 확산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등을 통한 감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의 감염이 늘어난 만큼 무증상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많이 발생하여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6월 19일 00시 기준 국내 COVID-19 확진자는 총 12,306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5,206명(42.3%), 여성 7,100명(57.7%)으로 이는 대구 경북지역의 확진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신천지 교인 중 여성의 빈도가 더 높음에 따른 결과이다. 반면 원주시의 8월 확진자 중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 확진자가 69.6%로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확산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단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확산의 실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꾸준히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을 실시했지만, 원주시의 경우 2020년 5월 역사박물관 운영재개, 금연클리닉 재개,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방역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원주시는 80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지만, 꾸준히 방역 정책을 시행해온 충북의 경우 52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집합제한 조치의 완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7월까지의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 방역대책이 없었으나 2020년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집단감염 이후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아갔다. COVID-19는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고, 유행의 초기라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동선별 접촉자를 확인하여 방역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동선에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한 소독을 시행하여 추가 감염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이창환, 기모란, 2015). 집단감염이 발생한 8월은 원주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관, 어린이집 274개소 휴원을 권고하며 원주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집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경로당 방역 활동을 통해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정책도 있다. 그 결과 8월 확진자 80명에서 9월 확진자 16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집합제한이 완화되었던 9월 11일 이후인 10월에는 확진자가 3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 원주시의 COVID-19 확진자 감염 예방대책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하였다는 제한점으로 확진자들의 정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온갖 종류의 접촉 추적을 활용한 정부의 COVID-19 대응 과정은 'K-방역'으로 불리며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선

공개 및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공존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가져왔다(이근옥, 2020). 따라서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시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감염병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등 긴급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범위, 제한 조건,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이준복, 2020), 지자체 단위에서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 활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의 COVID-19 2차 유행 기간 동안 체육시설, 교육 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의 확진자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였을 때 확진자는 8월에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확진자 중 남성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대부분이었으며 확진자의 34.1%가 가족 간 전파를 통해 감염되었다. 거주지역을 통한 분류로는 단구동이 가장 많았으며, 2018년 지역사회건강통계의 건강 권역 구분에 따르면 기준으로 서부권과 북부권이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주시는 2020년 8월 수도권 COVID-19 확진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

령을 시작으로 복지 및 공공시설 폐쇄, 방역과 소독,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9월 원주시의 COVID-19 확진자 수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C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완화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해 10월 식당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공개된 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자료 분석과 정확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를 조사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원주시 COVID-19 2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며, 추가로 확진된 인구에 대한 확대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원주시 COVID-19 확진자는 대부분 식당, 체육 및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확진자의 정확한 역학조사 및 합리적 방역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 발생 현황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제한에 대한 선별적인 완화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정보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2차 유행 기간이라는 특정 기간만을 연구한 것으로, 추가 확진된 대상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자체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3차 유행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774>
- 강원도청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covid-19.htm>
- 김동휘, 박성준, 강현준, 염은정, 유나은, 이정민, 남은하, 박지혁, 이관(2020). "경상북도 지역의 코로나19 발생률 및 사망률 관련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 제45권(4): 235-244.
- 박병주(20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역학적 특성과 효과적 이차유행 대비.". 『보건의료기술평가』 제8권(1): 1-8.
- 변성수, 배민기(2020).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충북의 대응 방안 모색". 『충북 FOCUS』, 1-21.
- 손창우(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 『정책리포트』, 1-36.
-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 <https://www.wonju.go.kr/health/index.do>
- 원주시청 홈페이지 - <http://covid19.wonju.go.kr/Live.js>
- 이근옥(2020).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무식(2020).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코로나19(COVID-19)극복".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Community Health』 제45권(1): 41-46
- 이준복(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 『강원법학』 제61권: 439-477
- 이창환, 기모란(2015). "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중등 호흡기증후군 유행 경험에서의 교훈". 『대한의사협회지』 제58권(8): 706-713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2020. 10. 7
- 최성호(2020). "코로나19 유행의 방역". 『대한내과학회지』 제95권(3): 134-14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http://ncov.mohw.go.kr/>
- de Paz, Carmen; Muller, Miriam; Munoz Boudet, Ana Maria; Gaddis, Isis(2020). *Gender Dimensions of the COVID-19 Pandemic*.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 Jian-Min Jin, Peng Bai, Wei He, Fei Wu, Xiao-Fang Liu, De-Min Han, Shi Liu and Jin-Kui Yang(2020). "Gender Differences in Patients With COVID-19: Focus on Severity and Mortality". *Public Health*
- Lauren A. Walter, Alyson J. McGregor(2020). "Sex- and Gender-specific Observations and Implications for COVID-19". *West J Emerg Med* 21(3): 507-509

Sobotka, T., Brzozowska, Z., Mutarak, R., Zeman, K., di Lego, V.(2020). "Age, gender and COVID-19 infections". *medRxiv*
Sukbin Jang, Si Hyun Han, and Ji-Young Rhee(2020). "Cluster of Coronavirus Disease Associated with Fitness Dance Classes, South Korea". *Emerg Infect Dis* 26(8): 1917-1920
《강원도민일보》, "원주 음식점·요양시설발 감염, 코로나 19 재확산 뇌관 되나"(2020. 11. 02).
《강원도민일보》, "원주 다양한 연령대·장소서 무더기 확진, 지역

사회 패닉"(2020. 08. 26).
《강원도민일보》, "원주 명륜초 병설유치원 원아 2명 코로나19 확진"(2020. 09. 03)
《조선비즈》, "원주 유치원 교사 코로나 확진...초·중·고 온라인수업 전환"(2020. 08. 21)
《헤드라인제주》, "'제주여행' 원주 142번 확진자 동선 공개... '여행 첫날 증상'"(2020. 10. 28).

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quarantine measures of COVID-19 in Wonju. **Method**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confirm the COVID-19 secondary epidemic in Wonju City, between August 16 and October 31, 2020. The secondary data of COVID-19 outbreak on the Wonju City Hall Website and the Wonju City Blog was used. SPSS 25.0 was used to analyse the data. **Result** There were 109 confirmed **cases of** COVID-19.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enager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20.2%) of total confirmed cases than any other age group. And, by gender, men accounted for a slightly higher proportion (55.1%). The main infectious paths confirmed by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howed several major clusters related to COVID-19. Of the total cases, the proportion of cases was sports facilities 32.6%; 17.1% were restaurants. Due to Wonju's policy, the operation of high-risk facilities was suspended from August 23, but the restriction on pc room, bars, and karaoke was relaxed from September 11, causing another outbreak of group infection at a cafeteria in Bongsan-dong in October. **Conclusion** Wonju City seems to need strengthened quarantine measures, such as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and implementing preventive rules for multi-use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use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ease restrictions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confirmed people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Key words: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Outbreaks, Epidemiological Monitoring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건강인식과 정신건강행위실천

김두경·표수인·이예슬·강서진(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소애영(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인식 및 정신건강행위실천에 대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인식 및 정신건강행위 실천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1개 대학 간호대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정신건강인식, COVID-19 관련 정신건강행위실천 등을 포함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5.0을 이용한 서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고학년이 될수록 COVID-19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행위실천의 경우, 두려움극복행위실천이 가장 높았으며 성장행위실천이 가장 낮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건강인식 및 행위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인식의 경우, 두려움구역인식과 성장구역인식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장구역인식은 정신건강행위실천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적응행위실천과 적응·성장행위실천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성장행위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인 정신건강중재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COVID-19, 대학생, 정신건강, 건강행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 환자를 시작으로

로 약 1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WHO는 2020년 3월 11일 감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며 공공과 개인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한국 정부에서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2020년 1월 20일), 경계에서 심각으로(2020년 2월 24일)

김두경: shkin449@naver.com,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전공분야는 간호학이다.
표수인: tessnfsxo@gmail.com,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전공분야는 간호학이다.
이예슬: ccuancu@gmail.com,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전공분야는 간호학이다.
강서진: seojin369@gmail.com,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전공분야는 간호학이다.
소애영: aeyoung@gwnu.ac.kr,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지역사회간호학이다.

으로 격상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실행하였다(박광호, 이승연 & 김진원, 2020). COVID-19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현재 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COVID-19는 사회 각 계층의 정신건강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상미, 2020).

2020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련 3차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3월 1차 조사에 비해 걱정과 두려움이 증가하였고, 불안은 감소한 반면, 우울은 증가하였다. 이중 본 연구대상과 유사한 20대 연령층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차 조사 시에는 걱정과 두려움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대표적인 연령그룹이다. 불안 정도도 1차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불안위험군의 비율도 1차 조사에서 13.3%이었으나 3차 조사에서 21.3%로 상승하였다. 우울의 경우도 1차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우울 정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이는 COVID-19의 장기화가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학생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며 입학과 대학생활 적응, 학비부담, 진로계획, 취업준비 등의 정상적 발달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가진다(이선혜, 2020). 특히 간호대학생은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겼던 자세에서 언제든지 자신도 감염되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호소하는 등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활동제한으로 인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이창금 & 안준희, 2020). 간호대학생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와 제한, 비대면 수업으로의 참여,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대면 접촉의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한 사회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양정하 & 이윤주, 2020). 이와 같이 COVID-19의 장기화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분석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감염병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의료종사자와 환자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대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 김지윤,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실천행위들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신건강행위 실천 파악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갖는다.

- 첫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인식을 파악한다.
- 셋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행위실천을 파악한다.
- 넷째, 대학생의 정신건강인식, 정신건강행위실천 및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인식 및 정신건강행위실천에 대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정신건강인식모델은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의 두려움 증가와 이를 감소하고, 긍정적 정신건강행위실천 역량 향상을 위해 현재 COVID-19 유행에 대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파악을 목적으로 제시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COVID-19으로 인해 두려움 구역에 머물러 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두려움 구역에 있는 해당 상황들을 겪게 된다. 우리가 삶을 향유하고 순간을 잘 대처하면 성장 구역에 머무를 수 있다. 우리는 성장 구역에 있고 싶지만 성장 구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지지원 등을 통해 적응 구역을 거치게 된다. 즉 적응 구역은 성장 구역으로 가기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신건강인식모델을 구성하는 3가지 구역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구역들을 인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정신건강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Michelle Reugebrink, 2020). 이 모델의 최초 제안자는 미상으로(unknown) 되어 있으나 미국, 영국 등에서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정신건강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등에서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듀크대학 융합의학 분야에서 본 모델에 기초해 “Mindfulness & Resiliency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Mindfulleader의 Mindfulness & Resiliency Program 및 Michelle Reugebrink 소개,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근거로 하여 한글 번역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설문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이다. 제외 기준으로는 현재 휴학 중으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 아닌 자 및 설문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재학생 총수 304명이며 표본수 선정의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표본수

선정프로그램인 Raosoft를 활용하여 오차한계 5%, 신뢰수준 95%, 모집단 수 304, 응답 분포 50%를 적용한 결과 최소 크기는 170이었다. 응답거부 및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총 263명의 응답 설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COVID-19 관련 특성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형태,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를 파악하였고, 코로나 관련 특성으로는 COVID-19 관련 교육이수 경험, 진단검사, 주변인 확진자 유무 및 자가격리 경험을 파악하였다.

2) COVID-19 관련 정신건강인식

COVID-19 관련 정신건강인식 도구는 Dr.Monika Langeh가 보완한 원형 도구(원출처 불분명)를 기초로(그림 1), 번역 및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두려움, 적응, 성장의 세 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려움구역 5문항, 적응구역 6문항, 성장구역 8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두려움구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적응과 성장구역 점수가 높은 것은 COVID-19로 인한 상황 변화에 긍정적 자세로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그림 1〉 정신건강인식 분석 틀



Source: Unknown

Attributed to Dr. Monika Langeh and/or Ken Seidu, Godfrey Okumu from Nigeria and Dr. Anne Mwangi from Kenya(2020)의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 을 기초로 한글로 재구성(Dr. Monika Langeh, 2020)

3) COVID-19 관련 정신건강행위실천

COVID-19 관련 정신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측정을 위해 East Devon(district Council)의 Stay well resource pack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East devon District Council, 2020). 이 도구는 두려움, 적응, 성장 행위 실천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려움 극복 행위 실천 9문항, 적응 행위 실천 9문항, 성장 행위 실천 9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행위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 '네이버 오피스 폼(Naver office form)'을 활용하여 설문지 조사 형태의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내용은 COVID-19 유행 동안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건강인식 및 정신건강행위 실천 정도이며, 소요시간은 약 5~10분이다.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연구 대상자 전원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설문 응답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학생 전체 300명 중 288부의 온라인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중복응답 등의 25부를 제외한 263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전체의 87.7%에 해당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cross sectional study)이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5.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관련 정신건강인식, COVID-19 관련 정신건강행위실천 각각의 평균값은 paired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년별 COVID-19 관련 교육 이수 여부는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COVID-19 관련 정신건강구역 간의 차이는 ANOVA, Scheffé 사후 검증 및 정규분포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분석의 경우는 Kruskal-Wallis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COVID-19 관련 정신건강 각 구역과 실천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COVID-19 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82.5%로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1명(27%), 2학년 60명(22.8%), 3학년 61명(23.2%), 4학년 71명(27%)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 수준은 보통이 77.9%로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8.4%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는 8.7%,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13.7%로 나타났다. COVID-19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8명으로 29.7%이며, 학년별로 분석했을 때 4학년이 37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차순위로 3학년(33.3%), 2학년(12.8%), 1학년(6.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COVID-19 관련 특성

(빈도=263)

구분	특성	구분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자	217 (82.5)
		남자	46 (17.5)
	학년	1학년	71 (27.0)
		2학년	60 (22.8)
		3학년	61 (23.2)
		4학년	71 (27.0)
	거주형태	자택	186 (70.7)
		기타	77 (29.3)
	경제수준 †	낮음	22 (8.4)
		보통	205 (77.9)
높음		36 (13.7)	
나쁨		23 (8.7)	
주관적 건강상태 †	보통	110 (41.8)	
	좋음	130 (49.4)	
	예	78 (29.7)	
COVID-19 관련 특성	COVID-19 관련 교육이수 경험	아니오	185 (70.3)

구분	특성	구분	빈도(%)
	진단검사 여부	예	43 (16.3)
		아니오	220 (83.7)
	주변인 확진	예	11 (4.2)
		아니오	252 (95.8)
	자가격리 경험	예	20 (7.6)
		아니오	243 (92.4)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낮음'과 '낮음'은 '낮음'으로, '매우높음'과 '높음'은 '높음'으로 조정하였음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나쁨'과 '나쁨'은 '나쁨'으로, '매우 좋음'과 '좋음'은 '좋음'으로 조정하였음

2.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인식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구역인식은 1.90±0.69점, 적응구역인식 3.35±0.50점, 성장구역인식 3.68±0.68점이었다. 두려움·적응·성장구역별 인식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구역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 1.98±0.71점, 남학생 1.57±0.49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2, p=.003).

적응구역인식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구역인식(F=7.23, p<.001)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증결과 4학년의 적응구역인식이 3.58±0.50점으로 1학년의 적응구역인식 3.23±0.49, 2학년 3.30±0.45 및 3학년 3.29±0.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구역인식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7.15, p=.028).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성장구역인식이 3.78±0.73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보통(3.58±0.61), 나쁨(3.53±0.64)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성장구역인식이 낮았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COVID-19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인식

(빈도=263)

변수	카테고리	정신건강인식 구역					
		두려움 (1.90±0.69)		적응 (3.35±0.50)		성장 (3.68±0.68)	
		Mean±SD	t, x ² or F (p) Scheffe	Mean±SD	t, x ² or F (p) Scheffe	Mean±SD	t, x ² or F (p) Scheffe
성별	여자	1.98±0.71	3.72 (.003)	3.35±0.51	0.04 (.751)	3.66±0.66	-0.80 (.077)
	남자	1.57±0.49		3.35±0.49		3.75±0.78	
학년	1학년a	1.86±0.62	2.56 (.056)	3.23±0.49	7.23 (<.001) d)a,b,c	3.67±0.73	0.23 (.872)
	2학년b	2.11±0.70		3.30±0.45		3.64±0.62	
	3학년c	1.88±0.80		3.29±0.49		3.65±0.70	
	4학년도	1.79±0.64		3.58±0.50		3.73±0.67	
거주 형태	자택	1.90±0.72	-0.16 (.061)	3.35±0.52	-0.02 (.405)	3.66±0.70	-0.65 (.251)
	기타	1.92±0.63		3.36±0.46		3.72±0.63	

변수	카테고리	정신건강인식 구역					
		두려움 (1.90±0.69)		적응 (3.35±0.50)		성장 (3.68±0.68)	
		Mean±SD	t, χ^2 or F (p) Scheffe	Mean±SD	t, χ^2 or F (p) Scheffe	Mean±SD	t, χ^2 or F (p) Scheffe
경제 수준†	낮음	1.88±0.64		3.23±0.38		3.61±0.67	
	보통	1.89±0.69	0.99 (.609)	3.36±0.51	0.86 (.650)	3.66±0.67	1.97 (.374)
	높음	2.03±0.76		3.38±0.54		3.80±0.74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1.74±0.69		3.30±0.50		3.53±0.64	
	보통	1.97±0.69	3.52 (.172)	3.30±0.49	2.98 (.225)	3.58±0.61	7.15 (.028)
	좋음	1.88±0.70		3.41±0.51		3.78±0.73	
코로나 교육 이수 경험	예	1.72±0.60		3.49±0.49		3.74±0.65	
	아니오	1.98±0.72	-2.82 (.067)	3.30±0.50	2.77 (.939)	3.65±0.69	0.98 (.352)
진단 검사 여부	예	1.75±0.67		3.26±0.47		3.72±0.64	
	아니오	1.94±0.70	-1.64 (.488)	3.37±0.51	-1.41 (.300)	3.67±0.69	0.50 (.335)
주변인 확진	예	1.91±0.58		3.41±0.52		3.83±0.79	
	아니오	1.91±0.70	0.01 (.277)	3.35±0.50	0.37 (.807)	3.67±0.68	0.76 (.535)
자가 격리 경험	예	2.03±0.66		3.16±0.54		3.54±0.73	
	아니오	1.90±0.70	0.83 (.767)	3.37±0.50	-1.82 (.922)	3.69±0.68	-0.95 (.702)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낮음'과 '낮음'은 '낮음'으로, '매우높음'과 '높음'은 '높음'으로 조정하였음/ 비모수 분석(Kruskal-Wallis test)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나쁨'과 '나쁨'은 '나쁨'으로, '매우 좋음'과 '좋음'은 '좋음'으로 조정하였음 / 비모수 분석(Kruskal-Wallis test)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행위 실천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극복행위실천은 3.82±0.56점이었으며, 적응행위실천은 3.35±0.63점, 성장행위실천은 3.28±0.80점이었다.

두려움극복·적응·성장행위실천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두려움극복행위실천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인 경우 3.96±0.58, 보통인 경우 3.70±0.52, 나쁨 경우 3.56±0.48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40$, $p<.001$). 적응행위실천($F=3.48$, $p=.016$)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경우 3.46±0.63, 나쁨

(3.11±0.65), 보통(3.27±0.6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0.01$, $p=.007$). 성장행위실천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인 경우 3.48±0.83, 나쁨인 경우 2.96±0.61, 보통인 경우 3.12±0.7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00$, $p<.001$). 결과적으로 두려움극복·적응·성장행위실천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성장행위실천($F=2.55$, $p=.040$)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장행위실천은 경제수준이 높음으로 인식한 경우 3.62±0.70으로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 3.05±0.74,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3.25±0.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행위 실천

(빈도=263)

변수	카테고리	정신건강행위실천 구역					
		두려움 (3.82±0.56)		적용 (3.35±0.63)		성장 (3.28±0.80)	
		Mean±SD	t, x2 or F (p) Scheffe	Mean±SD	t, x2 or F (p) Scheffe	Mean±SD	t, x2 or F (p) Scheffe
성별	여자	3.81±0.56	-0.51 (.744)	3.37±0.65	0.86 (.340)	3.27±0.81	-0.51 (.462)
	남자	3.86±0.58		3.28±0.56		3.34±0.76	
학년	1학년a	3.69±0.57		3.25±0.64		3.18±0.78	
	2학년b	3.81±0.58	2.61 (.052)	3.36±0.61	2.12 (.098)	3.34±0.75	1.59 (.193)
	3학년c	3.80±0.56		3.29±0.62		3.18±0.84	
	4학년d	3.95±0.53		3.50±0.65		3.42±0.82	
거주 형태	자택	3.83±0.55	0.75 (.555)	3.34±0.64	-0.50 (.891)	3.24±0.81	-1.35 (.724)
	기타	3.78±0.59		3.38±0.63		3.39±0.77	
경제 수준†	낮음	3.75±0.45		3.14±0.56		3.05±0.74	
	보통	3.80±0.57	1.85 (.397)	3.36±0.66	3.45 (.178)	3.25±0.81	9.60 (.008)
	높음	3.94±0.56		3.41±0.53		3.62±0.70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3.56±0.48		3.11±0.65		2.96±0.61	
	보통	3.70±0.52	22.40 (<.001)	3.27±0.62	10.01 (.007)	3.12±0.75	17.00 (<.001)
	좋음	3.96±0.58		3.46±0.63		3.48±0.83	
관련 교육 이수 경험	예	3.88±0.54	1.16 (.361)	3.45±0.62	1.70 (.978)	3.39±0.80	1.35 (.626)
	아니오	3.79±0.57		3.31±0.64		3.24±0.80	
진단 검사 여부	예	3.76±0.64	-0.70 (.205)	3.29±0.67	-0.73 (.988)	3.13±0.88	-1.34 (.115)
	아니오	3.83±0.55		3.36±0.63		3.31±0.78	
주변인 확진	예	3.70±0.67	-0.72 (.496)	3.55±0.71	1.04 (.686)	3.60±0.78	1.32 (.555)
	아니오	3.82±0.56		3.34±0.63		3.27±0.80	
자가 격리 경험	예	3.68±0.61	-1.10 (.696)	3.13±0.58	1.64 (.250)	3.13±0.88	-0.90 (.811)
	아니오	3.83±0.56		3.37±0.64		3.30±0.80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낮음'과 '낮음'은 '낮음'으로, '매우높음'과 '높음'은 '높음'으로 조정하였음 / 비모수 분석(Kruskal-Wallis test)

‡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해당 구간의 빈도수가 낮아 '매우나쁨'과 '나쁨'은 '나쁨'으로, '매우 좋음'과 ' 좋음'은 ' 좋음'으로 조정하였음 / 비모수 분석(Kruskal-Wallis test)

4. 정신건강인식, 정신건강행위 실천 및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학년은 성장구역과 행위실천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적응구역인식의 ($r=.24, p<.001$), 두려움극복 행위실천($r=.16, p=.009$), 적응행위실천($r=.18, p=.040$)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구역인식이 좋고 두려움극복·적응행위실천을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r=.22,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수준은 성장행위실천($r=.18, p=.003$)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적응구역인식($r=.15, p=.017$), 성장구역인식($r=.17, p=.006$), 두려움극복행위실천($r=.31, p<.001$), 적응행위실천($r=.20, p<.001$), 성장행위실천($r=.28,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적응, 성장구역 인식이 좋고 두려움, 적응, 성장행위실천을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구역인식은 정신건강인식 및 정신건강행위실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구역인식은 성장구역인식($r=.49, p<.001$), 두려움행위실천($r=.52, p<.001$), 적응행위실천($r=.53, p<.001$), 성장행위

실천($r=.49, p<.001$)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장구역인식은 모든 정신건강행위실천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장구역인식정도가 높을수록 두려움행위실천($r=.66, p<.001$), 적응행위실천($r=.65, p<.001$), 성장행위실천($r=.55, p<.001$)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려움행위실천은 적응행위실천($r=.63, p<.001$), 성장행위실천($r=.6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응행위실천은 성장행위실천($r=.7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정신건강인식, 정신건강행위 실천 및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빈도=263)

카테고리	학년	경제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실천		
				두려움 구역	적응 구역	성장 구역	두려움 행위	적응 행위	성장 행위
r (p)									
학년	1								
경제 수준	-.03 (.588)	1							
주관적 건강 상태†	.03 (.606)	.22 (<.001)	1						
인식	두려움 구역	-.07 (.266)	.02 (.722)	-.04 (.577)	1				
	적응 구역	.24 (<.001)	.03 (.636)	.15 (.017)	-.02 (.775)	1			
	성장 구역	.03 (.588)	.02 (.706)	.17 (.006)	-.01 (.860)	.49 (<.001)	1		
실천	두려움 행위	.16 (.009)	.07 (.261)	.31 (<.001)	-.06 (.321)	.52 (<.001)	.66 (<.001)	1	
	적응 행위	.13 (.040)	.05 (.440)	.20 (<.001)	-.01 (.844)	.53 (<.001)	.65 (<.001)	.63 (<.001)	1
	성장 행위	.09 (.170)	.18 (.003)	.28 (<.001)	-.03 (.611)	.49 (<.001)	.55 (<.001)	.62 (<.001)	.70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값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함.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COVID-19는 2020년 1월에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약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COVID-19은 비말·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예방대책으로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 3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전파로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격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고립, 외출 자제 등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많은 감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감염병 유행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환자 24명의 70.8%가 우울, 불면, 긴장, 공격성,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었고, 2003년 홍콩에서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SARS)과 2014년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유행한 에볼라(Ebola)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불러일으켰다(이은환, 2020). 이와 마찬가지로 COVID-19 관련 최근 정신건강실태조사(2020년12월) 결과, 20대의 걱정·두려움·불안·우울·자살사고 등이 1·2·3차 조사를 거쳐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학년이 높아질수록 COVID-19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이론과 임상실습 과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감염병의 심각성 및 전파방법, 감염병 예방 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러한 요인이 COVID-19 관련 교육이수경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 학년 대상 감염병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COVID-19 관련 교육이수경험과 정신건강행위실천 간에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인식의 경우, 두려움구역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성장구역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COVID-19 유행에 긍정적인 적응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건강행위실천의 경우, 두려움극복행위실천이 가장 높았으며, 성장행위실천이 가장 낮았다. Michelle Reugebrink는 두려움·적응·성장구역 순서를 거쳐 정신건강이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Michelle Reugebrink, 2020). 따라서 정신건강행위실천 조사 결과, 성장행위실천이 가장 낮은 것은 대상자들이 현재 성장구역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성장행위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학교 측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두려움구역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루어진 국내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COVID-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등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여성이 전체의 1/4가량을 차지하였고, 자살생각을 한다고 답변한 여성은 지난 3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이러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본 연구의 성별 간 두려움구역인식 차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적응구역인식은 정신건강행위실천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구역인식 또한 정신건강행위실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인이 적응·성장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이므로 정신건강인식과 정신건강행위실천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두려움극복행위실천과 적응·성장행위실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위실천은 성장행위실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구역 분석 틀을 보면, 각 구역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상호관련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확히 한 구역에 속하는 행위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역의 행위 또한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응구역에 속한 대상자의 경우, 적응행위 뿐만 아니라 두려움극복행위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실천구역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령층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졌으며, 특히 청장년층일수록 더 많은 건강행위가 사

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이정민 외, 2012). 또한 본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건강인식 및 행위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은 성장행위실천 이외에 정신건강인식 및 행위실천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정신건강에 경제수준이 관련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현재 COVID-19의 범유행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수준과 정신건강인식 및 행위실천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두려움구역인식과 각 정신건강행위실천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에 머무는 대상자가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행위를 실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Michelle Reugebrink는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를 설명하며 대상자들이 자신이 속한 구역들을 인식하는 것이 상위의 정신건강구역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Michelle Reugebrink, 2020). 이는 자신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COVID-19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행위실천과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정신건강인식이 정신건강행위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학년이 오를수록 COVID-19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인식은 성장, 적응, 두려움 순으로 높았으며, 정신건

강행위실천은 두려움극복, 적응, 성장행위실천 순으로 높았다. 적응구역인식은 정신건강행위실천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두려움구역인식과 정신건강행위실천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잘 파악할수록,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신건강 진단도구 및 정신증제 프로그램을 조직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학과 특성상 남녀 표본의 비율이 대등하지 못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기회 제공 및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금 지원 및 근로 장학생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성장행위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건강행위실천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단위로 학년 중심의 포레집단을 통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들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VI. 참고문헌

- 박광호, 이승연, 김진원(2020).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3), 69-86.
- 박상미(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5), 83-91.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a). 『2020년 1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b). 『2020년 2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c). 『2020년 3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이선혜(2002).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행태: 정신건강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함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13, 36-57.
- 이창금, 안준희(2020). “간호대학생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142-152.
- 양정하, 이윤주(2020).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 COVID-19 비확진자 대상으로”. 산업융합연구 (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18(6), 85-98.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Michelle Reugebrink(2020).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 - <https://dochub.clackamas.us/documents/drupal/94946e81-2cc3-4cf4-b0bf-e68fb8b33ff6>
- Mindfulleader의 Mindfulness & Resiliency Program 및 Michelle Reugebrink 소개 - <https://www.mindfulleader.org/michelle-reugebrink>
- East devon District Council(2020).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 - <https://eastdevon.gov.uk/coronavirus-covid-19/your-wellbeing/stay-well-resource-pack/who-do-i-want-to-be-during-covid-19/>
- 이은환(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이정민, 김원중, 손혜숙, 전진호, 이명진, 박현숙(2012). “연령층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317-327.
- Dr. Monika Langeh and/or Ken Seidu, Godfrey Okumu from Nigeria and Dr. Anne Mwangi.(2020). ‘Who do I want to be during COVID-19’
-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2월 23일). 세종: 보건복지부
- WHO(2020).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Abstract

Mental Health Recognition and Mental Health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Dugyeong Kim, Suin Pyo, Yeseul Lee, Seojin Kang

(Student, Dep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

Aeyoung So(Professor, Dep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

Purpose: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of the mental health recognition and mental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recognition model.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on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es 1 through 4 including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OVID-19-related characteristics, COVID-19 mental health recognition, and COVID-19 mental health behaviors.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5.0.

Resul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higher grade, the more experienced the completion of COVID-19-related education. In the case of mental health behaviors, the fear overcoming behavior was the highest, and the growth behavior area was the lowest.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better the self-rated health, the higher the mental health awareness and behavior. In the case of mental health awareness, fear zone recognition and growth zone recogni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The adaptation and growth zone recognition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mental health activities. The fear and adaptation behavior, the adaptation and growth behavior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Organized mental mediation programs are required at the school level so that subjects can gradually practice growth behavior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ols to identify mental health conditions, educational programs, and support psychological counseling.

Key words: COVID-19,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s

부 록

〈COVID-19 예방 행동수칙 실천 정도〉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보통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1. 사람들과 최소 1m 거리를 유지한다.					
2.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한다.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는다.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한다.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을 확인한다.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한다.					

〈정신건강인식(두려움, 적응, 성장)〉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보통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두려움구역〉					
1. 당장 필요 없는 식품, 화장지 및 약 등을 사재기한다.					
2. 두려움, 분노를 주변에 드러낸다.					
3. 불평, 불만이 많다.					
4. 내가 받은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주변에 퍼뜨린다.					
5. 쉽게 화를 낸다.					
〈적응구역〉					
1.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하려고 한다.					
2.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3. 나의 감정들을 잘 살피고 돌본다.					
4.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보통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5. COVID-19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장구역>					
1. COVID-19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떻게 도울지 생각한다.					
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 재능을 살린다.					
3.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으나, 미래에 희망을 갖는다.					
4. 나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공감한다.					
5.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6. 행복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에 희망을 전한다.					
7.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8.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정신건강행위실천(두려움, 적응, 성장구역)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보통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두려움구역>					
1. 정보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한다.					
2.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3.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한다.					
4. 적절한 영양을 섭취한다.					
5.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6.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겁게 생활한다.					
7. 술 또는 약품 사용을 자제한다.					
8. 가족,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한다.					
9.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적응구역>					
1. 지역사회에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친밀한 존재와 공감적인 소통을 한다.					
3.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보통 하였다	자주 하였다	항상 하였다
4. 현재에 집중한다.					
5. 대중매체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6.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한다.					
7.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한다.					
8.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9.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					
<성장구역>					
1.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심호흡한다.					
2.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한다.					
3.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4.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명상한다.					
5. 매일 감사한 일에 대해 메모한다.					
6. 건강한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해 운동한다.					
7.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 취미활동을 한다.					
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본다.					
9.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본다.					

대학생의 손씻기와 구강위생에 대한 비교연구

황다연·오현석·한지훈·공은미·박미래·한승하(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근면(강릉원주대 간호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 즉 간호대학생과 비간호대학생의 개인위생에 관한 지식 및 실태를 비교하고 개인위생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손씻기와 구강위생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20년 4월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간호대학생 102명, 비간호대학생 97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손씻기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도를 조사하였고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도는 간호대학생이 비간호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구강위생은 수행도에서 간호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과 비간호대학생의 손씻기 수행도에 가장 영향하는 변수는 모두 손씻기에 대한 태도였고 구강위생수행도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 비간호대학생의 경우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이 가장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대상자의 전공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인위생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개인위생, 손씻기, 구강위생, 간호대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기는 초기성인기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건강습관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고 이 시기에 습득하게 되는 건강 행위와 관련된 습관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중년기, 노년기까지의 건강상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는 매우 낮아 위대한 건강습관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하다(이지현, 2018).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활동영역이 넓어 다양한 유형의 인구집단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들이 접하는 인구집단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도 손씻기와 구강위생과 같은 비용효과적인 건강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이지현 등, 2018). 또한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행동은 사회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종도, 신두만, 박종탁, 2012).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손씻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인 20대 연령층의 손씻기 실천율이 낮았으며 위생과 관련된 교육의 경험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씻기 횟수나 손씻는 시간 또한 낮은 결과가 나왔다(이지현 등, 2018).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씻기 인식률에 비해 실천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정명진, 2016). 이에 올바른 손씻기라는 건강증진 활동을 교육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손씻기를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임상실습 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씻기 지식에 관한 편차가 크고 손씻기 수행점수의 범위가 넓어 올바른 손씻기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이지현 등, 2018). 또한 아직까지 보건계열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가 적고,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개인위생 관련 지식, 태도나 수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전공 즉, 간호계열 대학생과 간호계열이 아닌 대학생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를 비교하고 개인위생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구강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학생 대상의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교육 사업은 미흡하다. 구강보건지식, 잇솔질 횟수와 시간, 잇솔질 시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등이 구강보건 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및 개인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종도 등, 2012). 더불어 보건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보건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차별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강보건행태가 자신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보다 구강보건 행태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도 등, 2012). 이를 위해서는 이 시기의 구강보건 행태가 삶의 구강보건 행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분석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전공 즉 간호계열 학생과 간호계열이 아닌 학생의 개인위생에 관한 지식 및 실태를 비교하고 개인위생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손씻기와 구강위생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인위생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현재 강원도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 전공 대학생과 비간호계열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집하였고 손에 피부질환이 있거나 상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손씻기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1학년의 경우 간호학과는 교양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전공이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각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간호 전공 대학생과 비간호 전공 대학생의 손씻기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정도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연구이다.

3. 연구 도구

1) 손씻기에 대한 지식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질병관리본부의 손씻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서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토대로 Lee와 Park(이무식, 박윤진,

2014)이 수정한 손씻기에 대한 인식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 사용 전 이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 및 손씻기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15문항의 이분형 척도로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64$ 였다.

2) 손씻기에 대한 태도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Park 등(박대권 등, 2008)의 손씻기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고등학생의 손씻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이메일로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손씻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반드시 해야 한다'가 4점으로 점수범위는 6~24점이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Park 등(박대권 등,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였다.

3) 손씻기에 대한 수행도

손씻기에 대한 수행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손씻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토대로 Lee와 Park(이무식, 박윤진, 2014)이 수정한 손씻기 이행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 사용 전 이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하루 중 손씻는 횟수, 손씻기 방법, 손씻는 부위, 가정에서와 외출 시의 상황별 손씻기 습관에 관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씻기 실태 8문항, 외출 시의 상황별 손씻기는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하루 손씻기 횟수,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사용한 횟수, 손씻기 평균 시간, 손씻기 방법, 손씻기 후 물기제거 방법, 손씻기 후 수도꼭지 잡그는 방법의 각 문항 당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선택했을 경우 1점, 그 외의 답을 선택했을 경우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

다. 손씻기 시 비누나 손세정제 사용 정도는 '항상 사용한다' 5점, '자주 사용한다' 4점, '가끔 사용한다' 3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씻기 부위는 '한 두 부위 국한 시' 0점, '손바닥, 손등, 깍지 포함 시' 1점, '모두 포함 시'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에 대한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Park(이무식, 박윤진, 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였다.

4) 구강보건지식

충치 발생의 주된 원인, 충치의 전염 가능성 여부, 잇몸병 주된 원인, 잇몸 질환의 영향, 칫솔질의 구취 예방 효과, 스켈링 부작용,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 금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구강질환,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효과,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 당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선택했을 경우 1점, 그 외의 답을 선택했을 경우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박홍련 등, 2009).

5) 구강보건태도

정기적 치과 검진기간, 스켈링 받은 경험, 치과에 가는 이유, 최근 1년 사이 치과 방문여부, 치아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총 5문항으로 각 문항 당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선택했을 경우 1점, 그 외의 답을 선택했을 경우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박홍련 등, 2009).

6) 구강보건행동

하루 칫솔질 횟수, 1회 칫솔질 시간, 칫솔질 방법, 자신에게 맞는 칫솔질 방법 시행여부, 자신에게 알맞은 구강 위생용품과 보조용품 사용여부, 총 5문항으로 각 문항당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선택했을 경우 1점, 그 외의 답을 선택했을 경우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비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이 바른 것으로 하였다(박흥련 등, 2009).

2.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각 학과의 허락을 얻은 후 각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 중간에 참여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16일~ 6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최종 연구참여 대상자는 간호학과 102명, 비간호계열학과 학생 97명으로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손씻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t-test를 시행하였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시행하였다. 손씻기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생은 남성이 23.4%, 여성이 75.7%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0.92 ± 2.17 세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25.2%, 2학년 25.2%, 3학년 20.4%, 4학년 29.1%를 차지하였으며, 부모 학력은 대졸의 응답률이 아버지 52.4%, 어머니 59.2%로 나타났다. 가족 연 소득은 2000만원 미만 7.8%, 4000만원 미만 24.3%, 6000만원 미만 35.9%, 6000만원 이상 32.0%를 차지했다. 흡연은 92.2%의 학생이 비흡연자로 응답했으며, 음주 횟수는 안 한다가 30.1%, 3일 1회 이상 5.8%, 1주일 1회 이상 23.3%, 한 달 1회 이상이 40.8%를 차지했다. 간식횟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안 한다 12.6%, 1일 1회 이상 57.3%, 1일 2회 이상 22.3%, 1일 3회 이상 7.8%로 나타났다.

비간호대생은 남성 37.8%, 여성 62.2%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21.03 ± 1.97 세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9.4%, 2학년 19.4%, 3학년 33.7%, 4학년 27.6%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 학력은 44.9% 고졸, 45.9% 대졸로 응답하였고 어머니 학력은 52.0% 고졸, 42.9% 대졸로 응답하였다. 가족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6.1%, 4000만원 미만 22.4%, 6000만원 미만 38.8%, 6000만원 이상 32.7%를 차지했다. 흡연은 87.8%의 학생이 비흡연자로 응답했으며, 음주 횟수는 안 한다가 22.4%, 3일 1회 이상 12.2%, 1주일 1회 이상 18.4%, 한 달 1회 이상이 46.9%를 차지했다. 간식횟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안 한다 18.4%, 1일 1회 이상 62.2%, 1일 2회 이상 13.3%, 1일 3회 이상 6.1%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Nursing Students	Non-Nursing Students
Age		20.92 ± 2.17	21.03 ± 1.97
Gender	Male	23.4	37.8
	Female	75.7	62.2
Grade	1 st	25.2	19.4

Variable	Category	N(%)	
		Nursing Students	Non-Nursing Students
Income (Manwon/Year)	2 nd	25.2	19.4
	3 th	20.4	33.7
	4 th	29.1	27.6
	~2000	7.8	4.1
Smoking	2001~4000	24.3	1.0
	4001~6000	35.9	44.9
	6001~	32.0	45.9
Alcohol	Yes	7.8	4.1
	No	92.2	2.0
Number of snacks	No	30.1	1.0
	Once a day	0	52.0
	One or more times a day	5.8	42.9
	Once a week	23.3	2.0
	Once a month	40.8	6.1
Number of snacks	No	12.6	22.4
	Once a day	57.3	38.8
	Twice a day	22.3	32.7
	Three or more times a day	7.8	12.2

2.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위생과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차이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생은 평균 0.94±0.06점, 비간호대생 0.91±0.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8, p<.001).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생은 평균 3.62±0.367점, 비간호대생 3.54±0.3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68, p=0.09). 손씻기 수행도는 간호대생 평균 2.66±0.323점, 비간호대생 2.653±0.35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7, p=.006).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의 차이분석 결과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생은 0.74±0.12점, 비간호대생은 0.70±0.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4, p=.009).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생은 0.60±0.29점, 비간호대생은 0.55±0.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19, p=.23). 구강위생에 대한 수행도는 간호대생은 0.47±0.22점, 비간호대생은 0.39±0.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1, p=.013). 1학년을 제외한 결과,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t=2.64, p=.009) 과 수행도(t=2.51, p=.013)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태도(t=1.19, p=.23)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Table 2〉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Hand washing & Oral Hygiene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Variables		Nursing Students(N=102)	Non-Nursing Students(N=97)	t	p
Hand Washing	Knowledge	0.94±0.06	0.91±0.08	3.58	<.001
	Attitude	3.62±0.36	3.54±0.33	1.68	.09
	Performance	2.66±0.35	2.65±0.32	2.77	.006
Oral Hygiene	Knowledge	0.74±0.12	0.70±0.12	2.64	.009
	Attitude	0.60±0.29	0.55±0.24	1.19	.23
	Performance	0.47±0.22	0.39±0.26	2.51	.013

3.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위생과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손위생 수행도 간의 관계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손씻기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3〉과 같다. 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r=.25, p=.012$), 손씻기에 대한 태도와 손씻기 수행도는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왔다($r=.40, p<.001$).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손씻기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9, p=0.33$).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9, p<0.06$).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태도와 손씻기 수행도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왔다($r=.37, p<.001$).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손씻기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3, p=0.17$).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상황별 구강위생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63, p=.007$).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r=-0.04, p=0.62$),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01, p=.880$).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2, p=.028$).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r=.11, p=.260$),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8, p=.060$).

〈Table 3〉 Correlation of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Hand wash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Variables		Nursing Students(N=102)		Non-Nursing Students(N=97)	
		Knowledge r(p)	Attitude r(p)	Knowledge r(p)	Attitude r(p)
Hand washing	Attitude	.25 (.012)		.19 (.16)	
	Performance	.09 (.33)	.40 (<.001)	.13 (.17)	.37 (<.001)
Oral hygiene	Attitude	.01 (.880)		.11 (.26)	
	Performance	-.04 (.620)	.26 (.007)	.22 (.028)	.18 (.060)

4. 손위생과 구강위생 수행도 영향요인

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0~1.06으로 모든 변수에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간호대생은 1.97, 비간호대생은 1.77로 자기상관이 없어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에 영향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손씻기에 대한 태도($\beta=.39, p<.001$)가 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도를 약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beta=-.20, p=.98$)은 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18.48, p<0.01$). 비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손씻기에 대한 태도($\beta=.37, p<.001$)가 비간호대생의 손씻기 수행도를 약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비간호대

생의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14.99, p<0.01$).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0~1.01으로 모든 변수에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간호대생 1.77로 비간호대생 2.34로 자기상관이 없어 오차 항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생은 구강보건 태도($\beta=.26, p=.007$)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수행도를 6.9%를 설명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간호대생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beta=.22, p=.028$)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수행도를 4.9% 설명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of hand wash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Variables	Nursing Students(N=102)		Non-Nursing Students(N=97)		
	β	p	β	p	
Hand washing	Knowledge	-.20	.980	-.07	.470
	Attitude	.39	<.001	.37	<.001
		R ² =.15, F=18.48, $p<0.01$		R ² =.13, F=14.99, $p<0.01$	
Oral hygiene	Knowledge	-.53	.580	.22	.028
	Attitude	.26	<.001	.16	.01
		R ² =.069, F=7.51, $p=.07$		R ² =.049, F=4.99, $p=.02$	

IV. 논의

손위생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구강위생은 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진료형태를 파악하고 향후의 구강위생지식과 실태 등을 향

상시켜 구강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성인에 비해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Kim HS et al, 2008) 손씻기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을 비교함으로써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성별은 간호대생은 남성 23.4% 여성 75.7%, 비간호대생은 남성 37.8%, 여성 62.2%로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간호대생의 경우, 1학년 25.2%, 2학년 25.2%, 3학년 20.4%, 4학년 29.1%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고, 비간호대생의 경우 1학년 19.4%, 2학년 19.4%, 3학년 33.7%, 4학년 27.6%로 3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족 연소득의 경우, 4000~6000(만원)의 비율이 간호대생 35.9%, 비간호대생로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흡연 여부는 간호대생의 92.2%가 '안한다', 비간호대생의 87.8%가 '안한다'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비흡연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음주 횟수는 간호대생의 경우 '안한다'의 응답이 30.1%, '1달 1회 이상'이 40.8%였으며, 비간호대생의 경우 '안한다'의 응답이 22.4%, '1달 1회 이상'이 46.9%로 '안한다'와 '1달 1회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간식 횟수의 경우, '1일 1회' 응답률이 간호대생 57.3%, 비간호대생 62.2%로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 결과,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생 0.94점, 비간호대생 0.9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생은 3.61점, 비간호대생은 3.5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공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여 1학년을 제외하여 비교한 결과, 지식($t=4.08$, $p<.001$)과 태도($t=2.23$, $p=.027$)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생의 지식 정도가 비간호대생 보다 다소 높으나, 간호대생의 전공에 대한 경험의 정도가 손씻기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손씻기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생 2.66점, 비간호대생 2.6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전공 여부가 손씻기의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학년을 포함하여 비교하였을 때 지식과 수행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1학년을 제외하였을 때는 지식, 태도, 수행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이 손씻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

결과,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생은 0.74점, 비간호대생은 0.7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위생에 대한 수행도에서 간호대생은 0.47점, 비간호대생은 0.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생은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 태도와 수행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비간호대생의 경우, 손씻기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결국, 손씻기에 대한 태도가 손씻기 수행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 평균은 0.60이었고, 구강위생에 대한 수행도의 평균은 0.47이었다. 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r=.26$, $p=.007$)는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평균은 0.70이었고, 구강위생에 대한 수행도의 평균은 0.391이었다. 비간호대생의 경우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도($r=.22$, $p=.028$)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구강위생에 대한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이 간호대생의 경우 태도, 비간호대생의 경우 지식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계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손씻기에 대한 태도가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손씻기에 대한 지식은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손씻기에 대한 지식만 갖춘다고 해서 실제로 손씻기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태도 형성이 수행도와 관련하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씻기 수행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간호대생, 비간호대생 모두 손씻기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씻기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손씻기 교육을 계획할 때, '지식'에 초점을 두는 이론에 근거한 수업보다는, 다양한 참여와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었다고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의 손씻기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진 점과, 지식에 대한 연구 도구의 양식이 '있다' '없다' 의 이분형 척도로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5지 선다형 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손씻기 영향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다.

간호대생의 경우 구강위생 수행도의 영향 요인이 구강보건 '태도'로 나타났고, 비간호대생은 구강보건 '지식'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에 대한 전공에 따른 차이와 상관관계, 그리고 영향 요인이 간호대생의 경우 구강보건 '태도'이고, 비간호대생의 경우 구강보건 '지식'인 것으로 보았을 때, 두 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수행도'에 대한 영향 요인이 지식과 태도가 한 부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때문에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를 개선,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습득한 구강 보건지식을 바탕으로 구강보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함양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며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 지식을 바탕으로 구강보건 태도를 개선하여 구강위생 수행에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강보건 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강원도 W시에 위치한 G대학 W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손위생과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위생과 구강위생에 대한 전공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연구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생과 비간호대생의 손씻기,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간호대생은 비간호대생에 비해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고, 1학년을 제외한 비교에서는 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생은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 태도와 수행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손씻기에 대한 태도와 수행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손씻기에 대한 태도가 손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강위생에서는 간호대생은 비간호대생에 비해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간호대생은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와 수행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간호대생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손씻기에 관한 교육을 준비할 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손씻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의 준비도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더욱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손씻기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켜 손씻기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단순한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올바른 손씻기를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위생에서는 간호대생의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결국은 태도와 수행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간호대생은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과 수행의 상관관계가 있었기에, 지식과 태도와 관련된 수행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구강건강행태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대국민적인 손씻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과, 손씻기에 대한 지식 연구 도구의 이분형 척도로 인한 정확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위생에서는 간호대생은 태도와 수행, 비간호대

생은 지식과 수행의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나 두 군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기에 이 점을 보완한 연구 도구 사용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손씻기와 구강위생 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가 평가하는 설문으로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수행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손씻기와 구강 위생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VI. 참고문헌

- 김민경(2012).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와 실천 관련요인(보건학 석사학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 박대권, 이무식, 나백주, 배석환, 김진엽, 김철웅, 김은영(2008). 일부 고등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실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74-91.
- 박흥련, 문선정(2009).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지식도 및 예방행태에 관한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9(5), 485-90.
- 윤형철(2011). *치과종합진료센터 초진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치의학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 이종도, 신두만, 박종탁(2012).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구강위생지식 및 관리 실태.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4(4), 1-9.
- 이지현, 김빛나, 김은지, 이하영, 이현정, 유다운, 고 은(2018).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비교. *글로벌 건강과 간호*, 8(2), 1-11.
- 정명진(2016). 질병관리본부, '30초이상 올바른 손씻기'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 Retrieved from: <http://www.fnnews.com/news/201610111027319576>
- 주종욱(2010). *경남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행태*(보건학 석사학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Bae JY(2002).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 public Health studies).
- Choi EH, Jang IS, Choi JY(2014). The effect of an educational hand washing program on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hand washing in under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7(1), 39-49.
- Choi HS(2015). Comparison and hygiene behavior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s, Humanities, and Sociology*, 5(4), 315-22.
- Jeong GC, Lee HS, Kim SN(2003). A Study on the Dental Services Utilization by Application of the Andersen Model in Students of Some Korean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5(3), 357-73.
- Jeong SH(2006). *Health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Behaviors*(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al).
- Kim DH(2012). Comparison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between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Global Health and Nursing*, 2(1), 26-33.
- Kim HS, Oh EG, Hyoung HK, Cho ES(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lifestyl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3), 506-20.
- Lee GC, Lee HK, Park YS(2017).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health behaviors. *Journal Qualitative Research*, 18(1), 49-65.
- Lee MS, Park YJ(2014). Hand washing projects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Public Health Weekly Report*, 7(13), 268-77.
- Lee YH, Lee MS, Hong SJ, Yang NY, Hwang HJ, Kim BH, ... Kim YT(2016). Related factors to handwashing with soap in Korean adul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1), 89-99.
- Park KY(2012). Influences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self-efficacy on proper hand cleansing and hand washing practices among prepracticum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13-21.
- Ryu SM, Lim YJ(2013).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on the hand washing by pre-practicum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714-22.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714>
- Yeo JH, Kim EY(2010). University students' health habits and relevant fact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83-91.
- Yoon GG, Choi GR, Kim JR(1993).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Pusa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10(2), 3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knowledge and facts about personal hygiene of college students' majors, that is,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ersonal hygiene performance, focusing on hand washing and oral hygiene behavior. From April 16 to June 20, 2020, 102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97 non-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for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on hand washing and oral hygiene, and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handwash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an in non-nursing college students, and oral hygie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and attitud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handwashing performa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was attitude toward handwashing, and oral hygiene performance was most affected by attitude toward oral hygien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knowledge of oral hygiene in non-nursing college students. Appeared as a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when developing differentiated personal hygiene education or promo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subject's major characteristics.

Key words: Personal hygiene, Hand washing, Oral hygiene, Nursing students

보건복지연구

인쇄일 : 2020년 12월 24일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 소장 김근면

편집인 : 학술부장 김현정

기획부장 박수지

위원 박선아

위원 김규찬

발행처 :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주 소 :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전 화 : 033-760-8907

팩 스 : 033-760-8641

이메일 : jin1042@gwnu.ac.kr

출판등록: 2016년 10월 4일 제 419-2016-000024호

ISSN : 2508-6529

※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